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공 백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이주민 적응 사례를 고찰하였고,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각종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각기의 연구 문제를 다룸에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에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소년층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두 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0년도는 312명, 2001년은 583명, 2002년은 1,141명이며, 올해는 8월 기준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0명에 비해 12%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약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입국자(38.8%)가 증가하여 현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약 25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이탈 청소년의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지원 정책의 마련과 그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

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화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은 일상생활을 비롯한 주요 삶의 영역과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요건이 북한이탈 성인과 크게 틀리다는 것에 주목하여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구안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는 연령, 성별, 가족유무, 진학여부 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부적응의 양태가 여러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중에서 하나원 내의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하나둘 학교’의 개원, 그리고 특례입학제도 및 등록금 지원 정책 등은 과거에 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화한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지위- 예를 들면 무연고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비롯한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 등 -를 고려하거나 학업 부적응, 정서·심리적 부적응, 문화·경제적 부적응 등과 같이 부적응의 유형별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도별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99년에 5명을 시작으로 (99년 이전에는 청소년의 단독입국 사례는 없었음) 2000년 10명, 2001년 29명, 2002년에는 53명이 입국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흔적은 대부분 일부 민간단체의 사업을 중심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많은 요인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마련과 그 시행의 책임이 온전히 정부만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지원 정책의 수립이 정부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원·보완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시민사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단체는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는 특화된 관련 사업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교육의 내실화 및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및 사회적응 문제는 그 출발점이 현재에 있으나, 향후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통합의 문제와 맞닿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에서 특수적·임의적 정책보다 보편적·항구적 정책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응 지원 정책이 특수적·임의적 성격을 지닐 때,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한 사회내의 또 다른 북한 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중 이민자에 대한 지나친 특수성의 강화는 기존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켜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은 시혜적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적·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사회적응의 문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부적응의 유형화를 고려한 다차원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우선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 및 그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

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당면하는 제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1) 사회적응 관련 이론 연구

사회적응의 개념화를 위하여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정의와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체적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패턴이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살펴보고, 동시에 적응문제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화를 시도한 논의도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적응의 유형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Berry의 문화동화(assimilation), 문화통합(integration), 문화분리(separation),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과 관련된 논의와 Berry의 이론을 응용하여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응의 유형화를 시도한 윤인진, 전우택, 전성우의 논의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을 구안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이슈를 천착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사례,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 실태 분석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에 기초한 그 연령의 적응 범위 문

제와 최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은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초기생활 안정 지원, 자립·자활지원, 시설보호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은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 및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등과 같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학업지원,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등의 사회 부적응 유형화에 따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실태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3)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실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크게 학업·문화·경제적 영역의 적응 실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문제·비행의 경험, 가족내 갈등의 주요원인, 시설보호내 적응의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의한 지원 정책 평가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1명, 여자 9명이며, 연령은 주로 17세부터 23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피면접자 중에는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9-24세 외의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자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연령적으로는 청소년이 아니지만 청소년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학령기에 있으므로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20명의 피면접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인문계 고등학교 2명, 실업계 고등학교 1명, 대학 재학 9명(4년제 7명, 전문대 2명), 무직 3명, 취업 2명, 그리고 현재 대입준비를 위한 검정고시 과정에 있는 자가 3명이다. 그리고 피면접자의 가족관계는 양친을 비롯하여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가 10명, 한부모 가정(어머니) 4명, 소년소녀 가장 1명, 그리고 무연고 청소년이 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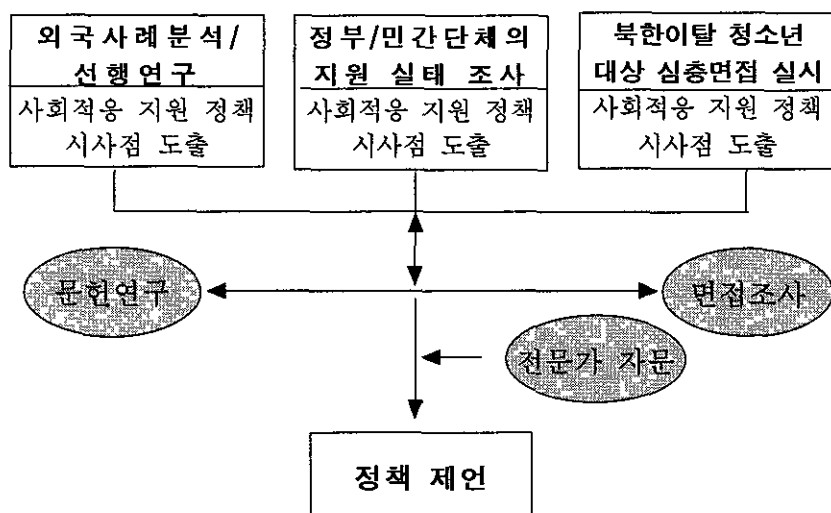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 모색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은 앞의 정부 및 민간 단체 차원의 지원 실태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에 기초하여 구안하였다. 주요 영역은 학업지원 방안, 하나원 교육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등이다.

먼저, 학업 지원 방안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북한이탈 청소년 전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교육 공간의 확보, 방과후-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기 시스템 구축, 동료 학습체제 구축, 학업진로담당관(교육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하나원 교육의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효율적 학습 지원 프로그램 구축, 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제 마련, 단계별 적응프로그램 구축, 하나원과 인근 학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보건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진출 후 지원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 국가-민간단체-북한이탈 가정간의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마련, 전문 상담시스템 구축,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방법 체계도



[그림 I-1] 연구방법 체계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을 구안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외국 사례 및 선행연구를 하였고, 3장에서는 정부 및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접근 방법으로 2-3장은 문헌연구를, 4장은 면접조사를, 그리고 각 장의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구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 (2) 문헌연구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화와 독일, 미국, 캐나다 이민자의 사회적

응 사례를 비롯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규모, 그리고 정부 및 민간 단체의 지원 실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주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하였다. 특히, 정부 및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참여 민간단체를 현장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3) 전문가 자문

연구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학계, NGO, 정책담당자 대상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4) 심층면접 조사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상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20명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연구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연령은 9-24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3장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현재의 연령이 20대 중·후반이나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남한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청소년의 연령 기준과 일상생활의 문화적, 경험적 연령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명확하게 그 연령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일반화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 중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정책을 분리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원 정책중 청소년층에 적용 가능한 정책만을 선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할 경우 청소년 대 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안·제시하였다.

셋째, 20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결과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250여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모두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면접 인원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학업 및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결과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보편적 당면 문제로 남한 사회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들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그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넘긴다.

공 백

##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기초
2. 외국 이주민의 사회적응 사례
3.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공 백

## II.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사회적응의 개념에 기초하여 그 유형화를 시도한 Berry의 문화동화(assimilation), 문화통합(integration), 문화분리(separation),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과 관련된 논의와 Berry의 이론을 응용하여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응의 유형화를 시도한 윤인진, 전우택, 전성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이주민 사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사례,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기초

#### 1)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적응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단독 입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가족을 동반한 다양한 연령층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중태, 2002). 특히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국내로의 유입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응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의 수립과 시행은 남북한간의 사회통합 혹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많은 갈등과 혼란에 대비하는 실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원래 적응이란 생물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김귀옥, 2000: 327).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체적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패턴이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동(1995: 403-404)은 ‘인간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변이를 관용하고, 그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적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윤여상(1994)은 적응을 심리학적 개념과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적응은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개별 인간의 투쟁이며 사회학적으로는 다양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와 욕구 등에 인간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해서 윤인진(2000a, 2000b)은 이들의 심리적 욕구와 사회환경간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적응을 크게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적응은 남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혜경과 김영란(2000)은 사회적응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정서적 측면, 가족관계 및 역할체계, 가족외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와의 관계 및 교류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사회화와 통합의 의미를 지닌 사회적응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환경과 사회구조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남한 사회의 제반 사회환경

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기영,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의미로서의 적응은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그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혹은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사회에서의 적응보다는 질적으로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배대원, 2002).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응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의 경우 학업과 관련해서의 적응과 가족구성원간의 긍정적 관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개념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사회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항하여 기존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대체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조정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흡수 혹은 동화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회에 처음 정착할 때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사회에서 배우고 성취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생존의 방법을 체득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면서 안정된 삶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을 유형화한 접근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상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접근은 Berry(1998)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기존의 문화를 한 축으로 하고 새로운 문화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적응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각 유형별 특징이 명확히 인식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동화(assimilation) 유형은 기존에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였던 사회의 문화와 새로운 사회의 문화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재검토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수용하려하기 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문화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 사회에서의 경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환경에 동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인격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급격한 문화변동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화통합(integration) 유형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자기 자신의 성숙기회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남한 사회의 문화를 추종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와의 비판적 비교를 통해 두 문화의 장점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적응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분리(separation) 유형은 기존 문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남한 사회의 문화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후회와 체념으로 주변 환경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미래에 대해 절망감을 갖게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했던 사회의 문화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남북한 사회의 어느 문화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두 문화권의 주변을 맴돌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문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문화가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현재의 문화가치를 부정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Berry의 이론을 응용하여 윤인진(2000b)은 북한이탈 이전 단계의 요인들, 제3국 체류단계의 요인들, 그리고 남한 입국 및 정착단계의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지니면서 각 단계에서의 경험의 사회적응의 수준과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응을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이 두 영역의 조합으로 네 가지 상이한 적응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 적응(통합):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하게 적응한 상태

② 부분 적응(고립): 경제적 측면에서는 잘 적응하였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

③ 부분 적응(문화적 동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남한사회와 일체감을 갖는 상태

④ 부적응(주변화):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모두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남한사회에서 길도는 주변화 된 상태

한편, 전우택(1997)은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해서 사회적응을 크게 정치 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그리고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 ① 정치 사상적 적응: 북한의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획일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정도와 과정
- ② 경제적 적응: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와 독립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경제생활 영위
- ③ 심리적 적응: 남한사회에의 만족감과 적응능력의 자신감 및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또한, 전성우(1997)는 통일 이후 체제전환에 대한 관여자의 행위양식에 따라 동독 주민들의 적응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개인적·제도적 적응: 소수의 적응자;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형; 자본주의적 인간화; 구 체제의 중견관리층; 동독 체제전환의 최대 수혜자
- ② 개인적·비제도적 적응: 사회 심리적 아노미; 사회 병리적 일탈 행동; 주변인화; 체제전환의 최대피해자
- ③ 집단적·제도적 적응: 노동조합, 정당, 그리고 선거를 통한 조직화된 행동; 정치력과 여론 형성을 통한 지위 획득; 구체제 복고 여론 조성
- ④ 집단적·비제도적 적응: 주로 초기의 대처 방안인 사회운동과 공장점거 등;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성 상실; 개인적·비제도적 방법과 집단적·제도적 방법으로 전환

전성우(1997)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 개인적·제도적 적응 유형에 속하는 동독 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절대 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는 통일 초기의 집단적·비제도적 적응 유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점차 제도적으로 적응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독이 모범적인 시장

경제체제를 발달시켰으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앞에서 논의한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면, 먼저 Berry(1998)의 모델을 적용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반응은 문화동화형과 문화통합형보다는 문화분리형 또는 문화주변형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문화분리형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남한의 사회와 문화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생활에서 남한보다 좋았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이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지니는 순박성 그리고 의리와 인정을 중요시하는 환경에 익숙하다가 남한 사회의 치열한 경쟁,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그리고 이로 인한 남한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속성에 실망하면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낮은 학습능력 또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적응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외로움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주변형의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상은 북한사회에서 존재했던 이른바 ‘보호문화’의 해체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정 조직과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에 익숙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수동적인 행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경험했던 보호문화와 순종의 습성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윤인진(2000b)의 모델을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회에서의 부적응은 흔히 일탈행동 혹은 비행과 연결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한만길·현주·오기성, 1999). 따라서 정부의 교육비 지원으로 학교 등록금은 면제되지만, 교복이나 학용품 등에 드는 비용이나 교육에 필요한 참고서를 구입하거나 학원수강 등에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별 가정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남한으로 힘겹게 이주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의 이혼으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초기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가정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심한 경우 폭력적 행동이나 가치관의 혼란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적응 유형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인 적응 유형은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윤인진, 2000b). 이들 중에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경쟁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신들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보이는 무관심, 편견, 경멸, 차별로 인해 아직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간의 상이한 체제와 문화에서 오는 선택과 자율적 관행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무시, 몰이해, 소외, 외로

움 등의 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남한 사회와 전혀 다른 체제에서 형성된 행동양식과 가치관 등을 지닌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실제로 사회 부적응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장기간 교육기회를 상실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단계별로 학력을 인정받고 학교에 편입하게 되지만, 학습수준이나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정도 수준을 낮추어 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편입하기 이전에 별도의 학습보충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과목을 배우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또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의 편입으로 인해 또래친구 사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검정고시와 직업학교 등을 통해 학업활동을 다시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학교 이외의 공간은 학교와는 또 다른 사회 적응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에 비해 비보호적이고 비관용적인 환경에서 정체감 혼란을 가져오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우택(1997)은 한 인간이 새로운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 심리적 적응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적절히 잘 와 있는가, 새로 정착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에 소속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다른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전우택, 2000). 적응을 시

도하다가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소외’ 혹은 ‘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정착시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인진, 2000a, 2000b). 사회 문화적 적응의 측면에서도 대인관계에서 언어나 가치관, 사고방식, 사회제도 등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서로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응의 유형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해 한만길 외(1999)의 연구는 주목할만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 지위상승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습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에 편입한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데 비해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편입한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연령 청소년들의 경우가 더욱 힘들고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혹은 또래들과의 인간관계이다. 그 이유는 교사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특히 자신을 다른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하는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상당 기간동안 제3국에서의 힘든 도피생활의 경험으로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혹은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갈등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할만한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련적응, 교우와의 관련적응, 학습활동 적응, 그리고 자기통제에 관련한 적응으로 구분하여 학교적응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박선경(1998)의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2. 외국 이주민의 사회적응 사례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다룬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 주목해야 할 이슈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사례,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독일 사례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 규모와 이주 형태는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정우·김형수, 1996). 첫 번째 단계는 독일의 패전에 따른 연합국의 분할점령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이전의 기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1989년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간이며,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연평균 10만 명 정도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종전 이후 1990년까지 그 수가 약 460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수 많은 이주민들을 위한 서독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은 크게 주거보장,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교육, 고용, 그리

고 사회적응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정착지원은 대체로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지원은 특별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제한하고 서독 주민들과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원마련의 정당화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들 가운데 교육보장과 사회적응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육보장과 관련해서 이주민들은 「연방교육촉진법」에 의해 서독 주민들과 동등하게 대학까지의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수급상한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이주민들의 출신 지역에서 취득한 학위증서나 졸업자격이 독일의 교육수준에 상응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보충적인 교육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각 주의 특성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개별적인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이주민들이 수용소에 거주하고 있을 때부터 사회정착과 일상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방 정부도 이들의 취업을 위해 충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일시적인 정착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충분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의 자활을 유도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초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 및 주거 문제를 상담하거나 부적응을 보이는 이주민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행정기관과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새로운 체제와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활동, 생활

정보 제공, 심리상담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착지원 정책이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주민 관련 정부조직과 민간단체들을 연계하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주민 지원 민간단체들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증진시키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정우·김형수, 1996).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간에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이주민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 등이 독일의 특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서독 정부는 이주민들의 사회적 동화 및 정착을 위해 매우 유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서독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칙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뿐이며, 이주민 각자가 직접보고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특히, 이주민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서독 정부는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을 수행하고 직접적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들 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과 파트너십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들은 서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대학에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지 주민들간에 동서독의 체제, 이주민의 역사, 이주 동기 및 상황, 현지 생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종 스포츠 동호회를 통해 서독 주민들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였고 서독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마련하였던 정치교육센터를 활용, 이주민들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서독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동화와 적응을 유도한 것이다. 즉,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학성, 2003).

특이한 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도록 이주민에 대한 이념 혹은 사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러한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판단력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서독정부의 접근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서독과 동독간에 친지방문, 전화, 우편교류 등이 허용되었고 동독에서 서독의 매스미디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체제와 사회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이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이주민의 수용과 정착지원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것은 국내외적인 여러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이정우·김형수, 1996). 그러나 독일 사례의 분석에서 김학성(2003)은 이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기본적 지원과 서독 사회에 대한 동화 및 적응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베를린 장벽 철거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들의 적응문제는 급속한 통일과정으로 인해 단순한 사회적응을 넘어 사회통합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미국내 유럽 이주민들의 적응문제와 교육에 대해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유산의 역할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Bernard J. Weiss(1982)에 의하면, 184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의 유럽 이주민들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이주민들의 경우 탁월한 기술이 없었고, 교육정도가 낮았으며, 미국 내의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들에게 삶이란 낯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항구적인 투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반감이 심할 경우 이주민들은 심각한 부적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미국의 삶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사회의 전통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주라는 경험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자긍심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Goldberg, 1980). 가족구성원 가운데 청소년들이 대개 정착하는 사회의 주류문화에 빠르게 그리고 많이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부모를 능가하게 될 때 가족관계는 긴장된다.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이며, 또한 존경을 받기 원하는 부모의 권위에 치명적인 역할 전도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Lee(1988)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동남아 난민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초기 적응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전환과 세대간의 갈등을 동시에 겪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근원을 부모-자녀간 혹은 세대간 갈등 그리고 전쟁과 같은 충격으로 발생하는 혼란으로 분류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동남아 난민가족, 특히 베트남 난민가족 수용 정책의 핵심은 재정적 고려와 빠른 사회적응을 강조하면서 미국 전지역에 분산 수용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난민의 경우 상이한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초기 이주한 집단은 주로 중·상류층 출신이었고 그 이후에 이주한 집단은 하류층이 많았다. 미국 정착과정에서 중·상류층 출신의 첫 번째 난민집단은 빠른 시기에 사회경제적 안정을 찾았으나 하류층 출신의 두 번째 집단은 빈곤과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Gold, 1992). 정착 초기 미국 정부의 분산 수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난민들은 미국의 특정 지역사회 예를 들면, 마이애미시 혹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등으로 2차 이동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분산 수용정책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려는 시도, 그리고 베트남 난민들이 여러 지역사회에 분산 정착하면 현지 사회로의 적응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 난민들에게 사회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경험한 난민들이 특정 지역사회로 재이동하면서 자신들만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점차 미국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었다고 하겠다.

Jay Chaskes(1996)는 기존의 이주민 적응에 관한 연구를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적용시켜 이들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학 신입생의 경험은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유사한 재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은 문화적 충격, 언어소통의 문제, 대학의 관료적 규범과 가치, 대학환경의 기대에 대한 내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과거 모국에서 학습했던 모든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았을 때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은 이들이 첫 학기에 적응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장 어

려운 것 중 하나는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입학 초기에 이들은 학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문과 비판적 사고간의 연계를 평가하지 못한다. 교수학습 방식에 있어서도 교수들은 청소년들이 학습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교수가 자신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수업에 임한다. 양자의 기대 속에 간격이 존재함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대학 신입생들은 미국의 주민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다양한 기능과 특정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 기능, 문화적 기대와 규범, 시민적 자질 및 수행능력,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와 서비스에 대한 학습 등을 포함한다. Jay Chaskes(1996)는 학교가 문화적 동화를 위한 일차적 수단이며 이주민 자녀들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배워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문화적 양식은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 미국 주민들의 적대감, 그리고 학교교육 등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 3) 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1971년 연방정부가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사회통합의 이념으로 제창하면서 출현하였다.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로 연관된 세 가지 현상을 의미한다(Troper, 1999). 첫째, 캐나다 사회가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라는 인구학적 현상을 말한다. 현재 캐나다 국민의 40% 이상은 비영국계와 비

프랑스계 출신이다.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로부터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캐나다의 정치와 경제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문화주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캐나다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려는 캐나다의 사회적 이념을 말한다. 미국이 백인 중심의 동화주의적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면,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집단들간의 조화와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통합시킨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부합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단지 구호나 수사의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면,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 발표 이후 1982년의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1986년의 Employment Equity Act, 그리고 1988년의 Multiculturalism Act 등을 제정하여 문화적 다원주의와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캐나다 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이는 모든 집단에 대해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상이한 문화집단에 대한 지원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또한 국가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상이한 문화집단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새로운 이주민들이 완전한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식적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Li, 1999).

특히, 1988년 캐나다 의회는 'Multiculturalism Act'를 제정함으로써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최초로 이루어진 이러한 법제화는 캐나다 사회의 특징으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더욱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신들만의 민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로써 평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도는 인종과 민족에 따른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앞으로도 캐나다의 사회통합 원리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는 캐나다 사회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된 국민적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미국은 'American'이라는 강한 국민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못하다.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캐나다 사회가 어떠한 접근방식으로 사회통합을 모색할지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3.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외국의 이주민 사회적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결론은 문화와 가치관이 매우 다른 새로운 사회에서의 이주 가족과 청소년들의 경우 정착지의 일반가족과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가족갈등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심리적 문제를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Ben-Porath, 1987). 이러한 결론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과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정부와 국민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의식, 국가의 경제력, 사회보장제도, 민간단체의 적극적 지원활동,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존재 등이 사회적응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이주 이전의 경험과 이후의 경험이 각각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민 수용국의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통합 정책, 차별 없는 형평한 기회의 보장,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정도 등이 이주 후 성공적인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독일의 경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를 남북관계의 걸림돌로만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협상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서독의 꾸준한 교류와 접촉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본원칙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기보다 사안별로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한 경향이 있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 가치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합을 추구하려는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지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성과 이 과정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자발적 지원 역량이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되어야 효과적임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정착 및 동화문제가 심각성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독일의 사례는 이들의 사회동화 및 적응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한 실정에 부합하는 재정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주민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대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나 정책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간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치와 경제 체제의 단일화는 동시에 사회 심리적인 통합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전태국, 2000). 독일이 동서독 주민들의 문화, 역사, 언어 등의 동질성만을 쉽게 믿고 시작한 통합과정은 동독 주민들의 적응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통일 이후 ‘이등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다(유팔무, 1999). 독일의 경험은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재사회화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 청소년과 통일에 관한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 우리 나라와는 이주민의 규모, 국내외의 정치적 변수 및 체제의 경직성, 경제적 능력,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사례의 경우, 특히 Chaskes(1996)의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적응문제를 이민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 언어생활, 교수학습 방법, 학교문화와 규범, 학교행정상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베트남 난민 사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계층이 다양화해 가는 시점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양상이 계층적인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적응시 당면하는 문제 역시 상이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통상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고 확일적으로 직업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초기단계에 '보호된 경제적 적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윤인진, 2000b).

캐나다의 사례에서 검토한 다문화주의의 특성, 메커니즘, 원칙, 그리고 접근방식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 계급,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는 인구학적 구성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다문화주의는 주로 문화적인 접근과 지원을 강조하였으나 이후에 신규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집단들의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문화 중심적 접근방식에서 형평성 제고의 접근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형평성 제고와 차별 극복의 측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단지 문화적 관용성과 상대주의로는 성취할 수가 없고 사회구성원들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캐나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2. 정부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3.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실태
4.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공 백

### III.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3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에 기초한 그 연령의 적용 범위 문제와 최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와 연령 기준

‘북한이탈 청소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학자나 국가,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이라는 우리들만의 특수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은 분명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법률적, 사회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이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통일관련 연구소를 비롯한 각각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포괄적 개념인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두 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00년도는 312명, 2001년은 583명, 2002년은 1,141명이며, 올해는 8월 기준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0명에 비해 12%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통일부, 2003).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는 약 1,200명에서 1,3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 들어 북한이탈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적 개념과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먼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북한을 탈출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주민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북한인 등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 시각을 담고 있다. 이중 귀순의 경우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남북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하였다.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자유북한인의 경우에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이우영 외, 2000 : 3).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난민

(refugee)<sup>1)</sup>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적국인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 송환시 처벌의 위협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이탈자가 민족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처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이탈주민의 급증으로 처벌양태가 변화하였으며 다수의 경우 탈북의 동기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량난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북한(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탈출한 난민들과 차별되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규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 국적국 밖에서 떠돌고 있는 경우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이우영 외, 2000 : 3-4).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및 시각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90년대 초반에 ‘굶주림에 지쳐 나라를 등지고 온 같은 민족’이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반세기 동안 떨어져 지내온 우리의 민족이기보다는 현재 남한 사회에 소속된 ‘소수집단’<sup>2)</sup>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북한

1)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2) ‘소수집단’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 또는 국가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집단 또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때도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힘의 균형관계가 문제될 때 피지배에 놓인 집단을 소수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탈주민이 몇 몇 소수의 문제가 아닌 '소수집단'의 문제로 등장한 것에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대적 의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 학계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의 폭을 늘려가며,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특성화된 정착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자'라는 하나의 공통점만으로 똑같은 정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연령별, 성별, 학력 등의 차이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로 청소년기는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조심스럽고, 세심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마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도 다 이러한 연유라 생각된다. 더욱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부모 없이 홀로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이다. 2002년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 약 50%가 부모, 형제·자매도 없이 홀로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이라는 통계는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무연고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의 무관심, 또는 이혼 등으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착 지원 노력은 무연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몇 세까지 설정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기준을 일률적으로 이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대 후반의 연령대에 있던 청소년이 탈북하여 중국지역에 몇 년간 거주 후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그 연령은 24세를 넘었으나, 여전히 북한지역의 청소년문화를 주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체격 또한 왜소하며, 남한의 정착과정에서 중·고등학교의 학령기에 편입된 경우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탈북 과정과 외국체류 기간동안 생리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학업을 위한 제도교육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여 신체적, 학업적 측면에서 많은 지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업적인 측면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결정짓는 생물학적·법적 측면의 연령인 18세 또는 24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입국 이후 이들은 중·고등학교의 학령기에 편입되어 자신보다 2-3세 낮은 연령의 남한 청소년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그 문화적 영향권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체적 발육, 남한청소년 문화의 동일시의 기준, 지적·정서적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연령에 상관없이 학령기에 속해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실관계만을 고려하여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의 적용 문제는 이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 연령의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폭 넓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와 변화

### (1)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현황

#### ① 국내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도의 2배 정도인 1,141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2년 12월까지 총 3,13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표 III-1> 국내 입국 현황

(2002.12.31 기준)

| 연 도   | '89<br>이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계     |
|-------|-----------|-----|-----|-----|-----|-----|-----|-----|-----|-----|-----|-----|-----|-------|-------|
| 인원(명) | 607       | 9   | 9   | 8   | 8   | 52  | 41  | 56  | 85  | 72  | 148 | 312 | 583 | 1,141 | 3,131 |

\* 총 입국 3,131명 : 국내거주 2,886명, 사망·이민 등 245명.

※ 출처 : 통일부(2003). 「2003통일백서」. 252쪽.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입국 방법 등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면서 입

국이 용이해짐에 따라 입국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예로 재중 외교공관을 통한 입국, 국내외 연고가족의 도움, 국제NGO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표 III-2> 2002년도 국내 입국자 연령별 현황

(2002.12.31 기준)

| 연령    | 10세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계     |
|-------|-------|--------|--------|--------|--------|--------|-------|-------|
| 인원(명) | 55    | 155    | 332    | 368    | 130    | 61     | 40    | 1,141 |
| 비율(%) | 4.8   | 13.6   | 29.2   | 32.3   | 11.3   | 5.3    | 3.5   | 100   |

※ 출처 : 통일부(2003). 「2003통일백서」. 253쪽.

200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의 입국증가로 여성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면에서는 20-30대가 61.5%로 청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과 청소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부·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입국자(56.4%)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 2002년도 국내 입국자 직업별 현황

(2002.12.31 기준)

| 직업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체육 | 노동자<br>농장원 | 봉사<br>분야 | 군인  | 기타   | 계     |
|-------|-----|-----|------|------------|----------|-----|------|-------|
| 인원(명) | 32  | 45  | 18   | 504        | 72       | 11  | 459  | 1,141 |
| 비율(%) | 2.8 | 3.9 | 1.6  | 44.2       | 6.3      | 1.0 | 40.2 | 100   |

※ 출처 : 통일부(2003). 「2003통일백서」. 253쪽.

한편, 출신지역은 대부분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함경도(76.9%) 지역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계층은 노동자·

농장원(44.2%)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관리직, 전문직 및 예술·체육분야의 직종을 갖고 있는 계층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 ② 거주 및 정착실태

2002년 12월말 기준 사회편입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560명의 각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50.4%, 경기·인천 19.3%로 수도권 지역에 69.7%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 거주자는 경상 13.4%, 전라 5.0%, 충청 8.2% 등에 이른다.

직업별 분포는 연구원 등 관리전문직이 2.8%, 회사원 등 사무직과 생산직 봉급생활자가 21.7%, 상업 등 자영업자가 4.3%, 학생·고령인구·주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가 41.8%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부, 2003).

정부는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의 본격 시행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다.

## ③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전체 국내 입국자 중 청소년의 비율을 통하여 추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전체 460명 중 20세 미만 청소년은 109명으로서 전체 비율에서 2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0% 수준으로 추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등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나,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20-30만 정도, 정부에 의하면 5만명 정도,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매우 자의적이고 일정한 기초자료가 없는 실정이나, 위에서 추산한 것과 같이 전체탈북자의 20%가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길은배, 2002).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 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 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와 변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매해마다 발표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연령별 구분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또 위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나이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어디까지를 청소년이라 해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원 내 대안학교(하나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대학 진학 및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라 보았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001년 2월에 개원한 '하나돌 학교'는 2002년 12월까지의 입학생이 201명이라고 밝혀놓고 있다. 그리고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 전에 하나원을 거쳐간 1기생부터 2000년 말경의 10기생까지의 10대 청소년은 약 49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2002년 말 기준으로 현재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약 250여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점차 북한이탈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에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도 탈북하여 남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로 홀로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5명을 시작으로(1999년 이전에는 청소년의 단독입국 사례는 없었음) 2000년 10명, 2001년 29명, 2002년에는 53명이 입국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다.

정부도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2년 5월부터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20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20세 이상 24세 이하라도 무연고자라면 희망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중에 있다.

## 2. 정부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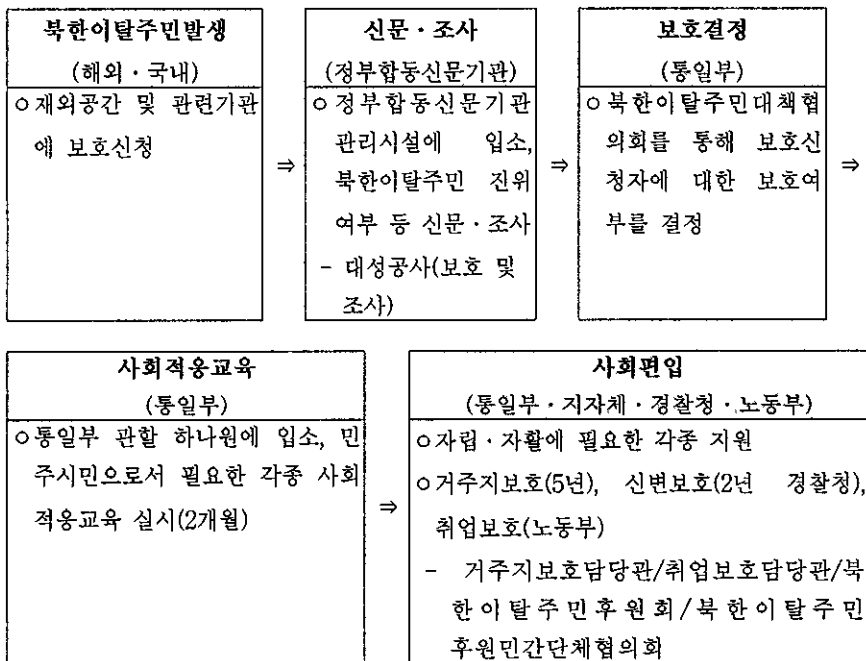
### 1) 정착지원 체계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여부가 우리의 통일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2003).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 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셋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 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

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분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그림 III-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더불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sup>3)</sup>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

-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

회는 긴급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 성격별로 정책, 운영, 교육훈련, 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정착 단계별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 현황

| 보호단계    | 시설보호                                                                                                                                             | 거주지편입                                                                                                                                      | 거주지보호(5년)                                                                                                                                                                   | 사후지원                                                                                                                                                 |
|---------|--------------------------------------------------------------------------------------------------------------------------------------------------|--------------------------------------------------------------------------------------------------------------------------------------------|-----------------------------------------------------------------------------------------------------------------------------------------------------------------------------|------------------------------------------------------------------------------------------------------------------------------------------------------|
| 지원목표    | 우리사회 기본적 이해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                                                                                                                         | 초기 생활안정 지원                                                                                                                                 | 자립·자활지원                                                                                                                                                                     |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
| 주요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조사를 통한 보호결정</li> <li>○사회적응교육(2개월)</li> <li>○심리상담·진로지도</li> <li>○생활관리·지도</li> <li>* 각종 자원봉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착금 등 재정적 지원</li> <li>○주택알선</li> <li>○자매결연 지원</li> <li>○학력인정 및 편·입학지원</li> <li>○자격·경력인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생계보조금 지원</li> <li>○직업훈련 지원</li> <li>○교육지원(공납금, 학자금)</li> <li>○의료보호(전원)</li> <li>○생활보호</li> <li>○생업지원</li> <li>*거주지신변보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동사항 파악</li> <li>○애로사항 해소 지원</li> <li>○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상담·창업·결연 등)</li> <li>*자매결연, 장학지원, 상담지원</li> </ul> |
| 지원주체    |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대성공사) 자원봉사단체 등                                                                                                                      | 통일부 후원회 및 민간단체                                                                                                                             | 통일부, 거주지 보호담당관, 노동부, 경찰, 지역단체 등                                                                                                                                             | 거주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민간체협의회 등                                                                                                                       |

※ 출처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2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참조.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히 북한이탈 청소년만을 대상화한 지원 정책은 표면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회는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소개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 실태는 현재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 중에서 비교적 북한이탈 청소년층에 그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무연고 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그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원 정책만을 선별하여 살펴본 것이다.

## 2) 시설내 보호·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군보안시설에서 신문조사<sup>4)</sup>를 거친 후 통일부의 정착지원 시설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관련법률상 1년간의 보호시설내 수용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기존 수용시설(대성공사)이 군보안시설로서 민간인 신분의 북한이탈주민을 수용·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sup>5)</sup> 사회적응교육을 위해서는 민간인과의 많은 접촉·대화가 필수적이나 군 보안시설로 인한 민간인의 출입이 곤란하며, 기존시설의 수용능력의 한계로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대비한 새로운 정착지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착지원 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 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준공·개소하게 되었다.

현재,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1,815명이 사회적응 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다.

4) 신문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한 단기간 내(약 1개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1999년 2월 한창권 등 자유북한인협회 회원들이 기존 보안시설내 인권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t;표 III-5&gt; 「하나원」 교육생 수료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99 | '00 | '01 | '02   | 합 계   |
|-----|-----|-----|-----|-------|-------|
| 입 소 | 61  | 297 | 572 | 1,111 | 2,041 |
| 수 료 | 60  | 297 | 572 | 886   | 1,815 |

※ 출처 : 통일부, 「2003통일백서」, 261쪽.

한편, 최근 국내입국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00년 7월 하나원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증축공사 완료시까지의 수용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9월말부터 성남의 민간 연수시설을 임차, 하나원 분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하나원 증축이 완료되면, 연간 북한이탈주민 1,500-2,000여명의 보호·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t;표 III-6&gt;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시설명 | 규 모      | 시 설 내 역                                                                |
|-----|----------|------------------------------------------------------------------------|
| 교육관 | 약 1,235평 |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으로 활용 |
| 생활관 | 약 701평   |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으로 활용                             |
| 봉사관 | 약 241평   |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으로 활용                                          |

※ 출처 : 통일부, 「2003통일백서」, 259쪽.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교육과 기초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표 III-7>참조) 하나원에서는 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

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 내용은 크게 북한이탈 주민의 정서적·심리적 불안정 상태의 해소,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실생활 활용 위주의 교육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상만, 2000 : 213). 이에 따라 교육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 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응 교육은 <표 III-7>에서와 같이 심리적응과 우리사회의 이해, 일상생활 안내, 진로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한자·영어·시사용어·컴퓨터·운전 등 실생활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가 사회적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표 III-7>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교과과정

| 교육주제 및 내용   | 교과목         | 시간 | 비고       |
|-------------|-------------|----|----------|
| 1. 우리사회의 이해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6  |          |
|             | ○정치 경제      | 4  |          |
|             | ○시장경제와 경쟁원리 | 8  |          |
|             | ○법과 시민생활    | 2  | 생활법률과 연계 |
|             | ○사회·문화      | 6  |          |
|             | ○한국의 전통사상   | 6  |          |
|             | ○한국교육의 이해   | 2  |          |
|             | ○한국역사의 이해   | 4  |          |
|             | ○한국종교의 이해   | 2  |          |
|             | 소 계         | 40 |          |

| 교육주제 및 내용                                                      | 교과목            | 시 간     | 비 고                                 |
|----------------------------------------------------------------|----------------|---------|-------------------------------------|
| 2. 사회적응 능력<br>배양<br>- 언어생활<br>- 경제생활<br>- 교육·문화생활<br>- 가정·건강생활 | ○언어적응          | 10      | 언어교육 강화                             |
|                                                                | ○신문방송이해        | 2       |                                     |
|                                                                | ○대인관계          | 2       |                                     |
|                                                                | ○합리적인 소비생활     | 2       |                                     |
|                                                                | ○지역생활 및 지리학습   | 4       |                                     |
|                                                                | ○생활경제          | 6       |                                     |
|                                                                | ○생활법률          | 4       |                                     |
|                                                                | ○생활예절          | 8       |                                     |
|                                                                | ○교육 및 학교생활     | 2       |                                     |
|                                                                | ○여가활동(이론)      | 2       |                                     |
|                                                                | ○생활의학          | 4       |                                     |
|                                                                | ○생활안전          | 2       |                                     |
|                                                                | ○여성의 지위        | 2       |                                     |
|                                                                | ○이성과 결혼        | 2       |                                     |
|                                                                | 소 계            | 52      |                                     |
| 3. 기초소양교육                                                      | ○상용한자          | 15      | 실생활 활용 및 이해교육                       |
|                                                                | ○기초영어          | 15      |                                     |
|                                                                | ○신문활용교육        | 35      |                                     |
|                                                                | 소 계            | 65      |                                     |
| 4. 심리안정                                                        | ○심리적 안정 증진     | 2       | 안내교육시 인성수련교<br>육 실시<br>( )는 야간교육 제외 |
|                                                                | ○인성검사 및 심리적 적응 | 6       |                                     |
|                                                                | ○인성수련교육        | 18(14)  |                                     |
|                                                                | 소 계            | 26      |                                     |
| 5. 정착의지 함양                                                     | ○정신교육(특강)      | 10      |                                     |
|                                                                | ○정착경험          | 8       |                                     |
|                                                                | 소 계            | 18      |                                     |
| 6. 정서함양                                                        | ○생활체육          | 18      | 활동적인 교과 확대                          |
|                                                                | ○레크레이션         | 12      |                                     |
|                                                                | ○봉사활동          | 20      |                                     |
|                                                                | 소 계            | 50      |                                     |
| 7. 일상생활기능<br>실습                                                | ○자동차 운전        | 60      | 전산교육 야간개설<br>- 매주 월, 화, 금           |
|                                                                | ○전산교육          | (40)    |                                     |
|                                                                | ○전기 전자기초실습     | 3       |                                     |
|                                                                | 소 계            | 103(63) |                                     |

※ 출처 : 「하나원」 비공개 자료.

또한, 정착지원 시설내 보호기간 동안 학력·자격·경력·희망 등을 감안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1인 1자격 중 취득 유도기로서 6~7개월 동안 정착지원시설 인근 직업훈련기관, 공·사립학교 및 기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 및 현실적 여건 미흡으로 인해 운전 등 기초직업 훈련만이 실시되고 있다. 정착지원 시설 내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리·건강 등 개별 생활상담 및 지도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거주지 편입 지원을 위해 취적·주민등록 등 신분안정 절차와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초기 생계기반을 마련하고, 취학·편입학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써 하나원내 대안학교 성격인 「하나들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나들 학교는 하나원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민간단체인 '남북문화통합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하나들 학교는 2001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빠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영어와 컴퓨터 등 기능적인 교육에 주력하였으나 곧 한계에 봉착하였다. 남북한의 교육체제가 서로 상이한데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중국 등을 떠도는 바람에 상실해 버린 교육 공백은 물론 이들의 피폐해진 심신을 바로 잡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치반·초등반·청소년반으로 반을 세분화하고 이들 청

소년을 상대로 심리 치료와 문화적응 교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입학식과 졸업식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실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하여 남한 사회를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등반과 농촌에서의 민박 등을 통하여 화려하고 도식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하고, 새만금 간척지 등을 통하여 개발과 환경문제를 토론하기도 하며, 경찰서와 병원, 은행, 우체국, 시장 학교를 찾아 인터뷰도 해보고 남북한 사회와 문화를 비교해서 토론 할 기회를 가진다. 변산 공동체에 들어가 남한 사회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진행한다. 안산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창신동의 해송어린이등지공동체 방과후 교실, 동대문 시장과 서울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탐방함으로써 화려한 백화점만이 아니라, 그곳에 진열된 옷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 현장도 함께 보도록 한다.

매주 하루는 연극을 통해 심성수련과 자기표현을 공부하기도 한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해”의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의 지나 온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이끌어 준다. 졸업 직전에 2박 3일간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 주제도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하고, 대본도 각자 자기 목소리로 만든다.<sup>6)</sup>

6) ‘하나들 학교’는 그 이름 그대로 북한 출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어서 빨리 남한 식으로 “하나”가 되라고 채찍질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에 고단한 삶을 살면서 먼 길을 돌아 온 이들이, 먼저 “꼭 쉬면서” 몸과 마음을 풀고, 그 동안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처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직접 남한 사회를 탐색해 보도록 권한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의 모순이 보이지 않는 남한 사람들보다 더 직관적인 관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들학교를 운영하는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하나원 퇴소 이

전반적으로 하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내용이나 구성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어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원의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가 비교적 이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 3) 초기 생활안정 지원 정책

#### (1) 정착금 등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부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금액과 관리 방식에 있어 일반 북한이탈 가정과 조금 다르다.

먼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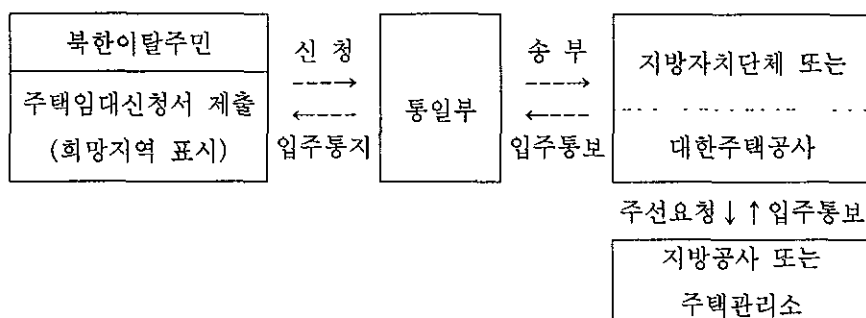
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하여 늘푸른학교(2002)와 한누리학교(2003)를 운영하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약 3,700~4,000만원 범위내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금액중 초기정착에 불요불급한 일부 금액만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분기에 약 300만원 정도씩 분할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03).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적응력이 낮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 양부모, 또는 종교단체 등의 후원자 지정을 통하여 그 정착금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또는 남한 사회의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그 관리권을 돌려 받는다.

## (2) 주거지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게는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문제는 20세 미만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무주택 정책과 20세 이상일지라도 무연고 또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일부 지연되는 정책의 문제이다.

먼저,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각 급수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는 300만원, 지방 거주 희망자에게는 500만원의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그림 III-2] 북한이탈주민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영구임대 주택 정책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의 경우 양천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의 특정지역 편중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한 사회내의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를 조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20세 이상자로 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연고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급히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원 퇴소 후 기숙사가 있는 직업전문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이탈할 경우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어 또 다른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20세 이상의 청소년일지라도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시기는 임대주택 공사(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 후에야 입주가 가능하

다. 그러므로 하나원 퇴소 후 2년 후에 주택을 배정 받는 사례도 있다. 청소년기에 있거나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기타 북한이탈 주민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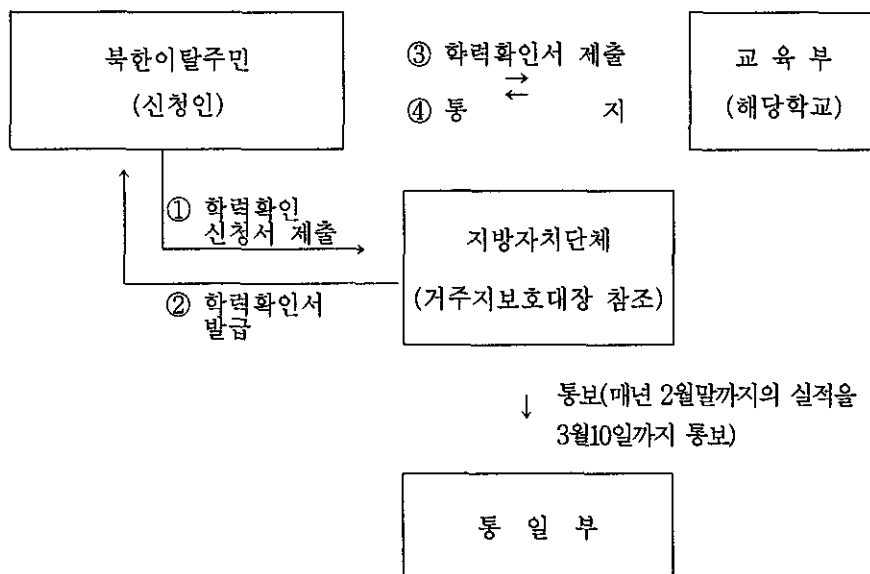
#### 4) 사회진출 후 지원 정책

##### (1) 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

학력인정 및 편·입학지원 정책은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정부 지원 정책 중에서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북한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학교에 편·입학한 청소년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자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자(지원기간은 편·입학후 4년, 단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하여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이들에 대한 학력인정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II-3] 과 같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편·입학은 교육청 및 대학당국의 편·입학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먼저, 공납금 지원 실태를 보면 해당학교가 면제시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국·공립학교는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



\* 학력 확인 : 통일부장관이 재북 학력을 확인하여 학력확인서 발급

\*\* 학력 인정 : 교육부장관이 재북 수학기간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 인정

\*\*\* 고등학교 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그림 III-3] 학력확인(인정) 절차

그리고 학자금 지원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학자금 규모는 아래 <표 III-8>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계좌 입금된다.

&lt;표 III-8&gt; 학자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중학교 기타<br>이에 준하는<br>학교 | 고등학교 기타<br>이에 준하는 학교 |     | 특수학교             |              |
|---------|------------------------|----------------------|-----|------------------|--------------|
|         |                        | 인 문                  | 실 업 | 유치원 및<br>초등학교 과정 | 중·고등학교<br>과정 |
| 1인당 지급액 | 79                     | 93                   | 121 | 447              | 596          |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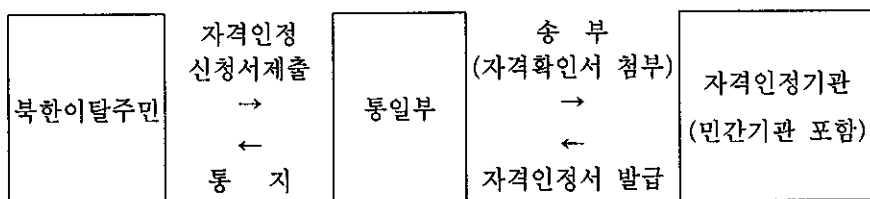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2)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

비진학 북한이탈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취업 및 이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학업청소년이 20%정도임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한 후,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권장하는 것은 훈련 이수 중 또는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동 자격에 상응한 남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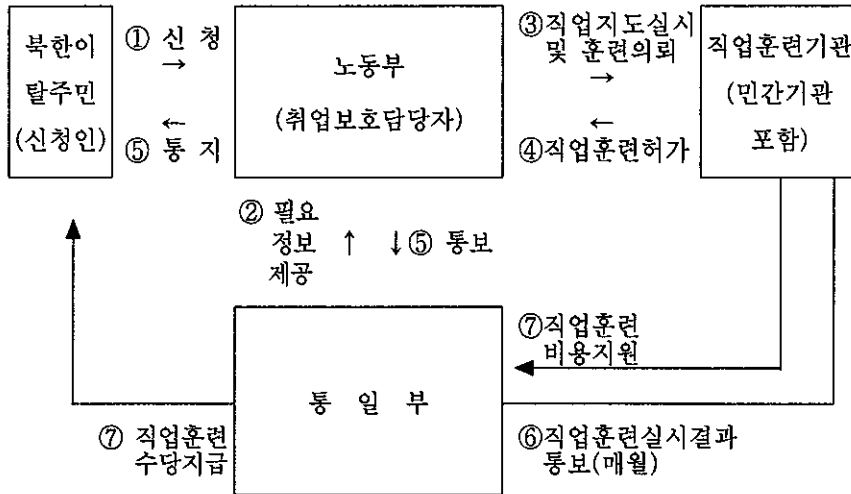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그림 III-4] 자격인정 신청절차

더불어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및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내)을 2년간 지원해 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낮은 기술력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 초과불가의 근로 조항에 따라 그 실태는 매우 미미하나, 북한이탈 성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 (3)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 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그림 III-5] 직업훈련 신청절차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희망 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은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청자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년 10월 1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5년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원 정책은 무연고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III-9> 소득평가액 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
| 소득평가액(월) | 57만원 | 79만원 | 99만원 | 113만원 | 127만원 | 추가 가구원 1인마다<br>13만원씩 증가 |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또한, 재산 가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표 III-10> 재산평가 기준

| 가구규모     | 1인~2인   | 3인~4인   | 5인 이상   |
|----------|---------|---------|---------|
| 재산(실거래가) | 3,3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 출처 : 통일부(200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그러므로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은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후원회를 통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

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3.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을 돕는 민간단체는 상당수 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 늘푸른 학교, 하늘꿈 학교, 다리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 가는 모임(이하 하이모) 및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들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적응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그 내에서의 프로그램별 성격을 살펴보면 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계절학교 및 방문과의 형태, 대안학교 운영, 학업 보충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성교육 및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로 정부의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과 후원회의 모금(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등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그 경비를 줄이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 1)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1)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년(주로 학업 대상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 능력에서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탈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교육 시스템 및 교과내용 구성 등의 차이로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학업 지원 체계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데 비해 일부 민간단체는 몇 년간의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다. 다만, 정식교육 체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부진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및 담당 인력의 충원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한겨레 계절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한겨레 계절 학교’ 개요

- 일 시: 2002. 8. 1~21.(3주)
- 장 소: 통일교육원
- 참가인원: 북한이탈 청소년 24명, 정교사 13명, 보조교사 23명
- 내용:
  - 사전 설문조사(학생) 1회
  - 기초학력 테스트(학생) 1회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컴퓨터 정규 교과 수업 각 14, 14, 14, 12, 12, 10시간
  - 특별활동(검정고시, 태권도, 판단력 키우기, 힙합댄스) 총 18시간

- 특강(남북한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의 차이) 1회
- 현장체험학습 1회: 도라산역, 오두산 전망대
- 진로·진학 지도 각 1회
- 봉사활동(신목종합사회복지관내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1회
- 자치회 활동 2회
- 기초학력 평가(학생) 2회
- 사후 설문조사(학생, 정교사, 보조교사) 1회 실시

## ◎ ‘한겨레 계절 학교’ 일일 교육모델

(2002년 8월 ○일)

| 시 간         | 일 정      |        | 장 소         | 비 고                                |
|-------------|----------|--------|-------------|------------------------------------|
|             | 기 참가자반   | 첫 참가자반 |             |                                    |
| 07:00~07:30 | 아 침 운 동  |        | 생활관         | 공 터                                |
| 07:30~08:00 | 세 면      |        | "           |                                    |
| 08:00~09:00 | 아 침 식 사  |        | 후생관         |                                    |
| 09:00~09:45 | 수 학      | 사 회    | 각 교실        | *조회 08:40, 매<br>주 월요일              |
| 09:55~10:40 |          |        |             |                                    |
| 10:50~11:35 | 국 어      | 영 어    | "           | *동기유발식 회<br>화수업                    |
| 11:45~12:30 |          |        |             |                                    |
| 12:30~13:30 | 점 심 식 사  |        | 후생관         |                                    |
| 13:30~14:15 | 과 학      | 컴퓨터    | 각 교실        | *컴퓨터 실기는<br>컴퓨터실                   |
| 14:25~15:10 |          |        |             |                                    |
| 15:10~16:00 | 자유시간     |        |             |                                    |
| 16:00~17:30 | 자유특별활동   |        | 운동장<br>각 교실 | 검정고시반<br>판단력 키우기반<br>태권도반<br>힙합댄스반 |
| 17:30~19:00 | 저 녁 식 사  |        | 후생관         |                                    |
| 19:00~19:30 | 학생자치활동 外 |        | 소강의실3       |                                    |
| 19:30~20:45 | 야간학습 ①   |        | "           |                                    |
| 20:45~21:00 | 휴 식      |        |             |                                    |
| 21:00~22:00 | 야간학습 ②   |        | "           |                                    |
| 22:10~23:00 | 취 침 준 비  |        | 생활관         |                                    |

\* 수업분반은 기 참가자반과 첫 참가자반 2개 반으로 구성.

\*\* 수업은 2시간 연강으로 이뤄지며, 월·수·금은 수학, 국어, 과학,  
화·목·토는 사회, 영어, 컴퓨터 수업 실시.

※ 출처: 2002년 한겨레 계절 학교 운영 보고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 결과 기초학력 증진에서는 약간의 효과를 보았으나(응답자의 41.2%가 향상에 긍정적 답을 함), 직접적인 성적 향상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응답자의 52.9%가 성적 변화 없음을 답함)으로 보고하고 있다(2002년 한겨레 계열 학교 운영보고서).

이곳에는 정규교사(자원봉사 정규교사), 보조교사(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청소년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학업지도는 물론이고 청소지도, 취침지도, 남한에서의 생활방식 및 생활예절지도 등을 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인당 교육비가 약 100여 만원으로 책정되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또 지원하는 청소년을 항상 받아줄 수 없어, 연 2회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에 의존하거나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사업의 프로젝트에 제안서를 넣으로써 마련하고 있다.

## (2) 하나를 이루어 가는 모임(하이모)

하나를 이루어 가는 모임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도우미를 1:1로 연결하여, 이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이모는 다른 단체들의 프로그램과는 아주 큰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체험학습이나 학습 도우미가 아닌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하이모는 도우미 29명, 북한이탈 청소년 3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지역별 종합 사회복지관(공통종합사회복지관)

최근 북한이탈자가 대거 거주하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봉천동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공통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거주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특성을 살려, 북한이탈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약 1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노원구 공통동에 위치한 공통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학습센터

- 목적 :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영어, 수학, 국어 학습지원
- 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학습지도 및 특별 활동 실시
- 영어회화, 한자지도, 요리실습, 독서지도 등
- 월 1회 야외활동 실시

#### ◎ 대학 진학 상담 코너

- 대학 진학준비 청소년 대상 그룹 학습지도, 캠퍼스 탐방 실시
-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진학가이드 발간
- 예비대학 모임 '새내기 대학가다' 실시

#### ◎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생활공동체 '스마일하우스' 운영

## 2)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학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남한 생활 적응 프로그램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업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져, 북한이탈 청소년의 모임 장소 및 놀이 장소 등의 성격도 띠고 있다.

다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효율적인 학업 성취를 도와주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령 및 문화차이로 우리 교육 현장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대안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형태로든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정규과정, 또는 보완과정 등의 형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몇 개의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늘푸른 학교

늘푸른 학교는 하나둘 학교를 운영하던 교사들이 하나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설립한 학교로, 하나원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학교라기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다.

- 주소 :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 시설 : 단층주택(방 5개, 거실, 부엌, 텃밭, 마당)
- 교사 : 상근 교사 2명, 자원봉사자
- 교육생 : 정원 12명
- 주요 교육내용 : 학습 도우미, 자립생활 훈련, 심리 미술치료 등

## (2) 하늘꿈 학교

하늘꿈 학교는 올 해 초에 개교한 곳으로, 기독교에서 만든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이곳은 무연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입학할 수 있는데,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일반 학교의 형식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즉,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일반 가정 분위기의 늘푸른 학교와는 달리 6개월 과정으로 주중에는 학습, 주말에는 남한 사회·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상근 교사들도 모두 상담 및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삼용동 소재
- 시설 : 기숙사 건물
- 교사 : 상근 교사 3명, 자원봉사자
- 교육생 : 10명
- 주요 교육내용 : 학습도우미, 남한 사회·문화 적응 교육 등

## (3) 다리 공동체

다리 공동체는 중국에서 꽃제비로 떠돌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피는 곳이다. 중국에서 직접 데리고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은 약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다. 이 곳은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아이들의 형과 누나가 된다는 의미, 즉 가족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그러나 부진한 학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도우미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시설 : 단층 주택
- 교사 : 상근 교사 2명, 자원봉사자
- 교육생 : 10명
- 주요 교육내용 : 공동체 생활, 학습 도우미 등

이 외에도 일부 민간단체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훈련을 행한 후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학업 지도를 하는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 부적응을 경험하기 때문에 1:1 지도를 통하여 학업 도움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가정방문 지도를 통해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및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입시 관련 정보를 주고 있다.

#### 4.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초기생활 안정 지원, 자립·자활지원, 시설보호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

기 위하여 동법 6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 단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1999년 창립되었으며, 민간단체의 전문 분야별로 적응지원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아동·청소년, 연구, 정착지원, 지역복지, 해외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심포지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일반화된 정책적 경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몇몇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사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 보여진다.

물론,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담당할 수 없는 하나원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주요한 역할로 보여진다. 반면, 민간단체는 각각의 전문성과 관심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보다 특성화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실성 있는 역할의 분할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문제가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 단체 등 만의 책임이 아니라, 통일대비 차원에서 전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긴밀한 협조·협의·지원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실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민간단체 중심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민간단체들은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와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사업은 단기적·일회적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는 자율성과 시민성에 기초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각종의 기부금을 통한 시민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사업전개가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 계몽적 성격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망하면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관련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민간단체의 참여가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의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문제이다. 가령, 위에서 지적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역할 조정, 협의 등을 비롯하여 우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예산 지원 등에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과제 개발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은 몇몇 전문가 및 참여 민간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사업과제 개발은

관련 예산의 확보문제와 참여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역량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일회적인 소규모 형태를 떨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다 체계적·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개발과 이의 실행 및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반화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들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등 그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부모·형제와 함께 입국한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과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업지원 및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그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정에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확산과 이를 통한 대국민 의식 계몽을 위하여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 수행은 일부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로 사업공모제를 통한 예산지원의 확대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의 관련 사업의 참여 시수 누적관리를 통한 연수학점 인정,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금강산 관광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과 같이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비진학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등 많은 시사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요한 시사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의식 계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이 상당부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냉대와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방안이 구안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공 백

## IV.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조사의 개요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3.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논의 및 시사점

공 백

## IV.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4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크게 학업·문화·경제적 영역의 적응 실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문제·비행의 경험, 가족내 갈등의 주요원인, 시설보호내 적응의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의한 지원 정책 평가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이들에 의한 현재의 지원 정책 평가 내용과 그 방향성을 분석·제시하였다.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 목적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이들에 의한 현재의 지원 정책 평가 내용과 그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면접 조사 대상은 북한이탈 시점이 현재부터 3년을 전후한 북한이탈 청소년 17명과 북한이탈주민(성인)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11명, 여자 9명이며, 연령은 주로 17세부터 23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에는 「청소년기본법」

에서 청소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9-24세 외의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자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연령적으로는 청소년이 아니지만 청소년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학령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을 북한이탈 청소년의 면접 결과와 비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그 결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20명의 사회적 지위는 인문계 고등학교 2명, 실업계 고등학교 1명, 대학 재학 9명(4년제 7명, 전문대 2명), 무직 3명, 취업 2명, 그리고 현재 대입준비를 위한 검정고시 과정에 있는 자가 3명이다. 또한, 이들의 가족관계는 양친을 비롯한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가 10명, 한부모 가정(어머니) 4명, 소년소녀 가장 1명, 그리고 무연고 청소년이 5명이다.

<표 IV-1> 연구대상 현황

| 구 분    | 변 인         | 사례수(명) | 비율(%) |
|--------|-------------|--------|-------|
| 성 별    | 남 자         | 11     | 55.0  |
|        | 여 자         | 9      | 45.0  |
|        | 소 계         | 20     | 100   |
| 사회적 지위 | 인문계고등학교     | 2      | 10.0  |
|        | 실업계고등학교     | 1      | 5.0   |
|        | 대학재(4년제)    | 7      | 35.0  |
|        | 대학재(3년제)    | 2      | 10.0  |
|        | 취 업         | 2      | 10.0  |
|        | 검정고시과정      | 3      | 15.0  |
|        | 무 직         | 3      | 15.0  |
|        | 소 계         | 20     | 100   |
| 가족 관계  | 부 모         | 10     | 50.0  |
|        | 한부모(어머니) 가정 | 4      | 20.0  |
|        | 소년소녀가장      | 1      | 5.0   |
|        | 무연고청소년      | 5      | 25.0  |
|        | 소 계         | 20     | 100   |

### 3) 조사 과정 및 내용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개월 간이었다. 먼저, 면접 질문지 구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가 질문지(안)를 구성한 다음 관련 전문가 3명 및 북한이탈 청소년 3명이 참여하는 검토 작업을 2회에 걸쳐 실시 후 완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접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면접 방법도 병행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면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 요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비교적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2명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요원을 북한이탈자로 한 것은 피면접자들의 조사 요원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보다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본 조사는 섭외된 북한이탈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1:1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의 내용은 크게 학업, 문화, 경제적 적응 문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가족내 갈등의 주요원인,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관련 평가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

먼저, 자료는 피면접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유형별로 그 내용을 분류하여, 각 질문 내용에 대한 응답의 적정성 및 객관성, 그리고 유사한 응답 내용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피면접자의 응답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그 실태가 과장되었거나 타인의 경험을 강조하여 본인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피력하는 등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 앞에서 언급한 6가지 영역별로 그 내용을 재 취합하여 유의미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선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의 표기는 '강○○'처럼 성(姓)만을 표기하고 이름은 익명으로 하였으며, 동일 성을 가진 피면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김○○1'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주어 표기하였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영역을 사회편입 후 학업·문화·경제적 적응 문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가족내 갈등의 주요원인, 문제·비행경험, 시설보호내 적응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 학업·문화·경제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각 영역별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예로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살펴보면 낮은 취학에 따른 연령차에서 발생하는 동료간의 갈등은 단순히 학력부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청소년문화인 놀이문화, 언어 적응력 등이 미흡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학업에 필요한 등록금, 학용품, 학원비 등의 부담으로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업 부적응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본다.

### (1) 학업 적응 실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문제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연령대에 있으나, 그들의 학업욕구에 비하여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환경 및 문화적 갈등 등으로 다양한 학업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남북한 교육체제 및 내용의 상이성 등에 따른 학력 인정의 문제,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 상급과정 진학시 진로지도의 문제 등이다.

#### ① 학력인정의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시스템 및 그 내용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학력과 동등한 학력인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소정의 학력인정 절차를 거치면서 개인차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에 다녔으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의 입학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학력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입학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학력차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6년이나 9년을 꼭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에서 유치원 높은 반과 인민학교 4년 과정이 여기 초등학교 6년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준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와 여기 중학교 전 과정과 비슷하고, 고등중학교 4~6학년까지와 여기 고등학교 전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 햇수로 몇 년 따져서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북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 다니다 왔다면, 여기 고등학교 1학년에 넣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이하고 특수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든 법을 우리에게 강제로 짜 맞춘다는 것은 역시 정책에서의 오류가 훤히 보이는 거겠죠!” (나○○).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나도 다르고, 특히 수학에서(영어)는 너무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또 영어도 많이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저는 로어반 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학생들보다 2~3살이 많아서 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문○○2).

또한, 북한은 영어보다 러시아어를 주요 과목으로 가르치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영어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윤리나 사회과 과목 등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양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사회시스템의 학습 영역과 관련된 과목으로서 타과목에 비하여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정의 철학과목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모두 동일한 과목이 있을지라도 외래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관련 용어의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하다보니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비슷하다는 수학마저도 용어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sine을 북한에서는 시누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저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 윤리나 사회 같은 과목은 북한과는 전혀 다르며 영어는 북한에서 배웠던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일지는 몰라도 북한에서는 자연과학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화학이

나 물리, 생물 등의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거나 배우더라도 대충 배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공부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몇 년씩 공부를 하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더욱 더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외래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탈북 학생들로서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이를테면 수강신청을 한다든가, 리포트 등도 처음 겪는 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나오고 그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학력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철학과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난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본문을 3번 정도 읽었지만 제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중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한국에 와서 학원에서 석 달간 배운 실력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왕초보반입니다. 저한테는 위의 두 과목이 학업에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윤○○).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토론식으로 되어있는 교양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발표할 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설명을 하시는 것도 어떤 설명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래어가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한 학교 때 배운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니 학점을 받을 때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같은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들어갔었는데 너무나 수준 차이가 심해서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몰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혀 무엇인지를 분간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

## ②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학년, 학급에 편성되어 학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문화적 갈등 등에서 기인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거나, 처음부터 경험 있는 선배의 충고를 받아들여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먼저, 전자인 동급 학년의 연령차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부적응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한 청소년들과의 갈등은 그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여서도 그들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여 또 다른 심각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사회내의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형성을 일컫는다. 학업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남한 청소년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령이 많은 것에 비하여 학력이 낮거나, 그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북한 말투의 어색함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남한 청소년들의 놀림 대상이 되어 자존심이 상한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검정고시 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2살이 어려 때로는 귀엽게 느끼지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두 번이고 대부분은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의 애들과 나이가 같을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전의 나와 중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북에서 내가 본 형들의 모습을 자꾸 대비하게 되요. 그럴 때마다 -심할 경우- 수준미달이란 결론을 내리고 나 혼자 애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애들이 고3이라 그런지, 나 또한 많은걸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내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농담도 하는 사이입니다.” (400).

“저는 북한에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 중국에서 4년 동안 거주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려니 그냥 중학교 2학년 밖에 안 된다는 것 이에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나이를 속이고 6개월간 다녔어요. 그동안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나이를 속여서 마음도 편하지 않는데 북한에서 와서 다른 애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공부도 제대로 못하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모두 괜찮은데 영어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마디로 영어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루는 제가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제 지갑을 보았어요.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학교에 다녔는데, 그 일이 지나서부터는 애들이 저를 대하는 느낌이 이상해 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어요”(최○○1).

“저는 처음 학교에 들어갔는데 실력도 안되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몇 년 동안 방랑하던 습관이 있어서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의 관계도 처음에는 한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폭발하는 습관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가셔도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하지 못해서 매일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최○○2).

다음은 후자인 검정고시 과정을 선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의 지원은 6개월에 한정되어 이후의 학원비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주위의 유해환경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이의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비행 경험은 대부분 비정규교육과정에 있거나 무연고 청소년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규교육과정보다 검정고시과정을 선택할 경우 보다 빨리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과정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탈북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고등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왕따 당하거나 북한에서 왔다는 것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북한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집사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많이 애쓰시던데, 대안학교를 세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안학교를 만들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정고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청소년들도 대안학교라 하면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안학교나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〇〇3).

“저도 검정고시를 준비해 봐서 아는데 공부를 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원비 외에도 책값과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몇 십 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 수도 있지만 떨어진 공부를 보충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르바이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께 손을 내미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몇 십 만원씩 대주시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왜 공부 하냐고 일 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학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출신들을 학비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비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학비 정도는 국가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조〇〇).

### ③ 진학·직업 진로지도의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진학 및 직업 진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차적 상담자인 그들의 부모 역시 남한의 교육시스템 및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진학지도는 대부분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직업지도는 취업보호담당자가 맡고 있다.

정부는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대부분 경찰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학 문제를 적절하게 지도할 만큼의 관련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성의한 지도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이 비교적 성의 있는 진학·직업 진로지도를 해 주고 있으나, 피상담자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 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부 취업보호담당관의 역할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지도보다 탈북 성인들 대상의 취업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지도는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대학교들이 있으며 어떤 과들이 있는지 또 어느 학과를 졸업하면 좋은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하나원을 방문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하나원 직원들에게 많이 물어 보았었는데, 그들 중 한 명도 저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알아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지만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왔을 때에는 컴퓨터도 잘 사용할 줄 몰랐었어요. 더 안타까웠던 것은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하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대학이 있으며 어떤 학과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대병설보

건대학에 입학 했지만 입학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혼자서 했었어요. 또 제가 대학에 입학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은 입학 절차와 방법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컴퓨터로 통일부 학생정책지원과에 글도 올려보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담당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그런 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끝나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동남보건대학에 입학하려고 그 대학에 알아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북한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담당 형사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대보건대학에 직접 찾아가 알아보아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4).

“보통 탈북 청소년들이 진학문제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로서는 담당경찰관이나 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거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담당 경찰관님이 아무것도 몰라 저 혼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구하느라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학생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50대의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때 그 중요한 진학문제를 그 형사님과 의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많이 웃어요. 그래서 학교를 외고로 바꾸고 전학을 가버렸죠. 제가 듣기엔 많은 애들이 인문계가 어렵고 그래서 실업계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나○○).

## (2) 문화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 적응은 언어 적응의 문제, 놀이문화의 물이해에 따른 문제,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그 행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언어 적응의 문제

언어 적응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우선은 남북한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예로 북한 말로 시장(市場)을 ‘직금’이라고 한다거나, ‘다리매’(각선미), ‘살결물’(스킨), ‘가두녀성’(가정주부), ‘가시아버지’(장인) 등과 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표현의 문제들이다. 또한, 무제한적 서구 문물의 유입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흡수되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많은 외래어의 물이해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도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해도 외래어의 무지로 고용기회를 박탈당하는 경험 등이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언어 적응의 문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면서도 현재와 같이 남과 북의 청소년 문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 문화의 이질화 차원을 넘어서 의사소통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서로 언어가 달라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백화점이나 가게 같은 곳에 가서 얘기할 때면... 말하는 것이 달라서 가게 주인이 어디서 왔냐구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시다. 한국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화를 따라 갈려구 하니까 힘든 점도 많아요.” (문○○○3).

“저는 북한하구 남한하구 비교할 때요.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처음에 한국 애들과 대화할 때 언어 때문에 가장 어려웠구요. 글구 선생들과 같이 수업할 때 책에서 영문으로 된 단어들 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들었구요. 북한 같은 경우는 선생들 가르쳐 주는 책들에서 다 한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책을 보면은 영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서 적응하기 어려운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글

구 책에서 영어로 된 글이 나오면은 일일이 선생님한테 여쭙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박○○).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서는 사물이던 음식이던 모든 명칭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어로만 통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집에 와서 3일째 되는 날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일자리 구하러 혼자 다녔었는데 제가 처음간 곳은 피자집이었어요. 그곳 사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 모든 명칭들이 영어로 통하고 컴퓨터를 알아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이곳 일을 하자면 적응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날 나는 그 사장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돈보다도 한국사람들이 음식은 어떤 것을 먹는지, 또 일상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젊은이들의 하루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준말은 어떻게 하는지...등 궁금한게 너무 많았고 빨리 한국 사람들과 접촉해야 적응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 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었는데 아무튼 일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부터 영어학원과 컴퓨터 학원에도 다녔구요. 컴퓨터학원에 다닐 때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학원강사로부터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된 날부터는 저하구 인사도 안 나누었어요. 그 이전에는 나이도 동갑이어서 얘기도 나누고 채팅도 하구 했었거든요. 아무튼 처음 적응할 때에는 일이 힘들고 공부하는게 힘들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최○○4).

## ② 놀이문화 적응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반응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놀이문화는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며, 비교적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남한 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리거나 사귄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놀이문화는 초기단계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과 같이 그 조작능력이 미흡할 경우 적응하기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 사회내 정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조작 기술을 습득한 경우에는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는 놀이문화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한국의 문화 특히 놀이문화에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면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는 게임이나 한국의 놀이문화를 접해 본적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모임 같은데 참석하게 되면 게임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그땐 전 몰래 나와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본 적이 많았어요. 또 한국에서 인기가 좋은 온라인 게임 이런 건 북한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게임들이고 할 줄도 모르니 애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전 그냥 듣기만 하고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배우려고 하니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강〇〇).

“노래방도 놀이문화에 관계가 있나요. 취미생활인가 어쨌든 전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갖고 그 때만큼은 아무생각도 안하니까요.” (최〇〇3).

그 외에 각종의 스포츠 활동과 에버랜드·롯데월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남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데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서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있을 때에는 어릴 적에 그림책에서 읽어오던 천국에와 있는 것 같구요. 마귀 같은 것들로 무섭게 꾸려 놓은 곳에 있을 때에는 무서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구요. 하늘을 나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아찔해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마음속의 모든 짐을 다 털어버리고 훨훨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해요. 또 재미있는 놀이기구들도 많으니깐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다 밖으로 나오면 꿈을 꾸다 나온 것 같아요.” (최〇〇4).

그러나 술, 담배 등과 같은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학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술, 담배 등이 남한 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사교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직접 경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탈북여자 청소년들은 비교적 북한사회의 유교적 전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에도 술자리를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동시에 게임중독과 같은 사이버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요. 물론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팅으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또 액션게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밤을 새가면서 하는 애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씩 공부에만 전념하던 머리를 식히는데는 괜찮겠지만요”(최○○3).

“...술이나 흡연으로 인해 보기 안 좋은 그런 행동만 없다면 정말 친구들끼리 친해지고 화합을 도모하고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MT를 가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화는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게임 중독과 같이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놀이문화는 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게임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음란물이나 또한 청소년들의 술 문화와 같이 무조건 마시고 노는(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놀이문화는 피하고 싶은 하나의 부분입니다.”(김○○1).

### ③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행위 절차의 적응 문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시스템 및 그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응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탈북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정착

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탈북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정착 기간이 늘어나도 쉽게 적응이 안되는 영역이다.

북한 사회는 남한에 비하여 미분화된 사회구조와 수동적 행위 절차를 갖고 있다. 반면, 남한의 사회구조는 복잡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그 행위 과정에서 본인 해결 중심의 능동적 행위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행위 절차에 대한 적응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이며, 행위 절차의 적응문제는 그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다. 특히, 이러한 주제는 어느 기관, 누구의 도움에 의한 단기적 습득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불편과 실수가 많은 부문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탈북자들의 부적응 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지 않아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뭘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생각도 안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 주택이고 전세고 월세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는 그냥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만 올리면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은행도 가야 되고 도시 개발공사도 가야하고 뭐 동사무소, 사물관리소 이런 것을 다 하자면 저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2).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온 우리들이 여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의 진로결정도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하라는 대로하면 그만이지만 여기 사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개념이 어려서부터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환경들이 어려웠어요...” (주○○3).

### (3) 경제적 적응 실태

무엇보다도 경제적 적응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경제적 적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그들에 비하여 남한사회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활동 참가를 통한 수익률 창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기초한 재산관리와 용돈 및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 정착금의 효율적 관리 등 대부분은 이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그 하위적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다.

####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물이해

북한이탈 청소년 대부분은 정착 초기단계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의 개념과 이를 통한 재테크 방법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더욱이 본인들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경제원 획득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여 한 동안은 정착금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발견된다.

“일단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에 의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경제에 대한 교육이 남한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많은 돈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도 그것을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2)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해요. 뭐 양친구 같은 데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학원이나 직업학교 같은데 다니면 차비로 나오는 일정한 금액)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좋게 활성화되면 청소년들의 경제적 훈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 되요...” (나○○).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적응 유형은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정착금의 관리 실패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탈북자 또는 무연고 청소년들은 정착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정착금 및 학비를 일부 지원 받고 있으나, 이것이 완전한 경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향상된 삶과 빠른 적응을 위해 경제활동은 불가피한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착금 관리에 실패한 북한이탈 가정은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과 같은 사회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착금은 탈북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큰 힘이 되죠. 정착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요. 근데 전에는 정착금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정착금이 지급되고 해서 그 돈을 잘 활용을 못 하구 허비하는 현상이 많았어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지급되는 정착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1).

## ②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적응 실태

위의 사례보다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부모 없이 단독으로 탈북하여 이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적응 문제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정착금

을 무계획적, 충동적 사용으로 일시에 탕진해 버리고 일정한 직업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주요 원인은 많은 정착금을 일시에 접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 지식 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무연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부적응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8월 기준 입국자 전체 700여명 중 무연고 청소년은 38명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온 청소년들은 그래도 정착금 관리를 직접 하니까 괜찮지만, 혼자 온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쓸 줄을 몰라 한 번에 탕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

“혼자오신 분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일부 나쁜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쏟아 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자기 마음만큼 남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들에 대한 재정관리 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2)

“정착금 문제로 많이 복잡해질 때도 있는데요. 저는 정착금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주어서 뭐하죠. 쓸 줄 모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나마 가족과 같이 온 탈북 청소년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혼자 온 청소년들은 쓸데없는 데 돈만 들이고 정착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1).

더욱이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마땅한 경제적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경쟁화 과정에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더욱 체감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의 구안이 필요하다. 특히, 무연고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정착 이후에도 학업보다

는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학력 등의 자격 구비가 안된 경우 더욱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부적응은 무연고 청소년들의 일탈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및 시민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전 처음에 집도 나오고 돈도 주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실력에 한 달에 관리비, 전기세, 물세 내고 용돈 쓰고, 채소 사먹고 하면 적어서 40만원은 나갑니다. 그리고 취직해서 한 달에 60만원 받았는데 40만원 쓰고 나머지 20만원은 동생 용돈 조금 주고 하면 뭐 남는게 없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면 집도 있고 정착금도 있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 애들이 부모 용돈 타 쓰고 생활하는데 저희 같은 독신들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한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최○○2).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자들에게 특별히 직업교육 시켜준다거나 직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증도 없는 애들이 공부하는 어렵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루하루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나이 20넘었어도 고등학교 졸업증도 없고 직업도 없고 게임이나 하고 밖에서 낚시를 새고 낮엔 집에 들어와 자고 이런 생활 반복하다 보면 이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낙오자로 찍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북한에서 보다 더 잘 살려고 한국까지 목숨 걸고 온 애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럽네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애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좀더 관심 가져주고 탈북 청소년들의 실태도 조사하고 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일자리 같은걸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

### ③ 아르바이트 실태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 정착 이후, 무연고 청소년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능동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비, 용돈 등을 부모님께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연고 청소년을 비롯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은 청소년 비율도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사례는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알 경우 갖는 편견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탈북자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알 경우, 투박한 말씨, 익숙치 못한 일처리 등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비슷한 억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사람으로 속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임금은 내국인 단가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적용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부이지만 북한이탈 주민을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저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꼭 탈북자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식당 주인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중국 조선족이냐고 물어 보기도 하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관심 가져주거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저는 싫거든요...” (주○○3)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 보면은요, 일단 탈북자라는 유명을 속이구 일을 한테요. 글구 만약에 밝힌다 해도 탈북자들이 말투나 그

런거 때문에 안 쓸거 같기두 하구 그러거든요. 일단 사장님도 그렇잖아요. 이양 쓸려면 한국 애를 쓸려구하지 누가 탈북자를 쓸려구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속이고 일하는 친구가 있구요....” (박○○).

“저는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아는 분의 소개로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전문용어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한국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어 자체도(영어로 하는 말이 많아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잃어가고 의사선생님의 생각도 처음보다 많이 틀려져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1).

“... 마땅히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는 남자친구들은 노가다를 하는데 힘든 일을 하고 돈은 외국인으로 인정하면서 반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3).

## 2)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여기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시 주로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과 긍정적 매개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학업, 문화, 경제적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문제는 주로 남한의 사회구성원과 탈북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인간관계가 그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저해요인으로 가치관의 차이, 언어 문제, 탈북자에 대한 편견, 남한 청소년들의 학업중심적 사고 및 행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긍정적 매개체로는 함께 하는 놀이문화, 학업지도, 종교활동 등을 들고 있다.

### (1)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저해요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은 크게 1차적인 직접적 요인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2차적인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적 요인은 언어 및 가치관의 차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의 사회문화적 토대가 매우 상이하여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의 유형들이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심적 사고로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은 우리 사회가 심하게 앓고 있는 학령기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 노력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면접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역시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문제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사회통합적 지향점을 갖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2차적인 간접적 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반응 이전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선입견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위축과 배타적 행동의 결과로 이 사회 내에 또 하나의 북한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를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치관 차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서 가치관 문제는 인간 관계의 지속성 여부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화 또는 토론 자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점정고시 과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종교단체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 신앙심에 기초한 인간관계 형성과 정기적·지속적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은 그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사고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는 여기 한국 친구들보다 너무나도 뒤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의 차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한에서는 자신이 노력하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 나갈 수 없다.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돌아온다. 이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내가 살자면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서라도 꼭 이루어야 한다.” 이런 야심이 많더라구요. 한국에서 이런 말도 있더라구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최상의 부부다 지금은 맞벌이 시대다. 남자만 돈을 벌라는 법 없다.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남자에게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부부간에도 남자가 번 돈 따로 여자가 번 돈 따로”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남자들도 요사이 여자를 선택하는데서 능력 있는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로 여겼거든요 여자는 시집을 가게되면 남편 시중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〇〇4).

## ② 언어적 이질성

앞에서 살펴본 학업과 관련한 언어 문제는 주로 용어, 개념의 표현적 차이에서 초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언어 문제는 북한 말씨가 갖고 있는 투박함, 독특한 억양, 생소한 표현 등이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어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제문제

를 말한다. 이것은 일상의 대화 개입에 부담을 주어 적극적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이해력 부족 현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저의 북한 말이 좀 무뚝뚝하고 남들이 듣기에 오해하기 쉬운 말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말 듣고 오해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한 애들이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애들이 외래어를 쓸 때가 많은데 그런 말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좀 어려움을 겪더군요. 그렇다고 외래어 듣고 뜻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대화하기가 좀 두려워지고 자연히 애들이랑 멀어 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언어였던 것 같아요.” (강○○).

“먼저 남한친구들을 사귄 때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는 함께 지내다 보면 그래도 적응을 하지만 무엇보다 말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말씨가 어느 한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말씨 때문에 그들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최○○3).

### ③ 북한이탈자에 대한 편견

그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현재의 통일교육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며 발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을 북한 정치체제 또는 그 지도부와 동일시하여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편향성이 일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더하여 탈북자는 북한 사회의 부적응자, 낙오자, 그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의 범법자로 인식하는 편견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그 주민은 동일하지 않으며, 최근의 탈북 원인이 대부분 식량난에 기인한 생존형 탈출이라는 것이 밝혀진 현 시

점에서 이념적 잣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타문화, 또는 타민족을 상대적, 관용적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내적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우리 사회내의 편견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점점 더 폐쇄적 성향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된다.

“... 북에서 왔다고 하면 아직도 별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래서 북한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는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남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할 때는 혹시 흥이나 잡히지 않을까 걱정 되어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고, 편하지가 않아서 별로 얘기도 안 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님들은 우리들과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더욱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문○○○3).

“저는 1년 반 동안 남한 친구들이랑 같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애들이 좀 희귀하게 생각했고 또 절 대하는 것을 좀 거리감을 두고 대했어요. 저 자신 또한 애들한테 흠 잡힐까봐 많이 조심하고 마음을 잘 열지 않았던 편이죠...” (강○○○).

#### ④ 남한 청소년들의 학업 중심적 사고

최근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과열 문제가 이 사회의 많은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유학을 비롯한 이민열풍,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 학교붕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위기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미래의 사회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청소년층에게 반드시 긍정적 작용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통일문제를 이야기 할 때, 청소년층에게 요구되는 사회통합적 인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아래의 면접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의 학업 중심적 생활패턴은 정상적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지나친 성적관련 결벽증은 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 공부에 너무 얹매여 있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 하고 좋은 대학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공부 못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화가 납니다...” (문○○○3).

“... 저희 학교에서도 학기말, 학년말 시험을 보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거든요. 그런데 남한 친구들은 성적이나 등수에 너무 민감한 거 있죠!

평상시 되게 친하게 지내던 남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성적이 좀 더 잘나오면 커닝해서 봤다고 오해해요. 또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의 시험지와 자기 시험지를 대조해 보기도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아무리 경쟁 사회라 하지만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성적이 더 잘나왔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좀 당황했어요.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강○○○).

## (2)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긍정적 매개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몇몇 사례가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에 절대적 준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각자가 놓여 있는 환경들, 그리고 개인적 태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 긍정적 매개체로 작용하는 절대적 지표가 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 ① 함께 하는 놀이문화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상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하여 쉽게 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엇인가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것은 비교적 즐겁고 유쾌한 공통의 관심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각종의 스포츠 및 놀이공원, 그리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게임 등이다.

“... 같이 게임 할 때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마피아게임, 이미지게임, 보드게임 등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또 놀이공원에 가도 많이 친해지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서... 서로 웃고 무섭지 않았느냐는 등, 겁쟁이라는 등, 서로 끌려주고... 함께 어울려 놀면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3).

“제가 직업전문학교 다닐 때 경험으로 본다면 남한 친구들이랑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는 놀이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애도 저처럼 북한에서 혼자 왔는데 주말만 되면 남한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강○○○).

## ② 자원봉사자 중심의 학업지원 활동

최근 들어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1 과외지도, 상담활동, 가정과 자매결연 맺기 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적 효과는 매우 높아 학업 부적응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반드시 학업지도와 같은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조기 적응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요새 서울대에 다니는 누나한테서 과외를 받거든요. 영어 과외를 받는데 저희는 북한에서 영어를 영국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외국어가 여기 한국처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도 아니니까 영어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 진학하려고 하니까 영어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나를 만나고 있는데 과외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면 역사책도 선물 해 주었거든

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누나가 저를 많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북한인권시민연합 아시죠. 이 단체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또 거기서 누나, 형들도 소개받고 많은 경험도 하거든요...” (강○○).

### ③ 종교 활동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비교적 사회적응이 성공적인 경우 종교활동 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을 통하여 주변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들 도움이 단기적·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심리적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더욱이 종교활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그들의 따뜻한 관심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 5일날 중학교 졸업시험을 봤는데.. 교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찰떡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시험 잘 보라구 해서... 처음엔 떨어지면 어쩌하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는데... 시험 잘 보고 나서 잘 봤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잘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문○○○).

“아마 꼽자면 많을 거예요. 그렇지! 그 중에서도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전도사님 등등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으로 도움주시거든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구요. 또 좋은 분들을 소개 시켜줘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실제 체험을 통한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문○○○1)

### 3) 가정내 갈등의 주요 원인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세대차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갈등 현상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서 새로운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초래된 갈등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이들이 받게 되는 편견과 다양한 사회제도의 부적응 현상 등이 스트레스로 전이되어 가족내 구성원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즉,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힘들고 업무를 받는 것이 가정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주○○2).

둘째, 북한 사회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와 새로운 사회문화적 질서에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는 자녀들의 사고방식, 행태 등이 충돌하여 빚어지는 갈등이다. 특히, 탈북 여소녀들은 북한에서의 그들 지위와 달리 남한 사회의 높아진 여권 의식을 가정 내에서 표출함에 따라 아버지와 갈등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무조건 자신의 말씀에 복종해 주기를 바라시고,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부모님들보다 일찍 눈 뜨다 보니,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아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폭력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전의 남녀의 지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탈북자들 속에서도 여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반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남자들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

“북한에서 온 부모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이며,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을 빨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실시했던 통금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성간의 문제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금 문제의 경우 무조건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식으로 하다보니 자식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또한 학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와 반대로 딸이 공부하기를 원함에도 부모들이 “여자는 결혼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식과의 마찰을 부르기도 합니다.” (황○○).

셋째, 일반적으로 탈북 가정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비교적 높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학 및 직업 진로 지도시 자녀들의 의견보다는 본인들의 의견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무언가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많지만 나이도 들고, 어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기도 부끄럽고, 학력도 안되는 사람들은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이런 관개로 부모님들과 갈등이 심해요. 저의 집도 같은 경우죠. 또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아버님과 많은 다툼이 생기죠” (주○○1).

“... 특히, 학업문제에서 부모님들은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로 진로를 택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답니다.” (문○○2).

#### 4) 청소년 문제 · 비행 경험 실태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특별한 청소년 문제 · 비행 경험이 없으나, 일부만이 술 · 담배 등의 지위비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일부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년 중에서 무연고 청소년들의 문제·비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금번의 심층면접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본인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더욱 공고화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가 그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경험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어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금번 심층면접을 통하여 확인한 문제·비행 경험은 대부분 지위비행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 지위비행 시점은 대부분 북한 사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거나 탈북하여 중국지역 등에서 어렵게 생활할 때 시작한 경우도 몇몇 있었다. 또한, 남한사회의 적응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로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를 경험합니다. ... 이러한 원인은 개인차가 가장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적인 소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내가 남한청소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우울해지고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나온다든가, 아니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조○○)

그러나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의 술·담배를 비롯한 각종의 지위비행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탈북여소년들의 반응이 그렇다.

또한, 아주 드물지만 폭력 비행을 경험한 사례가 발견된다. 학교 내에서 의견 또는 가치관 등의 차이로 남한 청소년들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래에 소개된 사례와 같이 아주 드물지만 좀더 심각한 패싸움의 사례도 발견된다.

“그리고 폭행 문제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한국 애들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사고방식도 많이 틀리니까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좀 먹어도 키가 작으니까 그런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해도 우리는 힘이 안되면 아무거나 들어서 싸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이 많습니다. 벌금을 한번 내면 700만원 정도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북한청소년 2명이 15명되는 애들에게 맞아서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11명이 학교에 찾아가서 싸움을 하였는데 거기서 머리 깨지고, 이빨도 나가고 해서 벌금이 700만원 나온거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싸움을 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 (박○○).

그 외에도 대부분은 미진학, 미취업, 무연고 청소년들로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행동도 나타났다.

### 3.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논의 및 시사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 진입 경로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예로 진학·직업 진로 문제, 무연고 청소년 대상의 정착금 지급 문제, 하나원 교육시 성인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학업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비진학, 비정규 교육과정에 등에 있는 청소년간에 그 평가의 내용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3장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정책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또한 학업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청소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무연고

청소년들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제는 이들 대상의 특화된 지원 정책 구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입국 청소년이 적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학업과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밖의 사회 적응 문제는 상당부분 그들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정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규 교육, 검정고시, 직업전문학교,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문제·비행의 경험 유무 등 다양한 사회 진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가족 구성 형태도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지원 방안은 각각의 사회진입 유형 및 청소년들의 가족 구성 행태에 맞게 구안되고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민간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면접 결과에 나타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적 성격과 이의 개선방향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분석한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지나치게 개인적 소견에 치우쳤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피력한 의견들은 제한하였다. 그 내용들은 부록의 심층면접 결과 전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 무연고 청소년 대상의 정착금 지급 방법 다양화

현재의 정착금 지급 방법은 과거의 전액 일시불 지급 방법에서 주택임대료를 포함한 초기정착금 명목의 목돈 지급과 나머지 잔액의 분할지급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분할지급 금액은 대상별로 그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기에 300만원 내외이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모와 함께 입국한 가정의 경우 과거처럼 정착금을 모두 일시불로 지급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과 하나원 교육 후 남한 사회의 정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응이 어느 정도 이행된 이후에 지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견으로 나뉜다.

그러나 무연고 청소년, 또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대상의 정착금 지급 방법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착금의 관리·운영 주체는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남한 사회의 제반 사회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기초한 충동적, 우발적 소비 행태를 보임에 따라 정착금 관리 실패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착금 잔액의 균등 분할 액수를 현재보다 줄여, 지급 기간을 더욱 연장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원 교육 직후와 정착 기간 경과에 따른 사회적응도를 고려하여, 그 지급 액수를 차별화 하여 줄 것을 희망하기도 한다.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들은 한번에 많은 정착금을 받게 되니까 그 돈들을 너무 막 써대는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도 정착금 다 쓰고 돈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정부에서 처음에 실정을 잘 파악하고 정착금을 관리해주고 1달에 쓸 용돈 정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었다면 정착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그 때 정착금을 다 지급해서 알아서 잘 관리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2).

## 2)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 인증 방안 마련

남북한의 사회변동 및 산업화의 유형과 그 발전 정도의 차이로 모든 직종의 기술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로 북한 사회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시스템은 사회편입 연령대가 18세를 전후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전문학교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현재는 이러한 청소년 가정의 탈북이 적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탈북 가정의 국내 입국 규모가 증가할 경우에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입국하는 청소년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몇몇 사례는 요리사, 운전면허증(자동차정비 기술 포함), 기계정비기사 등이다.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 기간의 직업 적응 전문교육을 받은 후, 그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증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 문제는 통일대비 직업교육을 구안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북한에서의 자격을 인정 못 받는다는 것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허무감에 사로 잡혀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화적 이질감과 서로 다른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취업을 했으면 몇 달 못 있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정부가 진로나 직업 교육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했던 직업의 기술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과 기술에 대하여 교육시켜 주고 취업을 주선했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3).

### 3)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및 직업전문 교육의 다양화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비율은 약 20% 내외로 나타난다. 그 외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학원을 비롯한 비정규 교육과정 및 직업전문학교 등의 비진학 과정에 있다. 또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신분에 있거나 무직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기술력과 이에 따른 취업 후의 직장내 위치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이 몇몇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전문 교육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취업보호담당관 등의 진로지도 및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면접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업전문교육 직종의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가 미용, 요리, 간호사 등과 같이 다양한 직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는 진도지도 체계와 직종의 다양한 선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우선 직업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전문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나 직업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취직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가 적성에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주는 시설이 많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요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가 많았으면 합니다.” (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보

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탈북자들이 제대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

#### 4) 북한이탈자에 대한 편견 교정교육 마련

북한이탈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 문제는 북한이탈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93년 이후 줄곧 제기되는 것으로,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고, 가장 큰 장애로 생각되는 문제이다. 현재 통일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시각과 연동하여 북한이탈자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성격은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북한의 사회문화는 남한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비교적 시각과 그 속에서 생활한 탈북자들은 촌스럽다는 시각이 혼재하여 심화되고 있다.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양 사회의 구성원 접촉이 증가할 경우에 현재의 탈북자에게 갖는 편견이 그대로 전이되거나 오히려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자 대상의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이의 시각을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남한 사회 구성원이 이들에 갖는 수용적 태도 함양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 보여진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처럼 남남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그 교육적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 일단은 정부나 사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탈북자들은 난폭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게으르

다는 등등...,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겠지만 탈북 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조금만 노력한다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

## 5) 학업지원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의 확대 · 운영

학업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학력차에 따른 학업부적응 문제를 들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로 특정 과목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한 정보·지식의 입수 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부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1:1과외지도 및 상담지도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제적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프로그램의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과외를 좋게 생각해요.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상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과외지도 형을 통해서 많은 문제도 해결 받았어요. 우선적으로 학과에 대해, 학문, 직업에 대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니까, 고2에 진학하면서 인문계, 자연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외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돈 내고 학원 다니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나○○)

“... 몇 달 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자원봉사 모임에 참가해서 거기서 대학생 누나, 형들도 소개받고 지금은 거기서 소개해 준 대학원생 누나한테 영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 같아요.” (강○○).

## 6)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서 주변의 냉대 및 편견과 제영역에서의 사회 부적응 현상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한 대중매체, 주변 환경 등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정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문제·비행의 경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순화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그 외로 많은 경우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 못하는 이유로 마음의 불안정을 꼽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이전의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

## 7)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20세 미만인 경우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원 교육 후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이탈할 경우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어 같은 동료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거나, PC방, 비디오방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무연고 청소년들의 시설보호 후 주거지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사회의 관련 공무원 및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하나원 기수가 많아지면서 하나원을 나와도 집이 제때에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원 나온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나온 친구가 이번 달에야 집을 받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일년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있었지만 물론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왔는지 참 대단하지만 해도 만19세 미만이면 집이 안나오는 거는 아시죠. 물론 나와도 문제가 돼지만 이런 애들이 하나원 퇴소하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나와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가 있는 직업학교 같은 곳에 가지요. 15살짜리 애가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생각 해보세요. 저는 이런 애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이가 차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있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3).

“우선은 독신들에게는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니깐요.” (최○○2).

## 8) 시설보호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현재 모든 북한이탈자들은 하나원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앞의 3장에서 그 운영실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부정적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실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하나원에서 본 한국 사회와 밖에서 경험한 한국 사회가 너무도 틀리다”라는 말로 그 평가를 함축할 수 있다. 물론, 하나원 교육과정은 자율성보다는 통제·보호위주의 규칙적인 생활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설이 노후하거나 비좁은 것에서 비롯된 부정적 평가도 상당부분 있음이 사실이다.

먼저, 성인과 차별화 되는 청소년들만의 특화된 교육, 성인과 청소년

년의 생활공간 분리, 성·연령차별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삶의 기반과 그 문화적 성향 또한 다르므로 당연할 것이다. 생활공간의 분리는 같은 숙소를 사용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어 청소, 심부름 등을 도맡아 하는 불편함을 의미한다. 성·연령차별 해소는 운전면허증 취득시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자격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하나원의 교육과정 개선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질적 체험위주의 현장교육 강화

하나원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주입 중심의 교육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의 유형별 이용방법,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이해와 은행 이용방법, 각종 문화시설·놀이시설 등의 소개와 이용 방법 등이다. 아래의 면접 지문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살펴볼 수 있다.

“제가 하나원 교육을 받아본 경험으로는 실내 교육보다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원에서 제가 교육받은 것은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나 경찰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2).

“... 하나원에서는 주로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공부보다는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로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보는 것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

“...쓸데없이 교실에 앉아서 나가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등, 밖에 나가면 돈이 하늘로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등, 절대 탈북자를 만나지 말라는 등의 교육은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되요. 차라리 지하철 갈아타는 방법이라든지, 버스나 지하철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정방문을 통해 자주 보여주고, 밖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

## (2) 시설내 지도자의 태도 개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하나원 내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몇 가지 내용에서 주목된다. 우선 지도자들이 탈북자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진학 및 직업 진로 상담시 무성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하나원 시설내 지도자들의 태도 개선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원 내의 선생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안에 선생님들이 북한 사람을 제일 많이 보시고 제일 많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무시하고 실망을 주신다면 가르치시는 분들로서 자세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2).

“... 불만스러웠던 것이라면 하나원 직원들 중 북한사람을 너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죄인도 아닌데 사소한 일로도 그들의 자존심을 너무 무시해 버리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최○○4).

### (3) 청소년문화 이해교육 강화

앞의 문화적응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은 대부분 문화적 부적응 문제로부터 기인한 경향이 강하다. 반면, 문화적 적응이 빠를수록, 예로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놀이문화의 동화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이해 교육과 함께 다양한 놀이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 인라인스케이트, 댄스 등의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좀 고생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남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놀이 문화나 방법 같은걸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온라인 게임을 배워 준다거나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놀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 설 수 있잖아요....” (강○○).

### (4) 언어 적응 교육 강화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자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언어적 이질화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은 통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각종의 언어 표현, 억양, 투박한 말씨 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원 교육단계부터 이의 해소를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하나원의 생활은 공부보다는 한국의 문화, 주로 언어를 많이 배우어 사회에 나가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 (5)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참모습 경험 프로그램 마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 본 한국과 밖에서 본 한국이 너무도 틀리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즉, 하나원 퇴소 후 알게 된 고아원, 달동네 등의 실상과 각종의 이익단체가 벌이는 노사분규 등의 사회적 갈등 현상 등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또 다른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보며, 자신들의 위치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현장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원에서 바라보았던 한국사회와 제가 하나원 밖에서 보는 한국사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많이 갈등했었거든요.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현장학습도 많이 하고,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1).

“...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밝은 곳이 있다면 어두운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달동네도 가보고 또 고아원이나 유아원, 복지관 같은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이웃을 들여다 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성인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몇 가지의 부적응 문제를 갖고 있다. 주로 진학 및 직업 진로와 관련된 문제, 무연고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보호시설내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영역 내에서만 역기능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부정적 영향을 확대 재생산해 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 및 시민사

회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정한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상당부분 우리 사회 즉, 기존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반응의 결과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자들의 사회 부적응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찰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일례로 북한이탈자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왜곡된 인식의 형태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글이나 대중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북한이탈자 및 북한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과 ‘촌스럽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며, ‘촌스럽다’는 것은 이미 남한 안에서 거처온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이제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근대성을 성취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중심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척도를 자신들이 거처온 시대, 60년대를 연상시키는 ‘낙후된’ 북한과 그 속에서 살다 탈북한 사람들을 ‘촌스럽다’든지 ‘불쌍하다’라면서 우월감과 동정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시각과 의식을 개선·교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현재의 지원 정책이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갖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 백

## V.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방안
2.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체제 개선 방안
3.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진출 후 지원 방안

공 백

## V.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은 앞의 정부 및 민간 단체의 지원 방안 실태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구안하였다. 주요 영역은 학업지원 및 하나원 교육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등이다.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방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법·제도의 정비와 예산 및 재정적 지원 체제 마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동료 학습 지원 체제 형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1)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관련 제도적 편입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일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이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 차원에서 보완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교육법 시행령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편입 관련 규정’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통한 학력 인정 가능성’, 검정고시 과정 등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이수 교육 -소양교육- 과정’ 등이 규정<sup>7)</sup>되어야 한다.

7)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부분이 정규교육 과정보다는 ‘검정고시’를 이용하여 대학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본소양

이어서 이들에 대한 예산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나 「통일교육지원법」 등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 2) 북한이탈 청소년 전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마련

북한이탈 청소년 전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청소년 심리상담 등에 능력을 갖춘 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 및 대학생을 단기간의 연수를 통하여 교사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3) 교육 공간의 확보

장기적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의 형태로 또는 ‘중간학교(Halfway school)’의 형태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분류심사’를 통하여 정규과정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대안학교로 편입하는 경우를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호환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통하여 진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 시수 또는 기간 이상의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방과 후-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기 시스템 구축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하여 학업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 번의 계절 학기나 몇 개월 간의 방과 후 교육으로 학력 증진이라는 것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정규학교와의 연계를 이루면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도 지역단위로 이러한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5) 동료학습 체제 구축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적응을 위해서는 눈높이가 같은 동료를 통한 학습과 사회화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정도와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1:1 또는 2:1 정도의 동료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과외 하듯이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효할 것이다. 지원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도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상호의 이해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12.5%)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 방안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창순, 2002).

#### 6) 학업진로담당관(교육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로 편입되면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그 정착과정을 돕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학업관련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들이나 자신들에게 선택과 결정이 맡겨져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인 형사가 이에 관한 약간의 조언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교육보호담당관을 신설·운영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학 및 진로지도,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체계 개선 방안

하나원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 근무하였던 통일부 직원이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원의 격리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없지 않으나 반면에 초기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원 교육이 충분하였는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언어 교육과 외국어 기초 공부를 보다 내실 있게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전수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후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모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수학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업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체로 중국 등지를 다니면서 학업을 몇 년씩 쉬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대하는 영어의 문제, 서로 다른 어휘의 문제,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매우 다른 역사 등 사회과의 문제 등으로 남한 청소년들과 많은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학습문제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난다.

물론 하나원의 교육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체제를 일정 개선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현재의 하나원 교육체제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를 생각할 때,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사회 전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남한의 학교생활이나 교육환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유무,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 개인별로 사회적응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따라서 개인적 경험이나 배경을 고려한 프로

8) 예를 들어 가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이 손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리어 적응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럼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다 많은 수의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 2) 효율적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축

일반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학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보다는 학습능력의 차이로 정규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한 학습체제를 쫓아갈 수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과목별 학습보조 자료의 제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정부-민간단체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제 마련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효율적인 분담체제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적인 민간단체가 북한이탈 청소년 집단을 지원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도 하나둘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세부적인 문제는 하나둘학교가 담당하고 정부는 전체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운용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둘학교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단계별 적응프로그램 구축

입국에서 하나원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따른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 추구할 목표, 지역사회에서 추구할 목표를 정하고, 각 단계마다 통일부, 교육부, 교육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영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일관된 적응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이 겪었던 문제 그리고 문제의 극복과정을 하나원에 새로 들어온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전수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5) 하나원과 인근 학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하나원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관계자, 교사 그리고 남한의 청소년들에게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과 이들이 겪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관계자, 교사 그리고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6)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하나원과 그리고 퇴소 후 겪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

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남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 7) 보건 프로그램 마련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 및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특히, 혼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육체적인 문제가 심한 경향이 있다. 흡연이나 음주의 경험, 성적 착취의 경험 등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도 필요하다.

## 3.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진출 후 지원 방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진출 후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사회시스템이 주요 원인이겠으나 주변의 냉대와 편견,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가중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보완·확대를 비롯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 1) 문제 인식 제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소수의 청소년 부적응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 이후에 있을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 단계의 상호교류와 평화

공존의 단계에서 부정적 문제의 표출은 다른 여타의 통일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나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등에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지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전 국민 또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다음으로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여러 관련 기관(교육부, 통일부, 문광부, 국정원, 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 증진 및 사회적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결되므로, 이 두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는 자료의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피교육 대상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각종 자료에서는 북한이탈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이고, 그 안에 포함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파악은 더욱 미비한 상황이다. 문제의 해결은 사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분석과 더불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수요자 분석’이 또한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주로 공급

자인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부적응의 핵심이 학력 부진에 있다면, 학력 격차가 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 3) 국가-민간단체-북한이탈 가정간의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

현재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단체간의 활동이 실질적인 면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이나, 그 위에 더 문제되는 것은 이들 단체의 사업이 중복되어 역량의 허비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계 구축과 국가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다. 국가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등 제도적인 필수 사항을 해결하고, 민간단체는 보완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과 후 보충과정 운영, 계절학기 운영, 그리고 북한이탈 가정과의 연계 사업 등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민간단체와 민간단체간의 연계 구축 필요성이다. 민간단체간의 업무 중복으로 역량을 허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단체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나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등에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지원 분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의 지원을 유도하고, 민간단체간의 업무 중복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단체의 개입을 조정하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와 북한이탈 가정 및 민간단체와 북한이탈 가정간의 연계 구축 필요성이다. 국가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단체는 심리적·문화적 차원의 적응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정 기

간을 경과한 후 국가 기관의 후원에서 벗어나면, 민간단체에 그 후원 시스템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민간단체와 북한이탈 청소년간의 '1:1 후원자' 제도 등이 그것이다.

#### 4) 찾아가는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마련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업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 더욱이 낯선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고민의 종류와 정도는 또래의 남한 청소년보다 더 깊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프로그램은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의 고민과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약 250여명에 불과하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착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단체는 서울에만 약 10여 군데, 지방까지 합하면 꽤나 많은 숫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들 민간단체간의 비슷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협의·조정하여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5) 전문 상담시스템 구축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사회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외형적 문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간혹 몇몇 민간단체에서 심리치료를 돕기 위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이거나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전문상담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 6)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개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보다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초기 적응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또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특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진학 및 직업 진로지도 담당관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진학 및 직업 진로지도 담당관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공 백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 론

최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입국 규모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같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유무,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는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법·제도적 장치마련부터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정책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특수한 지원 정책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탈자라고 하는 일반적 특수성만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과 초기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하나원의 수용규모가 10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 정도가 청소년층이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성인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이 미미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남한사회내의 또 다른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관련 정책이 탈북자라고 하는 특수성을 근간으로 수립·추진되었음과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개입이 미약한 일반 청소년 및 무연고 청소년 등과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 부적응의 유형을 고려하여 학업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 문화적·경제적 적응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그 성과적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참여 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와 함께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모형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프로그램의 일회적 사업의 편향과 비체계성의 문제 등이다. 더욱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참여 단체간 관련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참여 민간단체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의 부재에서 초래된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 부적응 유형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의 교육적 내실화를 제고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2. 정책 제언

### 1) 외국 사례에 기초한 사회적응 지원 정책 수립의 전략적 제언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이주 이전의 경험과 이후의 경험이 각각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민 수용국의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통합정책, 차별 없는 형평한 기회의 보장,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정도 등이 이주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기본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남북관계의 걸림돌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협상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서독의 꾸준한 교류와 접촉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북한이탈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본원칙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자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기보다 사안별로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한 경향이 있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 가치에 기초하여 민족적 화합을 추구하려는 기본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지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지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성과 이 과정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의 자발적 지원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들의 정착 및 동화문제가 심각성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독일의 사례는 이들의 사회동화 및 적응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한 실정에 부합하는 재정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주민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대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3)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지향점으로 삼는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나 정책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간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치와 경제체제의 단일화는 동시에 사회 심리적인 통합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이 동서독 주민들의 문화, 역사, 언어 등의 동질성만을 쉽게 믿고 시작한 통합과정은 동독 주민들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통일 이후 '이등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다. 독일의 경험은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재사회화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

의 북한이탈 청소년과 통일에 관한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이주민의 규모, 국내외의 정치적 변수 및 체제의 경직성, 경제적 능력,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 정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언어생활, 교수학습 방법, 학교문화와 규범, 학교행정상 어려움 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야 한다. 미국의 베트남 난민 사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계층이 다양화해 가는 시점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양상이 계층적인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적응시 당면하는 문제 역시 상이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통상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고 확일적으로 직업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초기단계에 '보호된 경제적 적소'를 제공하여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제고와 차별 극복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검토한 다문화주의의 특성, 메커니즘, 원칙, 그리고 접근방식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 계급,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는 인구학적 구성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다문화주의는 주로 문화적인

접근과 지원을 강조하였으나 이후에 신규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집단들의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문화 중심적 접근방식에서 형평성 제고의 접근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형평성 제고와 차별 극복의 측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단지 문화적 관용성과 상대주의로는 성취할 수가 없고 사회구성원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캐나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정부-민간단체간의 역할 모색에 관한 제언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초기생활 안정 지원, 자립·자활지원, 시설보호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 단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1999년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여러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부족한 인력, 그리고 참여 민간단체간의 중복 사업 등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과제 개발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단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은 몇몇 전문가 및 참여 민간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사업과제 개발은 관련 예산의 확보문제와 참여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역량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일회적인 소규모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다 체계적·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개발과 이의 실행 및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2)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수한 지원 정책 수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화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수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들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등 그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부모·형제와 함께 입국한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과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지원 및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그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정에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 수행은 일부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로 사업 공모제를 통한 예산지원의 확대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의 관련 사업의 참여 시수 누적관리를 통한 연수학점 인정,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금강산 관광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과 같이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계몽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의식 계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가 상당부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냉대와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 3) 사회진출 후 사회적응 지원 방안에 관한 제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진입 경로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정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정규교육, 검정고시, 직업전문학교,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문제·비행의 경험 유무 등 다양한 사회진입 형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동시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가족 구성 형태도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지원 방안은 각각의 사회진입 유형 및 청소년의 가족 구성 형태에 맞게 구안되고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정착금 지급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정착금 지급방법은 과거의 전액 일시불 지급에서 주택임대료를 비롯한 초기정착금 명목의 목돈 지급과 나머지 잔액의 분할지급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 청소년, 또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대상의 정착금 지급 방법은 보다 구별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정착금의 관리·운영 주체는 청소년이며, 이들은 남한 사회의 제반 사회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기초한 충동적, 우발적 소비 행태를 보임에 따라 정착금 관리 실패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착금 잔액의 균등 분할 액수를 줄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2)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인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사회변동 및 산업화의 유형과 그 발전 정도의 차이로 모든 직종의 기술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로 북한 사회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사회편입 연령대가 18세를 전후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전문학교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이 많다. 현재 이들 청소년 가정의 탈북이 적어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향후 탈북 가정의 국내 입국 규모가 증가할 경우에 그러한 기술력(현재 요리사, 운전면허증(자동차정비기술 포함), 기계정비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됨)을 갖고 입국하는 청소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 기간의 직업적응 전문교육을 받은 후, 그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대비 직업교육을 구안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 (3)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및 직업전문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는 비율은 약 20% 내외이다. 그 외의 청소년은 검정고시 학원을 비롯한 비정규 학교와 직업전문학교 등의 과정에 있다. 비정규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전문 교육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취업보호담당관 등의 진로지도 및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 결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면접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업전문교육 직종의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가 미용, 요리, 간호사 등처럼 다양한 직종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의 교육기회를 넓힐 수 있는 진로지도 체계와 직종의 다양한 선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학업지원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학업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학력 차에 따른 학업 부적응 문제를 들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로 특정 과목을 위한 학원 수업을 할 수 없으며, 학업과 관련한 정보·지식의 입수 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1:1과외지도 및 상담지도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영역에서 실제적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5)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정에서 주변의 냉대 및 편견과 제영역에서의 사회 부적응 현상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한 대중매체, 주변 환경 등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정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문제·비행의 경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순화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6)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이 20세 미만인 경우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원 교육 후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러한 시설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이탈할 경우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

어, 같은 동료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거나, PC방, 비디오방 등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무연고 청소년의 시설 보호 후 주거지 제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언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그 교육과정은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하나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부정적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원 교육은 실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하나원에서 본 한국 사회와 밖에서 경험한 한국 사회가 너무도 틀리다”라는 말로 그 평가가 함축된다. 그러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원 교육체제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를 고려할 때, 성인과 분리된 청소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사회 전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남한의 학교생활이나 교육환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같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유무,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 개인별로 사회적응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경험이나 배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다 많은 수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 (2) 단계별 적응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입국에서 하나원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정착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따른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 추구할 목표, 지역사회에서 추구할 목표를 정하고, 각 단계마다 통일부, 교육부, 교육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영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기적이고 일관된 적응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이 겪었던 문제 및 극복과정을 하나원에 새로 들어온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전수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실질적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원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주입 중심의 교육보다 남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수단의 유형별 이용방법,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이해와 은행 이용방법, 각종 문화시설·놀이시설 등의 소개와 이용 방법 등이다.

- (4) 하나원과 인근 학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나원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관계자, 교사 그리고 남한의 청소년들에게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과 이들이 겪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관계자, 교사 그리고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청소년문화 이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부적응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놀이문화의 동화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다양한 놀이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로 컴퓨터 게임, 인라인스케이트, 댄스 등의 체험교육 등이다.

- (6) 언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자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언어적 이질화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은 통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각종의 언어 표현, 억양, 투박한 말씨 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하나원의 교육단계부터 이의 해소를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특별히 구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7)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하나원과 퇴소 후 겪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남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

(8)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 본 한국과 밖에서 본 한국이 너무 틀리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즉, 하나원 퇴소 후 알게 된 고아원, 달동네 등의 실상과 각종의 이익단체가 벌이는 노사분규 등의 사회적 갈등 현상 등에 대한 이해부족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며, 어떤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보며 자신들의 위치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길은배(2002).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동(1995). 한국사회변동론. 나남출판사.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정 등,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대학생 자원 봉사자 증언록.
- 김병로(1994).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영수(2003).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문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아카데미 제6장.
- 김영수·정영국(1996).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 김중태(2002). 국내탈북 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제4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 김학성(2003). 동독 탈출 및 이주자에 대한 서독의 정책과 시사점.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2002-2003). 통일논의리뷰. 통권 1-6호.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철·김영운·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배대원(2002).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통합 교육방향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북한이탈주민후원회(199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현황.
- 북한인권시민연합(2002). 2002 한겨레 계절 학교 운영보고서.

- 선한승(1995). 북한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안혜영(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경남(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유팔무(1999). 독일의 통일과 민족통합 10년: 현황, 과제, 교훈.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주년 세미나 자료집.
- 윤여상·김임태(2000).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효과분석 및 제고방안.
- 윤여준(1994). 북한귀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2000).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부적응 문제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2000년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 용역과제 보고서.
- 윤인진(2000a).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 방안. 제2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 윤인진(2000b).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윤인진(2001).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제3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 이기영(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만(2000). 북이탈 주민 남한사회 정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평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4권 2호.

- 이운죽 외(1997).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 이우영 외(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정우·김형수(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창식(2002). 남북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 봉사프로그램 개발. 통일부신진 연구자 논문.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성우(1997).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연구회 학술회의 자료집.
- 전우택(1997).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 전우택(2000).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통일연구, 5(1), 21-64.
- 전우택(2002). 북한 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과 종교의 역할. 민족화해위원회 2002 워크숍 기초강연.
- 전태국(2000).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38, 5-29.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통일부.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통일부.
- 통일부(199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통일부.
- 통일부(1999).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부(20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책지원과 통계자료.
- 한만길 외(1999).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 현주 · 오기성(1999).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Berry, J.W.(1998).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PA: Swets North America.

Chaskes, J.(1996). The first year student as immigrant. *Journal of the Freshman Year Experience & Student in Transition*, 8(1).

Gold, S.(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Goldberg, E.R.(1980). Relocation and the family: A crisi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Coehlo, G.V. & Ahmed, P.I. (eds.), *Uprooting and development: Dilemmas of coping with modernization*, 211-231.

Lee, E.(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 167-179.

Li, P.S.(1999). The multiculturalism debate. Li, P.S. (ed.), *Race and ethnic relations in Canada*, 148-177.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Troper, H.(1999). Multiculturalism. Magocsci, P.R.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997-100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Weiss, B.J.(ed.)(1982). *American education and the European immigrant: 1840-1940*.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공 백

# 부 록

공 백

## [부 록]

북한이탈 청소년 심층면접 내용<sup>9)</sup>

## ◎ 피면접자 : 나○○

## ● 학업에 관련된 문제

Q1 : 학업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학력의 차이,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 등)?

A :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 때로는 귀엽게 느끼지만, 이런 경우는 어쩌다 한 두 번이고 대부분은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의 애들과 나이가 같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란 생각이 들면 이전의 나와 중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북에서 내가 본 형들의 모습을 아이들과 자꾸 대비하게 되요. 그럴 때마다 심할 경우 수준미달이란 결론을 내리고 나 혼자 애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애들이 고3이라 그런지 나 또한 많은걸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내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농담도 하는 사이입니다.

Q2 : 학업과 관련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건정고시 준비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중·고등학교 입학제도와 관련된 문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자금 및 공납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 등) 부당하거나 미흡하여 바뀌거나 보완되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등인지?

A : 저는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6년인지 9년인지 꼭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에서 유치원 높은 반과 인민학교 4년 과정이 여기 초등학교 6년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준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와 여기 중학교 전 과정이 비슷하고, 고등중학교 4~6학년까지와 여기 고등학교 전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전

\* 20개의 면접 내용 중 12개만을 선별하여 수록함.

했수로 몇 년 따져서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북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 다니다 왔다면, 여기 고등학교 1학년에 넣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이하고 특수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든 법을 우리에게 강제로 짜 맞추는 것은 역시 정책에서의 오류가 훤히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전 검정고시준비과정에 있어서 일부 청소년들이 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처럼 급식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점심이나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면서 조금 많은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고 봅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 학원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3 : 상급학교 진학 시(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 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선택 문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등) 누구와 그런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정부나 관련 단체 등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A : 저 같은 경우에는 형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50대의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때 그 중요한 진학 문제를 그 형사님과 의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웃게 되요. 그래서 학교를 외고로 바꾸고 전학을 가버렸죠. 제가 듣기에는 많은 애들이 인문계가 어려워서 실업계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전 이것을 정말 반대합니다. 인문계의 학업이 어렵다는 건 순 뺑뺑이를 한거니까요. 여기나 북이나 과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전 오히려 북쪽에서 공부를 하던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처럼 객관식 문제가 아닌 주관식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북쪽과는 대조하기조차 쉽죠. 절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전 이런 것들을 교회나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주고 상담을 해주면서 꼭 인문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남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은(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남한친구들의 차별 등)?

A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별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제 말투야 개그맨이 따로 없이 말하기만 하면 애들을 웃겨서 인기가 많아 쉽게 애들과 친해질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남쪽 애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이었습니다. 외래어가 튀어나오고 브랜드가 튀어나오고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전 어색하게 웃어주기만 했었을 뿐이죠. 전 그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때 상황마다 대처를 잘 하는게 아마 애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고 잘 사귀어 나가는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고향이 함흥이야...” 라고 애들에게 털어놨을 때, 그 다음에 보이고 느껴지는 동정이란... 물건이 너무 부담스럽고 걸치장 스텝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는 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만, 나를 대해줌에 있어서 언제나 특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한번 받기 시작하면... 전 이런 것들이 남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Q2 : 남한 친구들과 어떤 놀이(경험)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사귀 수 있었으며 어떤 문제로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느지?

A 저 같은 경우는 제 말투와 중국에서 2년간 학교 다니면서 배운 중국어로 쉽게 애들에게 접근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한 명의 애와 절친해졌고, 제 말투를 흉내 내고 따라하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다보니 어느새 C클럽이라는(10여명의 애들이 모여져 만든) 것도 만들어 다니기도 하고... 갈등을 경험한 건 제가 북쪽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갈등보다는 해프닝에 가까운 것이겠죠? 가끔씩 묻는 말에 둘러대는데 둘러대는 것이 워낙 소질이 없는 나인지라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 조금 오해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이런 전화를 해줬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중에서 오늘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 있어.” “그것처럼, 난 네가 어제가 아닌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키고... 참 나쁜 놈이죠? 제 억양에서 조금씩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제 말의 악센트가 강하고 빨라서 듣는 사람이 제가 화를 내고 있나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갈등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Q3 : 남한 청소년들이(주변사람들) 나를(북한이탈 청소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인지?

A : 전 '성실과 진실로 사람을 대하면 잃을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귀고 친한 애들에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들도 그렇게 잘 대해준다고 생각해요. 2년간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했던 애한테 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도, 제 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속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남은 삶에 있어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제 생각이 맞는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남쪽 친구들이나 북쪽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이나 진솔하게 대해주면 제게 또한 진솔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 ● 문화적 적응

Q1 :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북한사회와 비교하여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경제적 영역, 놀이문화 영역, 가치관의 차이)과 그 차이점은?

A : 사회, 여기 사회에서 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여기 분들이 조국이란 개념이나 민족이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개인에게만 결부시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북쪽은 사상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북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고, 남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Q2 : 남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지)?

A :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텐트치고 놀지요. 이런 놀이문화가 전 정말 좋아요. 자연도 느끼고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서 나의 친구도 만들어버리고 친구와 좋은 추억도 공유하고, 북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 경험을 못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몇 박 며칠 동안 놀다 온 다음에는 함께 잤던 이들과 결속력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재충전되고, 이래저래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Q3 . 친구로 사귀 수 있는 남한 청소년들의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은?

A : 남한 청소년을 떠나서 전 진실하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좋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친구로 사귀기 좋아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이지만 비나 눈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우같은 사람,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어려운 일에서는 발뺌을 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정말 남한 사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봐요.

### ● 경제적 적응

Q1 : 남한 사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은 경우?

A : 전 아르바이트 할 때 “나 북한서 왔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어를 번역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했는데 능력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요. 뭐 별다른 건 못 느꼈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Q2 : 현재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착금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은지)?

A .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단계별로 끊어서 주는 것도 맘에 들고... 단, 아직 10대와 20대이니까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서투른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의 식견으로는 정착금이나 재정적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낼 수가 없네요.

Q3 : 우리 정부나 사회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을까?

A :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해요. 뭐 양친구 같은 데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학원이나 직업학교 같은데 다니면 차비로 나오는 일정한 금액)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좋게 활성화되면 청소년들의 경제적 훈련을 잘 이끌어 나

갈 수 있으리라 생각 되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외를 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돈 내고 학원 다니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또 과외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니까 효율성도 엄청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북쪽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 부모 또는 형제 등 가족간에 갈등이 있다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 학업과 관련된 문제, 가치관에 따른 세대차 문제 등)?

A :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과 세대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결합 된 가정의 불화음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해요. 새 아버지와 심한 트러블 끝에 집을 나와 살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과 그 분이 원하는 것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쓰는 것과 집안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트집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 일종의 히스테리 성향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싫었어요. 그 분의 모든 것들이 그냥 싫어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Q2 ·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비행이라고 할만한 행위를 경험해본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비행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A : 그냥 가출성향이 짙은 독립이 제 21살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유일한 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주는 그냥 형이나 친구들과 자연스레 마셔 비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흡연이나 그 외의 것은 저와 별개의 세계의 것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겪은 비행은 위 질문에서 답한 것처럼 새 아버지와 맞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하루하루 화를 내고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바에야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고 마음만은 편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는 생각에 그냥 독립을 생각해 실천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씩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제 자신이 충분히 행복하고 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 정부정책관련 문제

Q1 : 우리 정부 및 사회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낮은 사회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A : 대안학교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린애들과 공부하는 것이 때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많은 고민거리를 주고 있어요. 때로는 살고 있는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도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학원에 다니며 말며 하며 맘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랑하는 10대와 20대를 위해 대안학교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가 생기면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예요.

Q2 : 그동안 귀하가 경험한 것 중에서 낮은 사회적응을 가장 많이 도와준 프로그램은(주관단체 및 어떤 내용이었는지)?

A : 글쎄요! 프로그램이라, 뭐 학교에서 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준 프로그램이자 주관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전 학교에서 여기 고등학교 애들과 지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이 제가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PC게임이나 쇼핑, 메이커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사고수준, 이 사회를 바라보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시각과 생각 등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어요.

Q3 : 하나원 교육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A : 전 8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40기에 육박하거나 50기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8기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굳이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원 교육생 전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제 생각의 문제점은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이 사회에 대해 너무 겁주는 것 같아요. 해결점은 이 사회에 대해 누구나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 피면접자 : 문○○1

## ● 학업관련 문제

Q1

A :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나도 다르고, 특히 수학에서(영어)는 너무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또 영어도 많이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저는 로어반 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학생들보다 2~3살이 많아서 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많이 낯설고 취향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팬찮아 졌어요. 비록 늦은 취학에 학교를 들어가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에 반면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친구도 사귀고 문화생활도 많이 배우구요.

Q2

A : 현재 검정고시 준비중인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탈북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많이 낯설지도 않고 공부도 취향에 맞게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학력이나 실력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나 학원을 따로 세워서 선생님들로부터 적성에 맞게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짜임새 있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Q3

A : 고등학교나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은 검정고시를 봤다는 이유로 안 받아 주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면 그건 경쟁률이 높은 학과니까 탈락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라고 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못하는지 말 이

예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다만 여기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통일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대학 측에서 내린 법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못 한다고 했어요. 대학 진학 시 탈북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경영학과나 중국어과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대학 측에서도 탈북 청소년 한 명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북한과 남한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남한 친구들은 지식을 폭넓고 다양하게 접하면서 자랐잖아요. 아무 나라나 문화의 차이는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취향이 맞지가 않거든요. 남한의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놀이 문화잖아요. 저는 초기에 어느 것부터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요. 같이 어디를 놀러 가면 친구들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고 혼자 이상한 말을 할 때 정말 안타깝죠. 이야기 거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같이 있기조차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 이야기 거리에 대한 문제를 좁은 의미가 아닌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는걸 보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끼거든요.

남한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호기심과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과의 다른 세계관과 문화의 차이, 즉 생각하는 방식에서조차 다르다는 하나만으로도 차별할 때가 있죠. 아마도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은 못살고 어린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피를 팔아서 학비를 구한다고 배우듯이 여기서도 북한에 대한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Q2

A : 주로 볼링장이나 노래방, 당구장을 다녔어요. 볼링장이나 당구장을 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가서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친구들과의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노래방은 같이 어깨동무하구 노래를 부르고, 같이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서로의 우정을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북한에서 어떤 놀이 문화를 했고 어떻게 놀았다고 하면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볼 때 화를 내면서 말다툼도 했어요. 어떤 놀이는 같은 점이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는 다르거든요. 북한에서는 농구를 해 보지도 못해서 잘 모르거든요. 농구 게임을 할 때 아무 규칙도 모르고 하니 저는 계속 파울과 반칙만 일삼아 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짜증을 내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다툰 때가 종종 있었어요.

Q3

A . 그럴 때는 내가 살다 온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때 진실 된 마음으로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잘 설명해 줄 때예요. 아마 사례를 들자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자신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잘 이해하고 도와줄 때죠. 정말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조언을 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한국인으로 생각해주고 대해 줄 때요. 누구를 좋아할 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마음 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유 없이 좋아하고 아껴주는 것이 진실 된 마음인 것 같아요.

### ● 문화적 적응

Q1

A . 어려운 부분은 경제, 놀이,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언어의 차이가 심한 것 같았어요. 북한은 표준어와, 지방사투리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국은 지방사투리, 외래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외래어로 된 많은 간판들이었어요. 물건을 사러 가셔도 노점상인들이 쓰는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때도 많았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언어와 한국의 언어의 차이점이 가

장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팬찮습니다.”라는 말을 “일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언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놀이문화를 보면 북한은 민속놀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놀이문화가 너무 많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친구들과 같이 술래잡기, 수영, 축구, 그리고 팽이치기, 연 띄우기 등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주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등등 다양한 것이 많아서 놀이문화를 접하고 배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것이 아마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지 않나 싶네요.

Q2

A : 북한에서는 농구를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농구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 명이 같이 팀을 짜서 게임을 즐기면서도 건강에 좋게 운동도 되고요. 비록 농구 게임 규칙을 몰라서 다툼도 종종 있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운동을 통해서 다 잊고 다시 새로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주 진정한 운동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간에 친근감도 더 두텁게 해주면서 우정을 키워주거든요.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컴퓨터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컴퓨터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힘들거든요. 게임에서 지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다보면 승부욕이 생겨서 쉽게 그만 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게임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미디어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컴퓨터 게임, 음란 사이트 등이 좋지 않아서요. 컴퓨터를 하다보면 음란성 광고들이 창에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기심에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Q3

A . 아마 누구든 친구를 사귀다면 자신과 마음이 맞고 착한 사람으로 사귄 거예요. 자신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를요. 친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면서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를 말이에요. 저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거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친구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사귀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런 친구를 말입니다. 즉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넓은 친구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싫어요. 자신만 잘난 척하는 사람하구,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사람 등이 싫어요.

만약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부르면 달려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 좋은 건데요.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조언도 들을 조언과 듣지 말아야 하는 조언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누가 듣겠어요.

## ● 경제적 적응

Q1

A : 글썽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회사에서 사무보조도 해보고, 식당에서 웨이터도 해보고 했어도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주변에 친구나 아는 분들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어떤 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요. 그것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안일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분에게 누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겠어요.

Q2

A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착금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사회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큰 힘이 되죠. 정착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요. 근데 전에는 정착금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정착금이 지급되고 해서 그 돈을 잘 활용을 못 하구 허비하는 형상이 많았어요. 요즘은 몇 개월씩 나눠서 지급된다고 하던 거 같던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조치인 것 같아요. 자신이 누리지 못

했던 자유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지급되는 정착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착금의 절반을 나누어서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잘 활용될 수 있게요.

Q3

A : 탈북 청소년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재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전 그 정도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 제한된 회수에 관하여 원하는 학원등록이나 진로상담 같은 경우를 지원해주시고 기타 사회적인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업교육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의 혜택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고, 받는 사람 몇몇만 받는데 청소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기간에 다른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원에 등록금 같은 재정적 지원이 1~2차례 정도 이루어졌으면 해요.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가정 내에서의 갈등은 별로 없는데요. 그전에 대학교 입학으로 진로 선택에서 있어서 한국의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내용과 가정 내에서 선택했으면 하는 진로선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기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어요.

Q2

A : 흡연은 원래 하지 않으며 음주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명절 때나 생일 때 몇 잔정도 마시고 밖에서는 친구들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행이라고 할만한 것을 경험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만의 고집과 생각만으로 일을 했을 때 일거예요. 별로 비행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과 지식을 키워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한테는 남한사회가 매우 낯설고 모든 것이 다 호기심 일거예요. 아마 공부도 우선일수 있지만, 자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왔는지 깨달음을 줘서 초기에 잘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말이에요. 자본주의화의 기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겁니다. 남한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즉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남한사회의 문화와 경제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눈으로 시선을 주지말고 열심히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어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작은 관심이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나를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감싸준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말이에요.

Q2

A 아마 꼽자면 많을 거예요. 그렇지! 그 중에서도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전도사님 등등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으로 도움주시거든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구요. 또 좋은 분들을 소개 시켜줘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실제 체험을 통한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느끼는 것이 힘이 된다면서요. 만약에 대기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직접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자세한 설명과 그 과정 과정의 모든 절차를 알려주면서 남한사회에 하루 빨리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시거든요. 남몰래 뒤에서 기도도 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하나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사회탐방인 경주문화 탐방, 공업단지 견학 등이 한국사회 현실을 체험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Q3

A . 현재 하나원의 문제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지 좀 오래 됐거든요. 기억에 남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대비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나와 가족, 앞으로의 남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락이나 퀴즈문제 제시, 강의와 토론, 질문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별 연령별, 지식수준 등의 토론방식으로 말 이에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직장 취직 후 겪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인내성을 키우는 법,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등이에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나 대학 진학시 나를 알고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 하구요. 예비시험으로 성적 알아보기, 집중해서 공부해야할 과목 공부하기 등 효율적인 것으로 했으면 해요.

## ◎ 피면접자 : 문○○2

## ● 학업관련 문제

Q1

A : 우선 학교 입학 을 하고 나서, 수업 중의 선생님들의 설명을 많이 알아 들을 수 없었던 점이였어요. 특히 국어, 사회과 과목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더군요. 둘째로, 자라오면서 배웠던 배경지식이 너무 없어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여기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동화책도 읽고, 또 세계문학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면 척척 알아듣는 반면, 저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옆 친구에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XX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었답니다. 또 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의 책이름이나, 용어들을 기억나는 대로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는다는지, 또 한 책을 빌려다 어떤 내용 이었는지 알고 넘어 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랑 대화도 편하고 또 선생님의 수업도 잘 들리더군요. 그리고 저도 나이를 낮춰서 진학을 했지만, 학업과 관련하여 나이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또 나중에 여기 학생들이 군에 입대를 하고 나면, 사회진출은 우리가 더욱 빠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Q2

A : 우선 저는 학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공부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더욱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검정고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비등 많은 돈이 투자되더군요. 애써 정부에서 정착을 돕는다면, 학교를 다녀야 할 친구들에게는 검정고시보다는 학교를 추천해줬으면 해요. 책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저도 중학교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 문제로 통일부 직원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학교가 너희한테 필요하냐고 그냥 검정고시 응시하고 대학가라고 그러더군요. 통일부의 정착지원은 형식으로만 잘 되어있지만,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

극적으로 통일부나 시민단체에서 학생들의 학교 정착을 돕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탈북자 학생들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학할 때 북한의 학제랑 여기 학제가 좀 틀리니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통일부에서 학력인정서를 북한에서 학교 다닌 연도만 표시되어 있어, 각 교육청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차이가 나더군요. 그래서 대전에는 중졸이어서 고등학교를 진학가능하였지만, 서울에서는 중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결정이 나더군요. 정확하게 통일부에서 기준을 내려놓으면 묵정 높여서 여러가지 설명도 필요 없고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 같네요.

Q3

A :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라면, 망설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선,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과외를 좋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상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도 과외 형을 통해서 많은 문제도 해결 받았어요. 우선적으로 학과에 대해, 학문, 직업에 대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니까, 고2에 진학하면서 인문계, 자연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우선적으로 말씨의 차이 때문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였어요. 제일 안타깝더군요. 내가 말하는 것을 급우들이 못 알아듣고, 또 저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랑 문화적 차이가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즉, 친구들과의 공감대가 없으니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더군요. 교내 생활에서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방과 후 친구들이랑 어울릴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학기는 학교랑, 집만 왕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애들의 차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내가 급우들과 어울릴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 후 급우들의 놀이 문화도 알게 되고, 또 성격도 차차 알아 가면서부터는 급우들과의 대화도 편해졌고, 또 제 말씨도 저도 모르게 변화되면서 편하게 지

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신분도 밝히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겠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하고 그냥 스쳐 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처음엔 북한사람이라고 밝히면, 신기하게 여겨져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같은 인간이고, 민족임을 알게 되면 더욱 친해지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처음엔 중국에서 왔다고 했지만, 나중에 밝히고 나서 더욱더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Q2

A : 저는 체육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좋은 공감대였어요. 또 이걸 바탕으로 방과 후에도 급우들이 즐기는 놀이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같이 즐기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없었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언어적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식 언어가 좀 강한 표현이 많으니까, 서슴없이 말하는 것에 아이들이 기분상해 하더군요. 하나의 문화적 차이라 생각하고 애들 앞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애들이 제 언어를 따라 사용하더군요.

Q3

A : 우선적으로 통일 문제나 대북 관련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같이 동감해 주더군요. 이유는 애들의 관심은 전혀 없지만, 저로 인해 알게 되는 경우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군요. 한쪽으로는 가슴도 아픈 경우였고, 또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반쪽(북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고3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각자의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동감을 가져주더군요.

## ● 문화적 적응

Q1

A :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문제였어요. 위에서 많이 언급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가치관의 차이를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학교 수업시간에 여러 번 토론할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친구들과 진로에 대한 많이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친구들의 생각이 너무나 개인주의라는 걸 느꼈어요. 마디로 말하면, 공부해서 나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통일이 필요하냐?”란 질문을 하면,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한탄도 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편협한 생각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둘째로 용돈 관리의 어려움이었어요. 여기 애들 입는 대로 쓰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용돈 지출이 참으로 많아지더군요. 또 돈 가치에 대하여 좀 무디다 보니 필요 없는 데에 많은 돈을 지출했었습니다.

Q2

A : 저는 한국에서 캠프나 동아리 문화를 제일 좋아해요. 같이 친구들과 2~3일 동안 바다나 산으로 가서 마음을 맞춰가며 재미있게 놀다가 오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같이 동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기타를 너무 좋아해요. 학교에서 기타동아리 활동했던 것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고, 또 동아리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놀이문화는 음주 문화예요. 저도 친구들과 여러 번 술도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지만 몸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아까운 시간도 버리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하면 좋은 것이지만 친구들의 음주 문화가 너무 과도해서 한쪽으로는 실망했습니다.

Q3

A : 저는 한국친구들이 활달하다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좋은 신 것 같더군요. 친구들이 농담도 잘하고, 유머스럽고, 친구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 주고, 제가 좀 많지만 친구들에게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급우들을 보면 술에 물탄 듯한 친구들이 여럿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청소시간에 빨리 청소

를 끝내고 놀아도 될 걸, 굳이 선생님 잔소리에 매까지 맞아가면서 대걸레를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 몰맛이더군요. 전 좀 성격이 불같아서 느릿느릿하게 일처리 하는 걸 보면 제 속이 터지는 것 같거든요. 할 것 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몸으로 때우려는 애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해요.

## ● 경제적 적응

Q1

A : 아직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Q2

A . 제가 하나원 출소할 때 정착금 전액을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형사님이 관리를 하셨어요. 그 후 가족의 한국입국으로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는데요.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이 저한테 있다는 것이 흥분이 되더군요. 쓸 줄만 안다면 좋은 것을 사서 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에 출소한 많은 분들이 큰 돈으로 사기 당하고, 또 과소비로 모두 날려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가 어렸으니 망정이지 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 정착금 지원이 전액에서 분할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월급 같아서 받으면 금방 사용해 버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에 3년 후에 정착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지만, 3년이 지나니까 한국사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제 나이또래의 생활에 대해서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머니의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3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대충 경제의 흐름도 알게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알게 되고 하니까, 처음보다는 자신감 있게 대인관계도 이룰 수 있었고, 사회문제도 비판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 정부의 경제적 지원(생활보호 대상자)이 일정기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회경험을 쌓게 한 다음 지급하는 것이 사회진출 때부터 지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Q3

A :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교육의 기회를 확대 시켜 주고 시민 단체들과 협조하여 원활한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현행되고 있는 대학입학의 특혜나 성인들의 직업교육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영어가 많이 비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야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른들 직업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구요. 정부에서 영어나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관과 결연을 맺은 학원에서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걸 너무 제한적이고, 또 차별적 이예요. 북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북한의 학생을 교육시키면, 학원비를 지급하는 형식이 청소년들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우선 새 사회에 적응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나 저의 세대나 처음에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의 사회생활과 저희들의 사회생활이 분리되면서 점차 세대 차이도 느끼게 되더군요. 특히, 학업문제에서 부모님들은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로 진로를 택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답니다.

Q2

A :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알았던 급우들은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한 모습 이었는데, 학교 밖에만 나오니까, 담배를 피우더군요. 처음에는 급우들의 이중성에 너무 놀라서 언제부터 배웠냐고 질문을 하니까, 다들 오래 전부터 피워 오더군요. 그래서 조금 멀리 하여야 할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저에게는 조금도 담배 같은 것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농담 삼아 피어 보겠다고 하면 기를 쓰고 말리더군요. 아마 친구들도 담배가 나쁜 줄은 알고 있더군요. 또 다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나 안 피나 그걸 따지지 않고

편하게 지냅니다. 저는 술은 그렇게 나쁜 비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음하는 것은 항상 견제하고 있습니다. 친구생일이나, 시험 끝나고, 또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배우게 된 동기는 제 짝꿍이 자기 생일이라고 저를 초대해서 그때 침으로 마셔보았어요.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선 중·고등학교 대상자에게는 검정고시보다는 학교를 권장해 주고, 또 영어나 컴퓨터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Q2

A : 저는 북한인권시민연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일 좋았던 것이 1.1과외였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학교생활에서 자신감도 얻었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운영하는 하나들 학교 프로그램이나, 문화유적지 답사 등, 한국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받은 도움인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고, 학원도 소개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Q3

A : 저는 하나원 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하나원이 건립된지 1년 안이라서, 그때의 프로그램은 아직 적응단계로 생각되었고, 여러 가지가 미흡하였고, 또 그 후로 많이 변화하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청소년으로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더군요.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영어교육이나, 한국의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 교육서적들을 읽히는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사회에 나

와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아주 크게 작용하게 되더군요. 특히 언어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갔던 산업단지나, 문화단지가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방문하기 힘들더군요. 그때 건문의 발을 넓혀주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 피면접자 : 박○○

## ● 학업관련 문제

## Q1

A :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학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남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초보적인 기초를 다져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학교에서 별로 어렵다고 말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희와 배운 것은 너무 상대적이라 많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토론식으로 되어있는 교양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발표할 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설명을 하시는 것도 어떤 설명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학교 때 배운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니 학점을 받을 때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같은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들어갔었는데 너무나 수준급 차이가 심해서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몰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혀 무엇인지를 분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위의 부분을 내놓은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Q2

A : 학업과 관련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가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 듣기로는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학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은 비중에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고, 또 등록금 면제 시켜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직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만일 진로와 직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학업도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학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바탕을 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이나 공납금 같은 지원은 별로 미흡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에 필요한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많은 부담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 남한의 청소년들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려면 엄청난 부담을 걸머 쥐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면 실로 사회에 바탕을 두고 배울 수 있는 진정한 학업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지요.

Q3

A : 고등학교 진학 시 인문계와 실업계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많이 보여야 한다고 하지만, 졸업 후 대학진학 시 또, 진학결과과정에서의 모든 문제는 결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상담원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개인 교사라던가 또는 어느 정부에서의 도움으로 하여금 어느 계열이 중요한지, 또 왜 그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탈북한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진학시의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살아서 넘어가자는 식으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그들이 학업에 대해서 정열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혼자서 온 탈북 청소년들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이 아주 많은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깝지 않게 쓰는 애들도 많이 봤지만 학업보다 진로와 직업이 중요하다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그런 계열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상담해주는 분들도 많고, 또 어느 종교단체에서 밀어주는 곳도 많지만,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형제와 같이 생각했으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남한사회에 와서 적응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사귀면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쉽게 따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배우는 것은 별로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동안을 배우면 얼마든지 그들 못지 않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남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상견적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세계는 어느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것이 이념으로 된 것이라, 서로에 대해 가치를 동반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친구들의 차별이라면 아직까지 생각은 못해봤지만 만약에 친구들이 차별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똑바로 알고 넘어가야 하고 또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A . 글썄요? 아마 대화를 통해서 가장 쉽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또 게임방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과 함께 친구를 사귄 수 있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친구를 사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견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술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저 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에 밖에 미치지 않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또 수련회라든지, 어디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친구를 가장 쉽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갈등이라면 아마 남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써야겠네요. 남한에서 남녀간의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유행이 되어 버렸고 전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의 학교에서도 만나다가 헤어지겠다고 해서 여자를 목 졸라 죽이고 또 자살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막 말로 만났다 헤어졌다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귄 필요가 있는지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갓 들어온 신입생들을 보면 아주 사귀는 것을 너무 쉽게 사귀더라고요. 원래 옛날 속담에 “쉽게 만난 사랑은 쉽게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걸요!

Q3

A :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진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진심으로 대해 주는 것만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 남한 청소년들도 북한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행복만 안고 살아온 남한 학생들과 달리 탈북 청소년들은 많은 고생과 고통만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생활면에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많이들 감동 받고 이해를 잘 해줄 때가 있는 걸 봤습니다.

### ● 문화적 적응

Q1

A :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외래어와 언어의 억양이었습니다. 경제적이란지 놀이문화 같은 것은 자기가 하는데 달려있지만, 언어 같은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거라 정말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선뜻 생각이 나지를 않고, 또 말을 하려고 하면 억양부터 틀려서 많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아플 때만큼 참기 힘든 건 정말로 건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줘야 할 가족이 없고 혼자서 그런 아픔을 참고 견디어 내자니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또다시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제일 많이 아플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들과 여행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은 곳도 다녀보았지만 꼭 그럴 때마다 왜서 북한에서 왔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까요?

Q2

A : 제가 보기에선 남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인터넷 게임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생활 중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부유한 나라에서 살게 되면 이제는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엉망이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Q3

A : 아마 그런 것을 따지어 본다면 가장 친구로 사귀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심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과 자본주의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로써는 아마 그 사람의 진실이 내 마음 속에 받아들였을 때만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사귀었으면 하는 것이 여기 청소년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대면서 좀 멋이나 하구 다니고, 남 앞서 잘난 체 하고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친구로 사귀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또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고 친구의 약점으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는 백명이 친해지자고 해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사귀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 ● 경제적 적응

Q1

A : 글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잘해주고 월급도 잘 주고 정말로 대우를 잘 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잘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니던 가게에서는 너무 대우를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엘 다니면서는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다녀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본적이 한국인이란 고소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사무보조로 들어갔으면 제가 담당해야 할 일만 하면 되어야 했지만 회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발 안마를 해 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면, 또 어깨를 두드려 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면 라는 식으로는 정말로 부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벽 4시까지 밤새 일하고도 일당을 줄 생각을 안 하면서 그것도 겨우 주는 그런 형편을 볼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탈북자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구나 하고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사람 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Q2

A : 현재 정부에서 우리 탈 북청소년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 한국 사람들도 못 받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살면서 고맙다는 성의를 표시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여러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면서도 진심이 아닌 가식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걸 느꼈습니다. 여기 남한에도 어려움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탈북자들을 도와야 하는 식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집을 배정 받기 전에 ‘늘푸른 학교’라는 단체에서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왕 도와주는 걸 끝까지 도와주는 것

보다도 도와주면서도 의견 불만으로 많은 비평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의 구석이 있다면 진심으로 정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 만으로가 아니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진심 어린 그런 마음 이었으면 합니다.

Q3

A :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면 진로와 직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남한에서의 실업률은 청년들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생들의 실업률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서 그렇게 실업률의 차이가 심한지 또 진로와 직업의 기본 바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왜 필요한 건지 또 직업을 잃었을 때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걸 받아만 먹다가 남한 땅에 와서 직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사 같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썩고 있는 어느 한 구석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저는 현재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갈등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한에 와서 많은 피로움을 이겨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더구나 피로울 뿐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요시찰 대상으로 배반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쫓겨났지만, 어머니는 끝내 오시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한테는 나라를 배반하지 말고 나서 자란 고향 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숙고 살면서도 물론 자식이 타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미워질 듯 아픕니다. 그렇다고 쫓겨난 부모님을 보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또 한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부모님에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막말로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부모님은 안 오시겠다고 하고 나는 여기서 고대 학수를 하고 정말로 우리 집의 갈등은 어느 누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해결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같아서는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질투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직 감옥에 있는지, 또 감옥에서 얼마를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딸이 그 땅에서 어떤 수모를 받았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그 땅을 잊지 말고 꼭 붉은 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미워지도록 엄마가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엄마와 나의 가치관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계속 버는 것도 없이 북한에 그 자금이 보내진다면 저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소식이라면 천리라도 달려가는 내 마음이 언제까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지 걱정입니다. 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와 상담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와 같은 갈등을 가진 분들이 주위에 있는지요? 저의 주위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Q2

A : 글쎄,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행이라고 할만한 것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시는 것 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입에 꼬나물고 다리를 꼬고 지하철을 탈 때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수치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도 술 한 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술과 담배가 저렇게 공통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전혀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또한 서로 남녀 관에 사귀었다가 일주일 만에 헤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저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북한에서 그랬다가는 큰 일이 납니다. 또한 공동 장소에서 청소년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남의 주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를 한다거나 여자의 몸 아무 곳이나 손대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볼 때면 같은 청소년으로서 불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본주의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우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이겠죠. 이 사회를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와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사회와 같은 걸음으로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개인 지도도 많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세상 밖을 나와서 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정착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정부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미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정부가 가장 시급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A :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곳을 돌아보고 또 좋은 곳과 나쁜 곳을 동시에 돌아보고 정말 어느 단체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또 그것이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참 종교를 믿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계선에서 더 이상을 바라다면 그것은 염치없는 일이겠죠.

Q3

A : 지금 현재의 하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원에서는 참 많은 교육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의범절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문화생활 경제 사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배워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외래어나 또 인사예절 같은 것은 사회에 나오면 다 배울 수 있고 적응도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나 사회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원 기간동안 여성들에게는 요리학습이나 생활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준칙과 또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을 통해서 그때는 많은 종교단체와 문화탐방 같은 것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밝은 곳이 있다면 어두운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달동네도 가보고 또 고아원이나 유아원 복지관 같은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이웃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증권이 무엇이고 부동산이 무엇이고 또 한국을 평가하는 한국 사람들의 편차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하는 것이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회에 대해서는 절반도 모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चना 거기에서 타고 나오는 정착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오자마자 아무런 생각 없이 큰 돈을 쓰는 청소년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도 중요한 시점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것도 사실 배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원에서의 모든 교육내용을 사회생활에 바탕을 좀 더 깔고 가르쳐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 ◎ 피면접자 : 윤○○

## ● 학업관련 문제

Q1

A :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학력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철학과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난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본문을 3번 정도 읽었지만 제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중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한국에 와서 학원에서 석 달간 배운 실력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왕 초보반입니다. 저한테는 위의 두 과목이 학업에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Q2

A : 학교에서 내는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원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몰라서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겨우 알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휴학하면 등록금이 안온다는 소문을 듣고 휴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도 제대로 물어 볼만한 곳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회비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는 것을 대학 들어가서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직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 속상합니다.

Q3

A : 저 같은 경우 제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후에 부모님들이 입국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거나 아는 사람들한테서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담당형사나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혼자서 정보를 찾아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라에서 배치하는 대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남한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더욱 명문대를 졸업하면 최소한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는 것으로, 좋은 직장만 들어가야 하는 고정 관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에는 2만개나 넘는 기업이 있는데 왜 취직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한국정부의 배려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또 앞으로 남한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문화차이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사소한 얘기라도 외래어를 쓰고, 예를 들어 학원 다닐 때에 학원 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 배우들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남한 청소년들은 제목이라도, 내용이라도, 들은 적 있는 것 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들어 보는 것이라, 참,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들이라 좀 극복하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참 한심스러운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순수 우리말을 쓰니 촌스럽다,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Q2

A . 의외로 남한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직 전쟁의 아픔을 몰라서인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제가 소개를 하니 신기하게 생각할 뿐 저에게 평범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제일 고민했던 점이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지 고민하였는데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한발자국 좀 더 다가가서 마음을 문을 열고,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남한 친구들과 얼마든지 사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한에서 살아야 하고 남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남한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도 남한 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시위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같이 투쟁에 참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 대학에 공부하러 온 것이지 무슨 투쟁을 하는가 하고 친구에게 물어 봤을 때 그 친구도 이렇다하게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 공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Q3

A : 글썄 저는 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줄 때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강신청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면 시간을 내서 같이 수강신청도 해주고 모르는 공부도 도와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못하는데 술자리에서 저를 변론해 줄 때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 ● 문화적 적응

Q1

A : 저는 남녀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신중히 여기고, 또 한번 사귀게 되면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에서처럼 싫으면 말고, 좋으면 갈 때까지 가고, 동거하고 이런 것은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남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유의 시대, 개성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있고,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 문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술을 못 마셔서 그런지 2차, 3차하면서 밤새껏 술 마시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학생이 그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학생이 술을 마실 수 없고, 술을 판매하는데도 없습니다. 몰래 마시는 경우는 있지만 남한처럼 완전히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더욱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드문, 아니

볼 수도, 상상도 못합니다. 좋은 점은 남녀간의 연애했 때 남한에서는 여자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자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여자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Q2

A : 저는 사회에 나와서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한의 놀이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하는데 끼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Q3

A : 남녀간에서는 저 같은 경우 남자가 이해심이 많은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남한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자기의 본색은 잃기 힘들기 때에 혹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내가 모르더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여자 친구도 이해심이 많고 성격이 활달한 애랑 사귀고 싶습니다. 소심한 애들은 한번 빠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귀고 싶지 않은 애로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애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것은 감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애들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 ● 경제적 적응

Q1

A : 저는 아직 한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2

A : 저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탈북자들이 제대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한국 첫 생활을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늘 푸른학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을 하였습니다. 소위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조직되고 운영 되었지만, 자기네 말을 잘 안 들으면 나가라고, 다른 힘든 단체에서 살아보라고, 나이가 되었으니 나가라고 이로울 때는 받아들이고, 좀 부담스럽다 하면 자기네 맘대로 처리합니다. 선생님이라고는 애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삼국을 통하여 한국까지 오기까지는 남한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생과는 비교도 안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본의 아니게 나쁜 습관도 생기고, 성격도 날카롭고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탈북 청소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그들도 남한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Q3

A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소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용돈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구할지 몰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용돈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 돈을 막 쓰는 일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인지 부모님 말씀이라면 다 따르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탈북 학생들과 부모님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해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거든요.

Q2

A :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서 주위 친구들 중에 비행을 하는 친구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비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술은 조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못 먹으니까 더 친해질 수 있는 것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저는 탈북자들도 한국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아원 같은 곳도 방문하게 하고 하면서 한국의 좋은 점도 알려 주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점도 배워주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고생 끝 행복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기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냉정함과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A : 제가 6개월간 사회단체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대학생들이 자원 봉사를 하여 저희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수학, 국어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행도 같이 가고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또래 애들과 같이 있고 하니 좀 가까워지고, 의견도 나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경희대 학생, 성실여대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여 우리들과의 만남으로 남한 청소년들과 북한 청소년들의 문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이라든지, 연예 방식이라든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등등...

Q3

A : 제 생각에는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합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도 남한 영어실력을 따라가자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시간표를 작성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북한 사람들이 타는 정착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중요하게는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문제입니다. 일부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보고 고향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온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욱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탈북자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여 이미지를 흐리고 있지만 그것은 한두 명에 불과한 것이니 바라건대 작은 잘못보다는 큰 장점을 널리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설문조사를 백번을 하더라도 단 한번이라고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탈북자들을 위한 많은 성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각양각색의 의견과 바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의견을 모아 그 의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 ◎ 피면접자 : 조○○

## ● 학업관련 문제

Q1

A : 저 같은 경우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을 다니다 왔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저더러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저보다 2살이 어린애들인데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비슷하다는 수학마저도 용어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sin'을 북한에서는 '시누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저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 같은 과목은 북한과는 전혀 다르며 영어는 북한에서 배웠던 수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일지는 몰라도 북한에서는 자연과학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화학이나 물리, 생물 등의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거나 배우더라도 대충 배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탈북 학생들에게 있어 공부하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몇 년씩 공부를 하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외래어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탈북 학생들로서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이를테면 수강신청을 한다든가, 리포트 등도 처음 겪는 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나오고 그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A : 저도 검정고시를 준비해 봐서 아는데 공부를 하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원비 외에도 책값과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몇 십 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 공부를 보충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데 아르바이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께 손을 내미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몇 십 만원씩 대주시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왜 공부 하냐고 일 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학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검정고시 출신들을 학비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비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학비정도는 국가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자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잘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학자금에 대한 사전교육을 학교자체에서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3

A : 보통 탈북 청소년들이 진학문제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로써 담당경찰관이나 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거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담당 경찰관님이 아무것도 몰라 저 혼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구하느라 고생했던 경험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학생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배포할 수도 있겠고 현지 대학생들과의 1:1만남을 적극 주선해 주어 본인들이 정확한 정보에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합니다.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선배 탈북 학생들과의 만남도 주선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우선은 북한의 친구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남한의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경우가 많고 또

이해관계에 의해 얽혀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귀기가 더 어려운데요, 같은 고향끼리, 같은 학교끼리, 같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애들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은 말씨가 남한학생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말씨이고 단어선택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하다보니 일단은 첫 만남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도 적지 않은데요, 보통 남한청소년들은 만화의 캐릭터나 영화의 주인공 등을 소재로 한 유머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탈북 청소년들은 남들 웃을 때도 왜 웃는 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Q2

A . 특별히 어떤 놀이로 가까워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게임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는 오락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만남은 실상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서로 솔직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데요, 그 방법은 역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수련회나 또 마음에 드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심정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익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다 보니 누구에게서 이해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속에 깊이 숨겨둔 내면의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탈북 학생들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 남한 청소년들이 그 말을 들으며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충격을 넘어 경악을 하기도 하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삶의 경험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A . 나를 가장 잘 이해할 때는 나의 길을 보지 않고 내면을 봐 줄 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길으로 봤을 때 북한청소년들은 대부분 직선적이고 고집이 세며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위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탈북 청소년들 역시 순박하며 성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꺼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박한 말씨며 딱딱한 얼굴 표정 등이 사장님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며칠 같이 생활하시더니 저에게 카운터를 맡기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잘 맡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 다 인정해준다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인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 문화적 적응

Q1

A .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렸으니까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놀이문화 영역이었습니다. 게임도 하지 못하고 노래방에 가도 애들과 템포를 맞출 수 있는 노래도 모르고 하니 자꾸만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엔티에 갔는데 다른 애들이 다 아는 게임마저도 몰라서 당황해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처음 남한사회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크나큰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한 청소년들과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도 경쟁적인 애들은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더치페이'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더치페이 문화에 익숙한 것 같지만 학교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Q2

A : 놀이문화 가운데 가장 좋은 것도 오락이고 가장 나쁜 것도 오락입니다. 처음 대학이나 모임 등에 가면 술을 마시면서 오락을 하는데 이때의 오락은 서먹한 사이를 좀 더 가깝게 하는데 의미가 있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밤을 새가며 오락을 하는 것을 보고는 진저리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해질 대로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 등도 나누고 다른 활동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A : 누구나 마찬가지로겠지만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친구일 것입니다. 서로 숨기면서 친구하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저는 세련되고 유머감각이 있고 상황판단이 빠른 친구, 즉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 친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친구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주고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물론 그런 친구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로에 대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는 가식적이고 이해타산이 앞서는 친구들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잘난 듯 하는 친구도 바람직한 친구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경제적 적응

Q1

A :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탈북자라는 말에 낯빛이 달라지는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TV에서만 보던 탈북자를 직접 봤기 때문 일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 곳 중에서 써준 곳은 한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 따

라 다른데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앞일을 톡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지만 그렇지 아닐 경우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촌티가 나는데다 말까지 얼버무리면 영락없이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Q2

A : 정착금 등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할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온 청소년들은 그래도 정착금 관리를 직접 하시니까 괜찮지만, 혼자 온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 쓸 줄을 몰라 한번에 탕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주면 돈은 탕진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그래도 돈을 모으거나 큰 돈을 한번에 써야 할 사정이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빚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에 맞게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Q3

A : 지금 하고 있는 지원도 솔직히 저희에게는 감개무량합니다. 다만 이런 질문에 관해 굳이 답하라고 한다면 직접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탈북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받는 입장이라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겠고, 또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돈에 관한 한 탈북인들은 문외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 의미 없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그 돈에 해당하는 컴퓨터교육이나 여러 직업훈련 등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선택 때문에 방황하는 실정에서 꼭 필요한 전문 상담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로 많은 경우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 못하는 이유로 마음의 불안정을 꼽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보다는 인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이전의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재 나와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많은 경우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무조건 자신의 말씀에 복종해 주기를 바라시고,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부모님들보다 일찍 눈뜨다보니,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아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폭력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전의 남녀의 지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탈북자들 속에서도 여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반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남자들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Q2

A :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를 경험합니다. 심한 경우 폭행이나 절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개인차가 가장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적인 소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내가 남한청소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우울해지고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나온 다든가, 아니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저의 생각에 동감할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회적응의 거의 절반은 사람과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이곳저곳 다니다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렇게 깊게 사귀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북한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내노라 하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는 그렇고 그런 탈북자로 취급될 때 많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상식 없는 남한사람들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모욕도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회와 기대이하의 대우, 상대적 빈곤감 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계속해서 지적하지만 사회 적응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사회에 대해 익숙해 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나간 악몽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없다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A . 저는 하나원에서 주관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을 통해 추진됐던 1:1자매결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노트를 펼쳐보기도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연합의 자매결연은 사회에 나와 아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시민연합을 통해 만난 대학생들을 통해 적지 않은 정보를 얻게 됐고, 이것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유용했습니다.

Q3

A :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은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원 졸업생이기 때문에 알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원을 폐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원을 창립한 목적이 북한 사람들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순위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교육 및 외부인과의 접촉은 장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쁜 정보가 들어오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면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해주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 ◎ 피면접자 : 주 ○1

## ● 학업관련 문제

Q1

A : 학업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제가 경험하기에 제일 어려운 것은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도 저의 나이가 같은 학번 친구들과는 차이가 많아 스트레스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의 차이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늦은 취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보더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데 나이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늦은 취학 때문에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Q2

A : 학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고등학교 입학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들 경우에도 나이가 3~2살 어린애들하고 다니기가 께께럽다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북한에서 배운 것이 그 학년밖에 안 된다고 상관없이 학력에 따라 학교에 넣어주니 그들이 학교에 들어 갔다하더라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본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수준을 한국에 있는 같은 나이또래의 친구들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학교가 조직되어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Q3

A :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종교단체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 저는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인문계나 자연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할만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 시 수능이나 시험과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는지도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한국에 와서 시험이나, 수능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죠. 저는 정부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기간 같은 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거나, 진로선택의 잘못으로 갈등하여 중도에서 학업을 그만 둔다거나 귀한 시간을 낭비하여 다시 선택한다거나 이런 비참한 현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 남한 친구들을 사귀는 첫 자리에 놓고 해보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 하겠는데요. 가치관이나 남한 친구들이 생각 같은 것이 저희들과 너무나 차이가 심한 것 같네요. 남한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회에서 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불만만 가득하구요,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문화에서는 북한 친구들과 남한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Q2

A : 남한 친구들과 쉽게 사귄 수 있을 때에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쿵쿵따’ 북한에서는 ‘말꼬리 잇기’, ‘진실게임’과 같은 놀이를 하고 놀 때 비교적 사귀기 쉽다고 말하죠.  
가장 심각한 갈등을 느낄 때에는 통일에 관한 남한 친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남한 친구들은 통일이 되면 남쪽이 못산다고 잘 못 인식하고 있을 테죠. 아직 남한 친구들은 북한과 남한에서 들어가는 군사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가 갈등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보이는 작은 밥그릇이나 생각하고 앞으로 들어갈 큰 돈은 생각 못할 때 갈등이 가장 심하죠.

Q3

A : 저의 주변에 있는 남한 청소년들은 저를 다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많이 도와주고, 남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도 숨김없이 이야기 해줘요. 저의 생각은 저의 진실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때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살아와도 진실 된 마음에 이해라는 것이 통한다고 생각하

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잘 이해해줘요.

## ● 문화적 적응

Q1

A :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남한사람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남한사람들은 특히 자기 속마음을 잘 들어 내 보이지 않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얻어진다고 그래도 비교적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겠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놀이 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기술하지만 인간관계,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Q2

A : 가장 좋아하는 놀이 문화는 진실 게임이구요. 스포츠놀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발야구, 농구, 신문접어 서기 등.... 좋아하는 이유는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놀이를 하면서 사람의 성격을 안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놀이를 하면 더 단결되고 친구들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와서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별로 싫어하는 놀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민족이니까 놀이가 아무거나 다 재미있을걸요.

Q3

A : 친구로 사귄 수 있는 성격이란? 남한 청소년들이라서 아니고 북한에서나 아마 같을걸요. 친구로 사귄 수 있는 친구의 특성은 첫째로, 진실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할 때, 약간의 유머감각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가 북한에서 왔던, 남한 친구건, 관계 안하고 사귀고 싶어요.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은 남한 청소년들의 특징은 이중성격의 소유

자예요. 앞에서는 그 친구를 다 이해할듯하지만 뒤에서는 그에 대한 경말만 하는 친구, 그런 친구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첨부할 것은 한국에 심중팔구는 이중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러지 않으면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문화가 다 그렇게 돌아가나 봐요.

## ● 경제적 적응

Q1

A : 저도 요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는 못 받아 봤어요. 사장님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분들은 북한사람들은 일을 다 할 줄 모르고 무식해서 손발이 많이 고생한다고 부당한 대우를 해서 그만 두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다혈질이라 성격이 급해서 약간의 불편함에 성질을 다잡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진실 되게 일하는데 제가 앞에서 기술했듯이 여기 한국사장님들은 이중성격의 소유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심중팔구는 이중성격의 소유자인거죠.

Q2

A : 부에서 재정적으로 쉽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착금 문제로 많이 복잡해질 때도 있는데요. 저는 정착금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주어서 뭐하죠. 쓸 줄 모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나마 가족과 같이 온 탈북 청소년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혼자 온 청소년들은 쓸데없는데 돈만 들고 정작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먼저 정착금의 일부를 지금보다 더 적은 양으로 나눠주고 하나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그들에게 쉽지 않는 재정으로 나라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현실체험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 체험 같은 걸로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단돈 1,000원도 없어서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하고 돈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Q3

A : 저는 우에서 기술했듯이 먼저 진로나, 직업교육도 현실체험으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먼저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착금만 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의 짧은 소견은 먼저 그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인재들을 요구하는지 이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먼저 교육해줘야 한다고 보네요. 하나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부모님과의 갈등은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같다고 생각해요. 학업에 관련된 것과, 부모자식간의 세대차에 의한 경제, 가치관 모든 것이 갈등이죠. 학업에 관련됐다 하면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무언가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많지만 나이도 들고, 어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기도 부끄럽고, 학력도 안되는 사람들은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지요. 이런 관계로 부모님들과 갈등이 심해요. 저의 집도 같은 경우죠. 또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아버님과 많은 다툼이 생기죠.

Q2

A : 남한에 와서 아직 비행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위법하면 살기가 힘든 사회이니까요.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정부와 사회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려면 우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청소년들이 70%나 된다고 생각하네요. 특히 요즘에 많이 넘어오는 청소년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네요. 북한에서부터 어렵게 살았고, 중국에서도 그냥 되는 대로 살던 그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법을 지키고, 단정하게 살려면 너무 힘들죠. 저는 사회가 그런 이들을 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내오고 그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Q2

A :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종교단체에서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와주는 학습과외 프로그램과, 수련회,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자원봉사단체 언니들이 와서 과외 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남한친구들이라 친구도 사귀고 정착할 수 있는 이것저것, 물어볼 사람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한 명 한 명 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Q3

A . 하나원 교육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이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원에서 바라보았던 한국사회와 제가 하나원 밖에서 보는 한국사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많이 갈등했거든요.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현장학습도 많이 하고,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원에서 배워주는 교육이 너무 미약한 것 같네요.

## ◎ 피면접자 : 주○○2

## ● 학업관련 문제

Q1

A : 늦은 취학의 따른 연령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탈북한 후 제3국에서 몸을 피하여 다니면서 2~4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학교에 편입하려니 취학에 따른 연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와서 공부를 다시 하자니 연령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삼년 동안 외지에서 생활한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울 뿐이죠. 연령문제로 배우고 싶어도 더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 경우는요, 연령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죠

Q2

A : 고등중학교 이하 탈북 청소년들로 조직된 교육 체계를 따로 내오고 그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해당학교에 편입시키면 좋겠어요. 아직 탈북 청소년들이 아직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습관이나 모든 것이 다르니 일명 '왕따'를 당하여 학교에 잘 안나오고 결국은 퇴학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탈북 청소년들이 제일 힘든 건 같아요. 잘 안되면 그들은 자칫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3

A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시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에 탈북 청소년들을 맡아보는 기구가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학부가 좋은지 어떤 학부가 나에게 적합한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원서를 넣으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해매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남한 사회에서 친구들과 사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들의 언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언어가 약간만 차이가 나도 이상하게 여기고, 외래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언어 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서로 달라요. 친구들 사이의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네덜란드 식으로 돈을 물고 나오거나 이런 작은 실패를 통해서도 북한하고 친구 사귀는데 차이가 나요.

Q2

A : 남한 친구들과 제일 쉽게 사귄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과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놀이라고 한다면, pc방 같은 곳도 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사귄 수 있습니다.

남한친구들과 의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일 심각한 갈등으로 느꼈다는 건 그들과 우리와의 의식 수준에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일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궁금했던 점도 바로 이것 이였습니다. 전 북에 있을 때 과연 한국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그들은 통일을 바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통일을 바라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서부독일과 동부독일이 처음에 통일을 했을 때도 서부독일이 경제가 떨어졌는데, 하물며 작은 한국이 어떻게 일어설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한국 분들도 알고 있듯이 북한은 현재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최대소망은 입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헐벗고 굶주린 남녘 땅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합시다.” 라고 외치는데 여기 한국 분들의 생각과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는 이점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심각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Q3

A : 종교 단체에서 이야기 할 때 제일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만큼 다시 오니까 별로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냥 북한에서 와서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줄 때 그런 것 같네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 ● 문화적 적응

Q1

A :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북한 사회와 비교하여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참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 영역을 놓고 볼 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노력하여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러면서 경제 적 측면에서는 부모도 친구도 없다. 이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경제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사랑보다도 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서로 서로가 능력이 있어야하며, 다시 말하여 남자와 여자가 다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것 이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는 여자라면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을 잘 섬겨야 하며 집안 일을 착실하게 하는 여자가 진짜로 훌륭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 집안 일 보다도 능력 있는 여자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점을 놓고 볼 때도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영역은 차이가 납니다.

놀이문화 영역, 놀이문화를 든다면 여러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게임 같은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컴퓨터가 없으니 게임 같은 것도 할 수도 없거니와 컴퓨터 자체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 진짜 컴퓨터가 많더라고요. 한국의 그 어느 집을 가보나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북한과 한국의 놀이문화도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Q2

A : 남한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서로 보지 못하며 서로와 서로와의 마음이 통하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A : 친구로 사귄 수 있는 특성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한 친구들은 강의성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성 있는 남한 친구가 좋구요. 인내력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친구가 좋아요. 남한에 사는 분들은 거의 다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 경제적 적응

Q1

A : 지금 아르바이트하면서 별로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일 잘 한다고 사장님이 칭찬을 잘 해주시는데 부당한 대우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남한 사장들은 북한 사람이라고 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만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Q2

A : 저는 가족으로 와서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혼자오신 분들이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혼자오신 분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일부 나쁜 사람들한테서 사기도 당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쏟아 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다나니 자기 마음만큼 남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당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들에 대한 재정관리 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A ·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 지식 교육을 별도로 조직하며 그들의 특성과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을 주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가족의 갈등 싸움은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수준이 낙후한데서 오는 것이며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즉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힘들고 업심을 받는 것이 가정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Q2

A · 한국사회에 살면서 이런 비행은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어요.

### ● 정부 정책관련 문제

Q1

A · 시급한 문제는 한국사회에 맞는 일반지식 수준을 높이며 학교와 사회가 그들의 가슴 아파하는 문제 애로 되는 문제를 전체가 달라붙어 감싸 안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A ·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에서 배워주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3

A · ‘하나원 교육과정안’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고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초등 교육으로부터 중등·일반 지식 교육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 교육현실에 맞게 교육하여 그들이 하나원 졸업하여 해당학교에 들어가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안을 하나원 교육형태에 맞게 참고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하나원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피면접자 : 강○○

## ● 학업에 관련된 문제

Q1

A ·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고등중학교 5학년 다니다 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려고 하니까 학력인정을 고등학교 1학년 졸업으로 해주어서 여기서 고등학교에 편입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다녀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이 영등포고등학교 부설 영등포방송통신 고등학교거든요. 집에서 방송 듣고 정규 수업은 1달에 2번 학교에 나가 받게 되고 주말마다 나가니까 힘든 것 없이 다녔어요. 또한 저희 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아빠, 엄마뻘 되시는 분들)이랑 한 학급에서 공부하다 보니 학력의 차이라던가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문제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못 했어요.

그러나 이걸 저의 사정이고 딴 사람들은 좀 사정이 다르거든요. 제가 2003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몰랐었는데 졸업하고 주변을 보니 특히 탈북 청소년들,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탈북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 또래 애들이 너무 많은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건 늦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졸업장을 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큰맘 먹고 고등학교에 편입하긴 하거든요. 거의 모든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하여 중국에서 4~5년은 그냥 놀거나 일하다 온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한국 와서 학교 다니려면 한국 애들이랑 4~5년 차이가 나거든요. 또 북한에서 온 것이 애들한테 알려 지더라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날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이도 애들이랑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그만두고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검정고시 보는 것도 몇 년 동안 공부하지 않은 애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학력 같은 건 신경도 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취업을 하거나 백수로 그냥 하하 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보기에다 안 좋고 주변사람들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으니 되게 마음 아픈 경우가 돼버린 것 같아요.

Q2

A : 여기에서는 중·고등학교 입학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경우가 아닌 제 친구 동생이 직접 겪고 좀 고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친구 동생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탈북하여 5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하였거든요. 하나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다닌 학력을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학교 진학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1년만 있었으면 졸업했을 텐데 한국 와서 편입하려면 몇 년을 더 다녀야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그때 저도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학년 중퇴하고 탈북 하였거든요. 여기 와서 고등중학교 5학년 다니다왔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시켜 주었거든요. 친구동생 얘기들 듣고 좀 놀랐고 2년이란 기간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친구 동생이 지금은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한 애들보다 2살 더 많고 아직 졸업하려면 해수로 4년은 더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좀 나은 편이에요. 북한에서 5학년 중퇴하고 왔으니까요.

저 나이가 올해 만 21살인데 이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있을 건데 그럼 그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려면 중 3학년에 편입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검정고시라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잘 할 수 있을까요? 더욱 더 학력, 학벌 없으면 알아주지 않는 사회인데요.

Q3

A : 저는 지금 다음해에 대학 진학하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진로 선택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대학교 어떤 과를 택해서

가야하는지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저희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 할 수 있잖아요. 그 특별전형 대상자들은 원서 접수를 8월 25일부터 모든 대학교들에서 접수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2년이란 기간을 헛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상담도 못 하겠고요. 저는 하나원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갔거든요. 1년 반 동안 남한의 친구들과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보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택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소개해준 구로공단의 한 회사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일도 해보았거든요. 처음엔 회사에서 진짜 남들이 인정해 줄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쪽 방향으로 크게 성공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좀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대학교는 꼭 가야 하는지, 어떤 과를 택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는 어른들과도 상담도 하고 먼저 대학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 형,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최종결정은 제가 해야 하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갖고 살아야 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제한에 나타난 것 같아요.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저는 1년 반 동안 남한 친구들이랑 같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깐 애들이 좀 회귀하게 생각했고 또 절 대하는 것을 좀 거리감을 두고 대했어요. 저 자신 또한 애들한테 흠 잡힐까봐 많이 조심하고 마음을 잘 열지 않았던 편이죠. 제가 좀 친해지려고 마음을 열고 애들한테 다가갔다면 좀 더 편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저의 북한 말이 좀 무뚝뚝하고 남들이 듣기에 오해하기 쉬운 말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말 듣고 오해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한 애들이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서로 대화하다보면 애들이 외래어를 쓸 때가 많은데 그런 말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좀 어려움을 겪더군요. 그렇다고 외래어 듣고 뜻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대화하기가 좀 두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애들이랑 멀어 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제일 어렸던 문제가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애들은 주로 게임이나 오락실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게임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좋아 하니까 그게 좀 한국 애들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갈 때면 우리는 친구 만나러 다니고 만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애들은 밖에만 나가면 PC방 아니면 책방에 가서 만화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의 문화적 관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친구들 사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지내다 보니 많이 친해졌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내가 먼저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친구들 사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Q2

A : 제가 직업전문학교 다닐 때 경험으로 본다면 남한 친구들이랑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는 놀이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선 일주일에 한번정도 외박 되요. 외박 나가서 애들은 대체로 게임으로 보내요. 게임으로 낯밤을 새우는 애들도 많고 또 게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많았어요. 남한 애들이 하도 게임을 좋아 하니까 애들이랑 좀 친해보려고 게임을 배워보려고 시작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하는 게임 하나 없거든요. 스타크래프트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아는 애들 중에 게임을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애도 저처럼 북한에서 혼자 왔는데 주말만 되면 남한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 저보다 친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애들과 친했거든요. 성인이다 보니 남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술을 같이 마셨고 술을 마시다 보니 애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속

에 있던 애기도 하게 되고 같이 섭섭했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친해 졌어요. 그때 만나던 친구들한테 가끔씩 전화오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가장 심한 갈등을 느꼈던 적은 애들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 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희 학교에서도 학기말 학년말 시험을 보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거든요. 그런데 남한 친구들은 성적이나 등수에 너무 민감한 거 있죠! 평상시 되게 친하게 지내던 남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성적이 좀 더 잘나오면 커닝해서 봤다고 오해해요. 또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의 시험지와 자기 시험지를 대조해 보기도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아무리 경쟁 사회라 하지만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성적이 더 잘나왔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좀 당황했어요.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는 성질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기분 나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 입장으로는 뭐해지려고(친해지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꼭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싫었습니다. 농담이란 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응해줘야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닌가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속을 많이 썩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투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지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Q3

A : 제가 요새 서울대에 다니는 누나한테서 과외를 받거든요. 영어 과외를 받는데 저희는 북한에서 영어를 영국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외국어가 여기 한국처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도 아니니까 영어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 진학하려고 하니까 영어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나를 만나고 있는데 과외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면 역사책도 선물 해 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누나가 저를 많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북한인권시민연합 아시죠. 이 단체에 들어서 죽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서 상담도 받고 또 거기서 누나, 형들도 소개받고 많은 경험도 하거든요. 지금도 탈북 청소년들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 중인 것 같고 저희를 많이 이해하는 단체인 것 같아요.

## ● 문화적 적응

Q1

A : 저는 놀이문화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한국의 문화 특히 놀이문화에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면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는 게임이나 한국의 놀이문화를 접해 본적이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모임 같은데 참석하게 되면 게임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그땐 전 몰래 나와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본 적이 많았어요. 또 한국에서 인기가 좋은 온라인게임 이런 것은 북한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게임들이고 할 줄도 모르니 애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전 그냥 듣기만 하고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배우려고 하니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Q2

A : 남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문화를 보면 첫 번째로 온라인게임, 그리고 체육(축구, 농구, 탁구)이요.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애들한테 왜 게임을 하나 하고 물어보면 게임 하는 시간만은 딴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니 흠뻑 빠져드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축구나 운동 같은 건 다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인기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적극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 같고 또 못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건 남한 애들도 다 좋아하니까요.

Q3

A . 저는 남한 친구들을 사귀다면 가정환경이나 학벌보다는 성실되고 진실된 마음, 그리고 저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폭 넓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직업전문학교 다닐 때에도 되게 친하게 지낸 동생들이 있는데 되게 잘 따라주고 많이 생각해주고 나도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다보니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로 사귀고 싶지 않은 타입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용하려고 거짓말하고 또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한 친구 2명이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둘이 싸우더니 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친구를 경찰서에 보내버린 거예요. 한참 기능사 시험 준비중이라 내일 모래면 시험 봐야하는데 신고한 친구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경찰을 불러 친구를 감방까지 갈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학교측과 친구2명이 경찰서랑 얘기가 잘 되어서 일이 잘되긴 했는데 그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친구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궁지에 몰리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 신고한 친구와는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 ● 경제적 적응

Q1

A : 전 아직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탈북 청소년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탈북자라고 밝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별히 아는 사람 소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을 때에는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혼자서 구하는 아르바이트는 탈북자라 밝히면 득이 될 거 없잖아요 더 심하게 생각한다면 아르바이트로 써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탈북자라는 신분을 숨기니까 부당한 대우 같은 건 없고 남한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Q2

A 정착금 액수에 대해선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나이 어린 탈북 청소년들은 한번에 많은 정착금을 받게 되니까 그 돈들을 너무 막 써대는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도 정착금 다 쓰고 돈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정부에서 처음에 실정을 잘 파악하고 정착금을 관리해주고 1달에 쓸 용돈 정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었다면 정착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그 때 정착금을 다 지급해서 알아서 잘 관리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2년 전만 해도 통장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정부로 들어 왔거든요. 이런 큰돈을 보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호기심도 많은 청소년들에겐 유혹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들을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정착금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3

A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자들에게 특별히 직업교육 시켜준다거나 직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중도 없는 애들이 공부는 어렵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루하루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나이 20넘었어도 고등학교 졸업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게임이나 하고 밖에서 날밤을 새고 낮엔 집에 들어와 자고 이런 생활 반복하다 보면 이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낙오자로 찍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북한에서 보다 더 잘살려고 한국까지 목숨 걸고 온 애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럽네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애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좀더 관심 가져주고 탈북

청소년들의 실태도 조사하고 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일자리 같은걸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여기선 가치관에 따른 세대차이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땐 사회적 통제나 사회 전반적 흐름 때문에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는 자본주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하고 싶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서 오래 사신 어른들은 좀 덜하지만 청소년들은 바로 이사회적 흐름에 발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남녀 모두 술, 담배 배우고 여름에 유행인 미니스커트, 야한 옷들도 입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이런 옷,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순순히 들을 애들도 아니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가출까지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잘못 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애들이 나쁘다고는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Q2

A : 저는 절도 빼고 흡연, 음주, 폭행을 경험하였어요. 저의 주변의 남한 친구들이나 북한친구들 모두 술을 좋아하니까... 자연히 술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또 기분 안 좋은 일이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가끔씩 마셨거든요. 친구를 불러다 놓고 얘기 들어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술 좀 끊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술자리가 잦은 사회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고 계속 술자리 같은데 빠지고 나면 그들과 멀어질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폭행보다는 남자들끼리 감정상해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뭐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폭력을 써서 어린 나이에 전과가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들어보니까 진짜 무섭게들 싸우던데 친구가 맞고 왔다고 여러 명이 몰려가 친구를 때린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도 가끔씩 불러 가는 것 같아요.

## ● 정부정책관련 문제

Q1

A . 학력인정과 직업알선인 것 같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그냥 노는 재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지만 좀 더 나이 먹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 전에 탈북자 학교를 세운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학력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직업알선도 정부에서 탈북자 사정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Q2

A .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거의 참가했어요. 탈북 청소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방학마다 계절학교에도 입학하여 20여 일 동안 대학생,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같이 숙식하면서 힘든 과목공부를 배우고 그랬거든요. 또한 여기서 경주나 공주, 부여 같은 한국의 역사가 깊은 곳도 갔다 오게 되었고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자원봉사 모임에 참가해서 거기서 대학생 누나, 형들도 소개받고 지금은 거기서 소개해 준 대학원생 누나한테 영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 같아요.

Q3

A .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좀 고생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남한 친구들을 사귀어 줄 수 있는 놀이 문화나 방법 같은걸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온라인 게임을 배워 준다거나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지만...그래도 이런 문화놀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 설 수 있잖아요. 공부도 공부겠지만 남한 아이들을 이해하게끔 하고 동시에 이 사회가 서로가 경쟁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피면접자 : 김○○1

## ● 학업에 관련된 문제

Q1

A : 학교에 입학할 때 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았지만 나이가 많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잘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력의 차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원에서 기초과정을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수하게 영어만으로 하는 교양수업은 좀 어려웠지만 다른 과목 강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반영어는 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영어만 빼고 다른 과목들은 한국친구들도 다 생소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뒤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Q2

A : 저는 학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나 대학에 들어와서도 느끼는 것은 학비를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잘 이용해서 대학공부를 잘 마친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3

A : 저는 처음부터 전문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대학체제나 사회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았고 더군다나 나이도 한국 사람들 보다 많았기 때문에 늦추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선부르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딪쳐 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

는데 그 과정에서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전망도 좋을 거라는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적극적으로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고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우리 대학이나 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현장 한국 사람들의 말씀과 그리고 저의 적성에 맞는 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단체나 보호담당경찰관과의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이나 과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하게, 또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희망적일 것입니다. 정부와 종교단체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대학의 진학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대한 도움을 바랄 뿐입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저는 남한친구들을 사귀면서 문화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어울리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남한 친구들을 사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면을 볼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관심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한국사회를 이해하면서 적응이 되었고 별로 어려움 없이 친구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Q2

A : 저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남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서로 전철을 타는 방향이 같은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MT를 가거나 다른

과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단지 태어난 곳만 다를 뿐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한친구들도 처음에는 북한사람이라고 신기하게 보았다고들 하지만, 친해지고 나서는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한국 사람으로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했지만 다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있어서 한국의 문화를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어떤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라도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Q3

A :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북한 사람인 저에 대해서 대할 때에는 한국의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고지식하며, TV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식 대로 딱딱한 이미지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자,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한국 친구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는 달리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주의로 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북한에서도 그랬지만 가정주의로 생활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한국 친구들보다 뭐든지 잘 한다면, 그들도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보다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문화적 적응

### Q1

A : 솔직히 경제적으로 놀이문화, 가치관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살면서 아직 학생이어서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노

력한 만큼 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지금 제가 사는 수준은 북한에 비할 바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놀이문화라고 한다면 남한에는 경제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오직 직장 과 가족밖에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놀이문화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나, 직장생활 할 때도 자기만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땀감이나 식량해결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북한사람들의 일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한에서는 시간이 날 때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적응이 되질 않았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놀러 다닐 때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놀이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발전한 놀이문화로 인해 잘못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놀이문화를 잘 이용한다면 나에게도 유익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북한에서 살 때는 거의 나의 앞날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발전이나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직장 과 가족, 그것 밖에는 나의 발전 가능성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생활이 정신적으로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사회가 하나의 전쟁터와 같은 각 분야의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모든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야심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앞으로 나의 생활에 대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

A : 남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MT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흡연으로 인해 보기 안 좋은 그런 행동만 없다면 정말 친구들끼리 친해지고 화합을 도모하고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MT를 가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화는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게임 중독과 같이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놀이문화는 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게임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음란물이나 또한 청소년들의 술 문화와 같이 무조건 마시고 노는(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놀이문화는 피하고 싶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Q3

A : 저는 남한 친구를 사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고 북한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개방적이기보다는 건전한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고 너무 자기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북한과 다르게 진실 보다는 겉으로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식으로 정말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경제적 적응

Q1

A : 당연히 한국과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온 지 3일만에 아는 분의 소개로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전문용어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한국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어 자체도(영어로 하는 말이 많아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잃어가고 의사선생

님의 생각도 처음보다 많이 틀려져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고 또 나를 이해해달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냥 모른 채로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달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계기로 더 열심히 영어공부도 하게 되었고 지금 방학기간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는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 용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A : 저는 현재 탈북 청소년들에게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이나 정착금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이고 대학교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3

A : 저는 우선 직업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전문지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이나 직업전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저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학업에 관한 문제는 거의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시는 편입니다. 전공문제나 학교문제는 다 저희가 선택하도록 맡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갈등이 있었다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적어지므로 오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지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에 아시는 분도 없으시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생활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문화적인 문제도 많은 부분이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고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에 한국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바램일 것입니다.

Q2

A : 비행 같은 것은 경험해 본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 TV는 날마다 비행이나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나라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가졌었지만 그런 일들은 부분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 정부정책관련 문제

Q1

A :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다른 면에서는 적응이 빠르겠지만 아는 게 없으면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기초적인 학습단계를 마친 다음에 대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한다면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A : 한국에 와서 여러 단체에서 조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의 가치관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물론 호기심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불쾌감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한 2년 반전쯤에 어느 불교단체에서 조직하는 문경의 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북한사람과 남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게 털어놓고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이라는 구별 없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3

A : 저는 지금 하나원 프로그램이 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충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음) 시간표를 정해놓고 영어 기초 공부를 3개월 동안 꾸준히 가르친다면 사회에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컴퓨터 교육과 영어프로그램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사회와 남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가면 부딪쳐야 할 직장 문제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인지를 잘 이해가 되도록 교육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피면접자 : 김○○2

## ● 학업에 관련된 문제

Q1

A :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 소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학교친구들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수업 중에 교수님 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질문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여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를 못하니 질문도 잘 할 수 없고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학습을 하는 방법에서 북한에서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일일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사소한 것까지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준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율에 맡겨지고 또 생들도 자기가 할 것은 알아서 하고 교수님들도 큰 틀 안에서 범위만 잡아줄 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자율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도 빨리 북한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여기방식에 맞춰 공부를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의 문제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Q2

A . 우선 북한과 한국의 교육체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총 10년(유치원1년 제외)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한국은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보니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애들은 여기 와서 북한의 학력을 파악하여 여기 수준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고, 학교 학년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에는 그냥 나이보고 북한에서의 고등학교 학년보고 무작정 학교 과정을 선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정고시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Q3

A . 대부분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실업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북에서 온지 얼마 안된 학생들은 주변의 추천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는 기술이 있어야 벌어먹고 산다. 또는 너희는 기술이외에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공과쪽을 전공했는데 여기서도 공대를 들어가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우선 제가 공과쪽으로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배우는 것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에 경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과목이 저에게 자본주의 사회를 가장 빨리 배우게 하고 잘 와 닿았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특정단체나 정부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으나, 그분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너희는 “그거는 힘들어서 안 돼.”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왔고, 또 그 학생의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탈북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첫째로 남한친구들과 사귀면서 어려운 점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 애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보니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두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속을 다 터놓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절대로 속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주의 적인 사공방식이 남에게 속을 많이

안 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차이가 나다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또 처음에는 사투리도 많이 하다보니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러워 자기에 대한 존재를 많이 숨기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려면 주변 친구들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나도 너희들과 생활패턴이나 모든 습관이 같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많은 인식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2

A : 우선 남한친구들과 쉽게 사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남한과 북한에 차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껏 살아온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그러한 만남의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피서 갈 때나, 어디 문화탐방을 가도 북한사람들끼리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한국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한 친구들이 북한 애들도 같은 친구이고,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서로 융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3

A : 남한 청소년들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할 때는 내가 자기들과 같이 하는 일에서 내가 자기들보다 나은 능력을 보일 때 그리고 내가 힘든 사회 생활한 경험 같은 것을 이야기 할 때가 제일 많이 공감하고 저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 문화적 적응

Q1

A : 일단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의 의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경제에 대한 교육이 남한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많은 돈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도 그것을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테크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놀이문화에서는 북한과 비교할 때 북한은 놀이 문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놀이문화라고 하면 기껏해야 운동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거의 집에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과 같이 즐기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치고 그렇다보니 외로움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저는 집단주의적이 사고방식이 강한 반면, 여기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다가도 많은 오해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Q2

A : 남한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배려하는 모습 등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문화를 통하여 그것을 현실에 옮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따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것이 있다면 너무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다 보니 술 문화라든지 이런 유흥문화에는 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3

A : 남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좋았던 것은 우선 성격들이 대부분 온화하고, 또 부드러운데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특성을 보면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유를 찾는 모습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사귀고 싶지 않은 남한 친구들의 특징이라 함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북에서 온 친구들에게 너무 경계하는 점과 우리에게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재는 북에서 왔으니까 저런 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주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경계를 두면 전혀 한국학생들과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다면 그 또한 허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 ● 경제적 적응

Q1

A . 일단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장님들이 너는 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모를 거야?’ 이렇게 단정짓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고 남이 생각해도 저것은 다 아는 것인데도, “이건 모르지?”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투리를 많이 쓰다보니 서비스업종이라면 찾아온 손님들이 다른 눈빛으로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그 또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 장소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가 살던 북한에서 밥숟가락으로 먹냐? 찬은 젓가락으로 먹냐?”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몇 안되지만 참 이렇게까지 모르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남한사람들이 너무도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어디 아프리카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Q2

A . 현재 정부차원에서 받는 정착금이나 모든 지원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정착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지금은 2년이 되어야 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로 1000만원남아 나가고 몇 달에 2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아껴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나 은행에서 뭍서라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지급한다고 해서 돈을 아껴 쓰게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A : 우선 정부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취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호응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부에서도 취직을 하게 되면 현재는 북한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몇몇 친구는 한달 월급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구로 공단에 있는 선반 돌리고 쇠를 깎는 회사인데, 주말에도 격주로 쉬고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 퇴근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저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의욕을 잃게 하고 자연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 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우선 경제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용돈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도 얼마 안되는 작은 액수만 주고, 또 가정자체에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식들의 용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 사회에 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나 밖으로 나가면 용돈 쓸 일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용돈을 적게 쓰고, 최소한으로 아낀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마찰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북에서 살던 생활습관을 빨리 잊고 여기 생활에 적응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직도 북한 생활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이 많다보니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2

A : 저는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비행을 경험한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에서 담배나 술 같은 것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담배는 끊었는데 술을 마시는 일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다 보면 술 마실 일도 많겠고, 또 그것보다는 고향생각과 외로움으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북한보다 남한이 비행을 할 여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북한보다 남한 학생들이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 정부정책관련 문제

Q1

A :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한 사회를 빨리 이해하고 남한 사람들과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과의 오해와 그리고 서로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직해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끝까지 졸업을 못하고 나오는 것도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Q2

A : 저는 NGO단체들이 남한 대학생들 중에서 북한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같이 문화 탐방이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접 한국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A . 제가 하나원 교육을 받아본 경험으로는 실내 교육보다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원에서 제가 교육받은 것은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나 경찰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원 내의 선생님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안에 선생님들이 북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보시고 제일 많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무시하고 실망을 주신다면 가르치시는 분들로서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많이 홍보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회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피면접자 : 최○○5

## ● 학업에 관련된 문제

Q1 :

A : 저는 처음 학교에 들어갔는데 실력도 안 되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몇 년 동안 방랑하던 습관이 있어서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의 관계도 처음에는 한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폭발하는 습관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가셔도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하지 못해서 매일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Q2

A : 정부에서 북한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 이해가 가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좀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20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늦지 않는데, 20살 되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학자금 문제는 정착금이 조금 남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정부가 다 부담해 주니까요. 검정고시는 하지 않아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하는데 고 2에 넣어달라고 때를 써서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졸업했어요.

Q3

A : 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6개월 해보았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3대 업종에 들어가서 일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생각해 보았지만 실력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졸업장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 중입니다. 전 인문계는 나오지 못했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취업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시민 연합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실력에 맞게 학교나 취업자리를

알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밖에 나와 보니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모르는 것이 많아 몇 번이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 일이 걸릴 때도 많았습니다.

## ● 사회적 관계망 형성관련 문제

Q1

A : 처음에 적응 할 때는 먼저 다른 애들이 한마디를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뭐 나를 놀리지는 않나, 알아보지는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은 게임이나 옷 같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애들이랑 같이 사회 돌아가는 말도 하고 가보고 싶은데도 같이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애들은 시간 나면 게임을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기에 게임을 배우기로하고 게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화 차이는 언어가 제일 큰 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위’보고 ‘게사니’라고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저는 좀 촌스럽게 옷을 입는데 여기 애들은 몸에 맞게 옷을 입구 다녀서 저도 그에 맞게 많이 노력했죠.

차별은 말을 표준어를 쓰지 않으니까 놀리면 싸움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졌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다 이해하면서 점차 차이를 줄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어가 그대로인 줄 알고 있어서 그걸 이해시키느라고 좀 노력도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더군요. 여기서는 TV에서 나오는 말을 더 믿나 봐요. 아무튼 언어가 제일 큰 벽이었습니다.

Q2

A : 게임을 통하여 제일 빨리 사귄 수 있었습니다. 디아블로 아세요. 전 이 게임 배우 누라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뮤, 바람의 나라 등 온라인 게임이나 베틀렛 게임을 통해 빨리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PC방이었기에 저도 배웠죠. 그리고 여기 애들은 공동으로 일할 때 안 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애 보고 왜 안하냐고 하면 뭐라고 하면

싸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본다는 것이 당연히 그 친구가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물어 봐서 다툼 때도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은 게임을 잘하지 않습니다.

Q3

A . 음, 제가 북한에서 생활하던 애기하고 중국에서 고생하던 일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한 친구들은 우리를 보면 궁금한게 너무 많나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북한에서 밥이 없어서 굶던 일이며 하루 세끼 죽 먹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애들은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잘 들어 주었습니다. 뭐 어떻게 북한에서 고생했니? 아니면 중국에서 생활이 힘들지 않았니 하는 것들을 말해주면 애들은 저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 ● 문화적 적응

Q1

A : 북한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지 않아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뭘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 주택이고 전세고 월세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는 그냥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만 올리면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은행도 가야 되고 도시 개발공사도 가야하고 뭐 동사무소, 사무관리소 이런 것을 다 하자면 저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놀이 문화는 우리는 밖에 나가 수영이랑 하구 겨울에는 강변에 나가 외 발기를 타고, 산에 열매 따러 가는데 여기서는 롯데월드, 서울랜드 그리고 놀이시설 등이 많이 갑니다. 우리랑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는 다면 북한이 한참 떨어졌지…… 가슴이 아픕니다

Q2

A : 남한 애들은 대부분 이 PC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실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하기가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수영입니다. 이유는 살이 잘 빠지니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음, 남의 일에 끼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 일만 알아서 하면 복잡하지 않고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Q3

A : 친구로 사귀고 싶은 애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욕도 잘 하지 않고, 공부도 어느 만큼은 하는 애들과 사귀고 싶습니다. 여기 애들은 욕이 심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은 애들은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것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면 못살고 무식 한 줄만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친구로 사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힘이 약하다고 깔보는 애들이 있어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키도 작고 몸도 약하니까 만만해 보이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싸움도 많이 했는데 살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니, 지금은 싸움은 잘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 대화로 하니까요. 한쪽으로는 속이 타는데 일이 크게 번지지 않아 좋더군요.

### ● 경제적 적응

Q1:

A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일단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할 때 디젤유통에 휘발유를 넣어서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 갔는데 그때 벌금 6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Q2

A : 전 처음에 집도 나오고 돈도 주고 해서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실력에 한 달에 관리비,

전기세, 물세 내고 용돈 쓰고, 채소 사먹고 하면 적어서 40만원은 나갑니다. 그리고 취직해서 한 달에 60만원 받았는데 40만원 쓰고 나머지 20만원은 동생용돈 조금 주고 하면 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면 집도 있고 정착금도 있다고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 애들이 부모 용돈 타쓰고 생활하는데 저희 같은 독신들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한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숙사에서 자립하는 동안은 몇 년이라도 머물게 한 다음 정착금이랑 집은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애들 제대로 사는 것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말로는 다 해주고 뭐가 부족하니 라고 하는데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Q3

A .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취직 할 때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여기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를 취직시킨 회사는 관리비 같은 것을 몇 년 동안이라도 면제 해주고 하면 우리가 취직하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걸 면제해 정부가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우리가 정착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 가족내 관계 및 비행의 경험

Q1

A . 저희 가족은 아버님, 어머님,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술을 너무 좋아 하셔서 어머님이랑 다툼 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먹기 살기 어려운 데 아버님께서 술을 자꾸 드시니 속이 타셨겠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속이 타셨겠죠 옛날에는 배급이랑 제대로 줄 때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집안을 유지 해나가니까 마음이 상해서 술을 많이 드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젠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전 밥상에서 밥 사발이 조금만 골게 나오면 더 달라고 때를 쓰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이유는 저만 집안 일 시킨다는 이유로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다 먹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끼 먹겠다고 하루 종일 장마당(시장)에 나가 고생하는 어머님들을 보면, 그때 말 좀 잘 들었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Q2

A : 전 흡연은 북한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때가 11살인지 형들을 따라 다니다가 한 모금 한 모금 피운 것이 지금은 골초가 됐습니다. 술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배울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보고 술은 먹지 않기로 했는데 여기서 살다보니까 넘 힘들어서 배웠습니다. 이유는 중국에 동생이 들어 왔었는데 아버님께서 결핵으로 돌아 가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뭐 잘못해서 꾸중이랑 들으면 그때마다 집에 와서 술을 먹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신도림 역에서 놀면서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 친구가 옆 사람을 좀 스쳤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첫마디가 욕을 하는데 차라리 한 대 맞는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작으니까 깔보고 그러는지? 그래서 나를 물어보니 20살이라고 해서 전 그때 19살이었고, 친구는 20살이었습니다. 나이도 별 차이 안 나고 잘 말해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해서 저희가 왜 욕하냐구 했더니 친구의 싸대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한가운데서 싸움이 붙었는데 2 대2로 했는데 우리가 패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옆에 아줌마가 말려서 그만 두었는데 덩치만 컸지 힘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에 와서 싸움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 ● 정부정책관련 문제

Q1

A : 우선은 독신들에게는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니깐요. 그리고 부모들이 있는 애들은 학교 문제 같은 것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2

A : 북한 인권 시민 연합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 보면 직접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집에 와서 가르쳐 주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찾아가면 상담도 해주고…….

Q3

A : 먼저 현장 학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 하나원에서 하는 것이 교실에서 공부 배워주고, 노래 배워주고, 그 다음 법에 대해 조금 공부시키고, 그 다음은 별로 크게 별로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현장 학습을 많이 하고 언어를 조금이라도 표준어로해서 사회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한국에 처음 온 것이 하나원인데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보다는 먼저 사회 적응에 대한 것이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같은 방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별로 좋은 추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있는 3개월 동안 청소 같은 작은 일들은 성인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배정할 때 성인은 성인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심층면접 ◆

북한이탈 청소년 20명(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 않음)

### ◆ 집      필 ◆

|     |                     |
|-----|---------------------|
| 김성민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무국장      |
| 이우영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황인표 | 보성고등학교 교사, 통일교육원 강사 |

공 백

##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외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11

---

##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인 쇄 2003년 12월 24일

발 행 2003년 12월 27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대산문화사  
(02) 2278-0958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자료실)

ISBN 89-7816-471-4(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11

#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길은배(연구위원)

객원연구원 : 문성호(중앙대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 연구 요약 】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이주민 적응 사례를 고찰하였고,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각종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각기의 연구 문제를 다룸에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에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우선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 및 그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당면하는 제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 방법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을 구안하기 위하여 2장에서 외국 사례 및 선행연구를 하였고, 3장에서는 정부 및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접근 방법으로 2-3장은 문헌연구를, 4장은 면접조사를, 그리고 각 장의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구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 3. 연구의 제한점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연구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연령은 9-24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3장의 논의에서 살펴본듯이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현재의 연령이 20대 중·후반이나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남한 청소년

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문화권에 속에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청소년의 연령 기준과 일상생활의 문화적, 경험적 연령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명확하게 그 연령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현재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일반화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 중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정책을 분리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원 정책중 청소년층에 적용 가능한 정책만을 선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할 경우 청소년 대 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안·제시하였다.

셋째, 20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결과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250여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모두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면접 인원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학업 및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공통분모를 찾는 것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결과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보편적 당면문제로 남한 사회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들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그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넘긴다.

## II. 이론적 배경

먼저, 사회적응의 개념화를 위하여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정의와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체적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패턴이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적응 문제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화를 시도한 논의도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적응의 유형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Berry의 문화동화(assimilation), 문화통합(integration), 문화분리(separation),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과 관련된 논의와 Berry의 이론을 응용하여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응의 유형화를 시도한 윤인진, 전우택, 전성우의 논의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을 구안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이슈를 천착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사례,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정책을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를 남북관계의 걸림돌로만 여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협상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서독의 꾸준한 교류와 접촉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지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성과 이 과정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자발적 지원 역량이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되어야 효과적임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제도나 정책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간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3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에 기초한 그 연령의 적용 범위 문제와 최근의 입국 현황,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과제 개발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은 몇몇 전문가 및 참여 민간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차원의 사업과제 개발은 관련 예산의 확보문제와 참여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역량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일회적인 소규모 형태를 떨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다 체계적·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개발과 이의 실행 및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실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반화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최근 들어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연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등 그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부모·형제와 함께 입국한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과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업지원 및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그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정에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확산과 이를 통한 대국민 의식 계몽을 위하여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 수행은 일부 종교단체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로 사업공모제를 통한 예산지원의 확대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의 관련 사업의 참여 시수 누적관리를 통한 연수학점 인정,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금강산 관광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과 같이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비진학 북한이탈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등 많은 시사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요한 시사점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의식 계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이 상당부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냉대와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차원의 방안이 구안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 IV.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4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크게 학업·문화·경제적 영역의 적응 실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문제·비행의 경험, 가족내 갈등의 주요원인, 시설보호내 적응의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의한 지원 정책 평가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이들에 의한 현재의 지원정책 평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연고 청소년 대상의 정착금 지급방법 다양화, ②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 인증 방안 마련, ③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및 직업 전문 교육의 다양화, ④ 북한이탈자에 대한 편견 교정교육 마련, ⑤ 학업지원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⑥ 인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⑦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⑧ 시설보호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등이다. 특히, 시설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으로는 ㉠ 실질적 체험위주의 현장교육 강화, ㉡ 시설내 지도자의 태도 개선, ㉢ 청소년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언어 적응 교육 강화, ㉤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참모습 경험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적하고 있다.

## V.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은 앞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방안 실태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구안하였다. 주요 영역은 학업지원 및 하나원 교육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등이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방안으로는 ① 관련 법·제도의 정비, ② 북한이탈 청소년 전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마련, ③ 교육 공간의 확보, ④ 방과 후-방학을 활용한 계절학기 시스템 구축, ⑤ 동료학습 체제 구축, ⑥ 학업진로담당관(교육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② 효율적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축, ③ 정부-민간단체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제 마련, ④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 구축, ⑤ 하나원과 인근 학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⑥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⑦ 보건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진출 후 지원 방안으로는 ① 문제 인식 제고, ②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 ③ 국가-민간단체-북한이탈 가정간의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 ④ 찾아가는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마련, ⑤ 전문 상담시스템 구축, ⑥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 론

최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입국 규모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같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유무, 탈북 과정과 제3국에서의 경험,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는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법·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정책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특수한 지원 정책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탈자라고 하는 일반적 특수성만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흔적들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과 초기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하나원의 수용규모가 10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 정도가 청소년층이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는 성인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특성화된 정책이 미미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남한 사회내의 또 다른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관련 정책이 탈북자라고 하는 특수성을 근간으로 수립·추진되었음과 이의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이 미흡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의 개입이 미약한 일반 청소년 및 무연고 청소년 등과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부적응의 유형을 고려하여 학업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 문화적·경제적 적응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그 성과적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참여 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와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모형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프로그램의 일회적 사업의 편향과 비체계성의 문제 등이다. 더욱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참여 단체간 관련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하고, 참여 민간단체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의 부재에서 초래된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 부적응 유형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의 교육적 내실화를 제고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2. 정책 제언

### 1) 외국 사례에 기초한 사회적응 지원 정책 수립의 전략적 제언

- (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기본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지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3)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지향점으로 삼는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 (5)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형평성 제고와 차별 극복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2) 정부-민간단체간의 역할 모색에 관한 제언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사업과제 개발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2)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포괄적 지원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수한 지원 정책 수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정에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계몽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3) 사회진출 후 사회적응 지원 방안에 관한 제언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정착금 지급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인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진로지도 체계 구축 및 직업전문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업지원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 (5)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 (6)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 4)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언

- (1)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 (3) 실질적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4) 하나원과 인근 학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 (5) 청소년문화 이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6) 언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7)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8)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 백

# 목 차

## 연구요약

|                                          |           |
|------------------------------------------|-----------|
| <b>I. 서론</b>                             | <b>3</b>  |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
| 1) 연구 내용                                 | 5         |
| 2) 연구 방법                                 | 9         |
| 3. 연구의 제한점                               | 10        |
| <b>II. 이론적 배경</b>                        | <b>15</b> |
| 1.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기초                       | 15        |
| 1)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                         | 15        |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                     | 21        |
| 2. 외국 이주민의 사회적응 사례                       | 25        |
| 1) 독일 사례                                 | 25        |
| 2) 미국내 소수민족 사례                           | 29        |
| 3) 캐나다 사례                                | 31        |
| 3.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 34        |
| <b>III.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b> | <b>39</b> |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 39        |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와 연령 기준               | 39        |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와 변화                      | 44        |

|                                           |            |
|-------------------------------------------|------------|
| 2. 정부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정책 실태 .....     | 49         |
| 1) 정착지원 체계 .....                          | 49         |
| 2) 시설내 보호·지원 정책 .....                     | 52         |
| 3) 초기 생활안정 지원 정책 .....                    | 58         |
| 4) 사회진출 후 지원 정책 .....                     | 61         |
| 3.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실태 .....        | 67         |
| 1) 일반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68         |
| 2)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            | 73         |
| 4.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            | 75         |
| <br><b>IV.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b> | <b>83</b>  |
| 1. 조사의 개요 .....                           | 83         |
| 1) 조사 목적 .....                            | 83         |
| 2) 조사 대상 .....                            | 83         |
| 3) 조사 과정 및 내용 .....                       | 85         |
| 4)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 .....                      | 85         |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                | 86         |
| 1) 학업·문화·경제적 적응 실태 .....                  | 86         |
| 2)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                   | 105        |
| 3) 가정내 갈등의 주요 원인 .....                    | 113        |
| 4) 청소년 문제·비행 경험 실태 .....                  | 114        |
| 3.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논의 및 시사점 .....     | 116        |
| <br><b>V.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b>  | <b>133</b> |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방안 .....               | 133        |
| 2.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체계 개선 방안 .....             | 136        |
| 3.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진출 후 지원 방안 .....            | 140        |

|                                          |     |
|------------------------------------------|-----|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 147 |
| 1. 결 론 .....                             | 147 |
| 2. 정책 제언 .....                           | 149 |
| 1) 외국 사례에 기초한 사회적응 지원 정책 수립의 전략적 제언 .... | 149 |
| 2) 정부-민간단체의 역할 모색에 관한 제언 .....           | 152 |
| 3) 사회진출 후 사회적응 지원 방안에 관한 제언 .....        | 155 |
| 4) 시설내 보호·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언 .....     | 158 |
| 참고문헌 .....                               | 162 |
| [부 록] .....                              | 169 |

## 표 목 차

|            |                           |    |
|------------|---------------------------|----|
| <표 III-1>  | 2002년도 국내 입국 현황 .....     | 44 |
| <표 III-2>  | 2002년도 국내입국자 연령별 현황 ..... | 45 |
| <표 III-3>  | 2002년도 국내입국자 직업별 현황 ..... | 45 |
| <표 III-4>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 현황 ..... | 51 |
| <표 III-5>  | 「하나원」 교육생 수료 현황 .....     | 53 |
| <표 III-6>  |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 53 |
| <표 III-7>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교과과정 .....  | 54 |
| <표 III-8>  | 학자금 지원금액 .....            | 63 |
| <표 III-9>  | 소득평가액 기준 .....            | 66 |
| <표 III-10> | 재산평가 기준 .....             | 66 |
| <표 IV-1>   | 연구대상 현황 .....             | 84 |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I -1]  | 연구방법 체계도 .....           | 9  |
| [그림 III-1]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 50 |
| [그림 III-2] | 북한이탈주민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 60 |
| [그림 III-3] | 학력확인(인정) 절차 .....        | 62 |
| [그림 III-4] | 자격인정 신청절차 .....          | 64 |
| [그림 III-5] | 직업훈련 신청절차 .....          | 65 |